

제 1장

가정소설의 개념과 형성 배경

1.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

◆ 보충 핵심 포인트

☞ <장르 - '서사적'>

장르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출발하여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도 장르의 정의, 수효, 상호 관계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장르를 유형학적 관점에서 구분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분류가 바로 <산문-시>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거나 <서정적 - 서사적 - 극적>의 삼분법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산문은 상당히 애매모한 개념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학이 아닌 것 전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산문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양자택일 즉 담화의 운율적 구성에 관한 양자 택일인가(자유시-산문시) 아니면 시와 허구 사이의 양자 택일 즉 첫째, 문자성의 차원에서 음성적, 철자법적, 의미론적 형상화로 읽어야 하는 담화와 둘째, 경험세계를 환기시키는 재현적(모방적) 담화 사이의 양자 택일인가가 불분명하다. 또 여기에 문체에 관한 규칙이 첨가되기도 한다. 시에서는 정서적, 비유적, 개인적 문체 등이 우세한 반면, 허구는 참조문체의 우세란 특징을 갖고 있다.

후자인 <서정적 - 서사적 - 극적>의 분류의 경우,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괴테, 야콥슨을 거쳐 에밀 슈타이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세 범주에서 문학의 근본적이고 자연스럽기까지 한 형태를 찾으려고 했다.

4세기의 디오메데스는 '서정적'의 경우, 저자 한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작품, '극적'의 경우 인물만이 이야기하는 작품, '서사적'의 경우, 저자와 인물이 동시에 말할 권리를 가진 작품으로 구분하였다. 괴테는 시적 양태(mode)와 시의 자연 형태를 구별하고 시의 진정한 자연 형태는 세 개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것은 바로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서사시, 흥분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서정시, 주관적인 것에 집착하여 이야기하는 극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도식은 세 가지의 진술하는 주인공과 관계되는데, <그>(서사시), <나>(서정시), <너>(극)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은 야콥슨에게로 있어서 서정시의 출발점과 유도 주제는 일인칭과 현재 시점인 반면, 서사시에서는 삼인칭과 과거 시제(김현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16 ~ 18쪽)라고 설명된다. 한편 에밀 슈타이거(Emile Staiger)는 '서정적'은 현재, '서사적'은 과거, '극적'은 미래라는 관계를 가정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본질적으로 시간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또 그는 서정시를 문학이라는 사원 속에서도 가장 깊숙이 감춰진 성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장기간 서정시의 탐구

에 몰두했다. 서정적 양식이란 말하자면 사물과 영감 받은 시인의 내면세계 사이의 조화만큼 오랫동안 그 시인으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아무런 단절도 없다. 시인의 영혼은 유동적 요소인 정조를 타고 흐른다.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는 ‘회상’의 작용에 의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시인의 고유의 본성으로 동화시킨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서사양식은 ‘표상’으로 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거리(distance)의 태도는 서사양식을 특성화한다. 초연한 표상의 행위는 명백하게 ‘주체’로부터 ‘객체’를 분리시키고 잘 표현된 서사적 세계를 유유자적하게 이것을 기록한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극양식의 특성으로 긴장(정념과 문제)을 설정하였다. ‘정념(pathos)’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강제적 힘으로서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problem)’는 이 단어의 어원이 암시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부닥치기 위해 미리 내던져진 무엇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정념과 문제는 이른바 의지와 탐색으로서 양자는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치한다.(폴 헤르나디, 장르론, 김준오 옮김, 문장, 1983, 33 ~ 44쪽)

한편 조동일 교수는 독일의 자이들러의 견해를 나름대로 변용시켜 문학의 장르를 서정, 교술, 서사, 희곡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서정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자아화이고,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세계화이며,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에 의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고 희곡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이론을 전개했다.

또한 같은 방법에 의해 소설의 특징을 논한 결과, 신화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 또는 동질성을 갖도록 대결하며, 자아와 세계에 일관된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고, 전설은 자아와 세계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세계의 경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민담은 자아와 세계가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설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와 세계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37쪽)

앞서 이론에서 ‘서사적인 것’이 발전되어 한 장르로 굳어진 것이 소설이다. 서양에서는 소설이라는 말로 스토리, 픽션, 로망, 노벨 등이 사용된다. 몰턴은 소설의 근원을 고대의 서사문학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에 비해 티보데는 소설의 기원을 중세의 roman(혹은 romance)에서 찾았다. 중세의 로맨스는 주로 기사나 비련에 젖은 처녀의 기이하고 흥미있는 모험과 사랑을 그 소재로 하고 있다. 로맨스는 분량이 길고 고귀하고 영웅적인 인물을 다룬 점에서 서사시와 유사하다. 그러나 서사시는 소재가 주로 전쟁인데 비해, 로맨스는 사랑인 점이 다르다. 또 로맨스는 에피소드적인 플롯을 사용하고 보다 작의적이고 창조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소설과 비슷하다.

로망은 승려문학자의 시대에 라틴어로 쓰여 지던 정규의 서적에 대해서 세속의 속어(로망어)로 쓰여진 문학을 말한다. 이러한 로망어로 쓰여진 기사적 연애 및 모험의 가공적인 이야기가 소설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통설이다.

한편 위켈은 소설의 기원을 로망(roman)과 노벨(novel)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노벨이란 용어는 그 어원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원래 이탈리아어로는 산문으로 된 짧은 이야기를 말하는 노벨라(novella)를 뜻하였다. 즉 노벨은 영미에서 주로 쓰여지던 용어로 새로운 이야기, 뉴스,

새소식의 뜻에서 온 말로 사실적인 짧은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반해, 로맨스는 중세시대에 남유럽에서 로맨스어로 쓰여지던,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다루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로맨스를 다룬 금오신화 등의 전기소설과 장화홍련전, 춘향전, 심청전 등 대부분의 고소설이 로망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 소설이란 명칭이 최초로 쓰인 것은 장자 외물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였다.

夫揭干累趣灌瀆守鯢鮪 其於得大魚難矣 飾小說以干縣令 其於大遠亦遠矣

물론 상기 글에서 소설은 ‘짧은 글’이란 의미로 요즈음의 소설 장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즈음의 소설이란 개념에 가까운 뜻으로 처음으로 ‘소설’을 사용한 경우는 동한인 桓譚에 의해서였다. 즉 중국에서 東漢人 桓譚이 “小說家 合殘叢小語, 近取譬喻 以作短書 治身理家 有可觀之事”라고 하여 요즈음의 소설의 개념에 가까운 뜻을 밝힌 것이 소설의 개념정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소설을 殘叢小語로 본 것인데, 인간의 주변에 널려있는 잡다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소재로 취하여 살을 붙이고 비유를 더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꾸민 것이 요즈음의 소설이라고 할 때 유사한 개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 주변에 널려있는 사소한 생활상의 소재를 취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볼 때,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나 가정 내의 문제일 것이다. 가정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다. 가정소설이란 명칭은 고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내용상의 유형분류상의 개념이다.

(1) ‘가정소설’ 명칭의 최초 사용자 안확

고소설의 하위 장르로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이는 安廓이다. 그는 朝鮮文學史에서 “家庭小説은 其類가 頗多라. 그런데 兄弟間의 葛藤보다 繼母子間의 葛藤시앗싸움이 多한지라. 『謝氏南征記』에는 正室이 勸告하여 作妾하얏다가 正室이 反히 其妾에게 姦逐을 當하얏고 『揚風雲傳』에는 三男妹가 其庶母에게 被逐되고 終에는 其父까지 姦逐을 當하니라. 『薔花紅蓮傳』은 繼母子間에 生한 悲劇이니 薔花兩女가 水에 投하야 死하매 其怨魂은 其郡守를 驚死케함에 至하니라”라고 하여 계모 자식간의 갈등시앗싸움이 가정소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언급하고 있다. 金台俊은 朝鮮小說史에서 장화홍련전과 기타 公案類라는 항목을 나눔으로써 『장화홍련전』을 공안소설로 내용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鐵山襄座首의 實談을 기초로 하고 靈應傳이나 寶娥鬼(元曲)같은데 볼 수 있는 원귀의 公廳出現說話와 淑香傳 晉唐小說 등에 볼 수 있는 靑鳥의 길 안내 등 전설을 부회해서 이룬 계모소설”이라고 하여 계모소설이란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高晶玉이 쓴 우리어문학회편 『國文學史』에서도 가정소설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장화홍련전』이 계모소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김태준의 견해를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운제는 그의 『한국문학사』에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

는 사실에서 취제한 소설을 의미하고자 한 것인데, 가정 내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로 계모와 선처소생과의 관계사 혹은 처첩간에 일어나는 사실 등이 되겠다.” 고 언급하여 계모형 소설을 가정소설로 간주하고 있다. 이병기는 『국문학개론』에서 고소설의 제재상 분류로는 종교소설, 농민소설, 탐정소설, 모험소설, 가정소설, 궁정소설, 골계소설, 연애소설, 과학소설 등이 있음을 밝히고, 고소설을 크게 대별하면, 전기소설과 사실소설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장화홍련전』은 전기소설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안익(安翼)** : 호는 自山. 서울출신. 일본 니혼대학 졸업. 조선문학사, 시조시학 등을 저작하여 초기 국문학 연구에 큰 공적을 남겼다.

(2) 가정소설의 분류를 세분화 - 정주동 · 김기동 · 우쾌제

한편 가정소설의 개념 정의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정주동과 김기동이다. 정주동은 『고대소설론』에서 “가정소설이란 효, 열, 우애 등 가정윤리를 고조한 소설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정소설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 동양적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모순과 갈등과 비극을 표현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가정소설”을 말한다고 하여 그 범주를 좁힌 바 있다. 김기동은 가정소설이란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모순과 갈등과 알력과 비극을 표현한 작품들을 뜻한다고 하면서, 동양적인 가족제도로 인해 부자간의 알력, 형제간의 불화, 처첩간의 갈등, 동서간의 시기,舅姑간의 다툼, 계모와 전처소생간의 갈등 따위는 의례 풍파와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처첩간의 비극과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간의 비극을 조선중기의 작가들이 주로 다루었다고 하여 정주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소설의 범주를 좁게 잡고 있다.

한편 우쾌제는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에서 가정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 가족구성원간에 야기된 孝烈과 같은 윤리적 갈등에서 비롯되어 이질적 가족집단에 의한 신분적 갈등으로 구체화된 작품을 말한다고 정의내리면서 가정소설의 유형은 효열과 같은 가정윤리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갈등을 주제로 한 것과 계모나 첩과 같은 이질적 가족집단에 의한 신분적 갈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가정소설의 범주를 대단히 폭넓게 잡고 있다.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정소설이란 1) 가정내의 2)가족간의 갈등과 모순을 다루되, 3) 비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소설이란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범주에 있어서는 효·열·우애 등 가정윤리를 고조한 소설까지를 모두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처첩간의 비극과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간의 비극으로 한정하자는 협의의 개념정의를 내세우는 의견으로 나뉘어짐을 보게 된다. 필자는 이 중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자는 학계의 통설을 따르기로 한다.

(3) 가족의 개념정의

- 1) 김두현 : 가족이라 함은 “일반으로 영속적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서 된 생활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족이란 “친애의 정으로써 서로 접근하기 쉽게 되어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이다.”라고 언급
- 2) 최재석 : 가족에 대해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라고 간단하게 언급
- 3) 머독(G. P. Murdok) : 고전적인 정의를 내림. “가족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이란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다. 가족은 성 관계를 허용 받은 최소한의 성인 남녀와 그들에게서 출생하였거나 양자로 된 자녀로서 이루어졌다.” 머독은 가족의 정의에서 ‘공동의 거주’라는 동거집단을 중요한 특성으로 삼았음
- 4) 레비스트로스 : 머독의 정의가 핵가족(nuclear family)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족에 대해 새롭게 개념정의를 내림 즉 (1) 가족은 결혼에 의해 출발한다. (2) 이것은 부부와 그들의 결혼에 의한 출생한 자녀로써 구성되지만, 그중 핵집단에 따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3) 가족구성원은 (a) 법적유대 (b)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권리와 의무, (c) 성적 권리와 금제, 애정, 존경, 경외 등 다종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레비스트로스는 머독과 달리 가족원의 유대, 관계, 결합 중요한 요소로 파악함

◆ 보충 핵심 포인트

☞ <사회학의 대행자로서의 가족>

머독은 “가족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이란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 ”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이란 혈연이란 관계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인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사회학의 대행자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가족 체계가 대단히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 사이에 유아가 경험하는 접촉의 범위에 대한 어떤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는 정상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의 초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이지만 엄마와 그 자녀들 사이에 수립되는 관계의 본질은 그들의 접촉 형태와 규칙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는 그 다음에 형성되는 가족 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여타 집단들과 가족과의 관계에 의해 조건 지어 진다.

근대 사회에서 가장 초기의 사회화는 소규모 가족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구 사회의 어린이의 대다수는 그들의 초기 몇 년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마도 한 두 명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정 단위에서 생활한다. 대조적으로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는 고모, 삼촌, 손자 등이 종종 한 기구의 일부를 이루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보호자로서 이바지한다. 그러나 서구 사회의 내부에는 가족 맥락의 본성에서 많은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몇몇 어린이들은 편부모 가에서 양육된다. 몇몇은 두 명의 엄마와 아버지를 갖기도 한다.(이혼한 부모와 외딴 부모 - 조선조 가정 소설 내의 문제들) 가족이 있는 여성 가운데 높은 비율이 오늘날에는 가정 밖에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낳은 후 얼마 있다가 곧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변이형들에도 불구하고

고 가족은 정상적으로 유아기로부터 사춘기와 그 이상까지 세대들을 연결하는 발전의 연속 속에서 사회화의 주요한 대행자로 남아 있다.

가족은 사회의 전체 제도 내에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 사회에서 개인이 태어나는 가족은 그 사람의 남은 생애 동안의 사회적 지위를 주로 결정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는 이런 방식으로 출생과 함께 타고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 태어나는 가족의 사는 지역과 사회계급은 사회화의 유형에 매우 뚜렷하게 영향을 준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 또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특징짓는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린이 양육과 훈련의 다양한 유형은 대조적인 가치와 함께 대규모 사회의 상이한 부문들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백인들이 거주하는 교외의 풍요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와 비교할 때 황폐한 도시 근처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상이한 가족 배경 유형의 영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김미숙외 옮김, 을유문화사, 92 ~ 93쪽)

(4) 가정소설에 대한 개념정의

‘가정소설’이란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내지 결합의 관계가 경제적, 심리적 갈등요인으로 이내 깨지게 됨에 따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사이에 비극적 결말을 빚게 되는 소설. 단지 그 전제조건은 가족에 있어서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인 남녀 중 한 사람이 동거집단에서 이탈하거나(죽게 되는 경우 포함) 새로운 인물이 동거집단에 유입되었을 때 그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만 성립됨. 유사한 용어로 ‘가족소설’ 내지 ‘가사소설’ 등이 있음.

(5) 소설의 유형

1. 프레이저(G. S. Fraser)의 견해

- 1930년대 영국소설의 네 가지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범죄나 모험을 소재로 한 상징적 통속소설 혹은 스틸러.
- ② 주로 위험한 현장을 그린 일종의 기록소설.
- ③ 사회생활에 있어서 갈등심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부조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사회적 우화소설.
- ④ 상류사회의 모순과 허위와 경박성을 비판하는데다 초점을 맞춘 풍자소설.

2. 부쓰의 견해

- ① 성격발전소설(story of character-development)
- ② 전락소설(story of degeneration)
- ③ 사상소설(novel of ideas)
- ④ 감상소설(sentimental novel)

⑤ 탐구소설(quest-novel)

3. 루카치의 견해

- 근대소설의 유형을 삶의 전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함

- ① 추상적 관념론의 소설(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 ② 환멸의 낭만주의 소설(곤자로프의 『오블로모프』)
- ③ 종합을 시도한 교양소설(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 ④ 삶의 사회적 형식을 초월하려는 소설(톨스토이의 소설들)

4. 램메르트의 견해

- ① 사건소설(Geschehensepos)
- ② 공간소설(Raumepos)
- ③ 발전소설(entwickelendes Erzählen)
- ④ 파노라마소설(Panoramisches Erzählen)
- ⑤ 의식의 흐름소설(Roman des Bewußtseinsflusses)
- ⑥ 영혼소설(Roman der Seele)
- ⑦ 교양소설(Bildungsroman)
- ⑧ 계몽소설 (didaktischen Erzählung)

5. 고소설의 유형

- ① 전기소설
- ② 사회소설
- ③ 의인소설
- ④ 몽유록계 소설
- ⑤ 역사소설
- ⑥ 군담소설
- ⑦ 가정소설
- ⑧ 우화소설
- ⑨ 애정소설
- ⑩ 이상소설
- ⑪ 도덕소설
- ⑫ 풍자소설
- ⑬ 가문소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 수없이 많이 나뉜다

어질 수 있다. 특히 제재에 따라 나누는 방법은 커다란 의미도 없을뿐더러 그 구분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설의 총체적 흐름 파악을 위해서는 개별소설의 내용, 성격, 형태 등을 종합하여 몇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소설, 사회소설, 의인소설, 몽유록계 소설, 역사소설, 군담소설, 가정소설, 우화소설, 애정소설, 이상소설, 도덕소설, 풍자소설, 가문소설의 13종으로 분류하게 된다.

6. 가정소설의 유형

1) 우패제 교수

- ① 윤리적 갈등소설
- ② 신분적 갈등소설

2) 박태상교수 외

- ① 계모형 가정소설
- ② 쟁충형 가정소설

앞서 언급한대로 우패제는 가정소설을 윤리적 갈등소설과 신분적 갈등소설로 이분하고, 전자를 孝行型 가정소설과 貞節型 가정소설로, 후자를 繼母型 가정소설과 爭寵型 가정소설로 나눈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가정소설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정소설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내지 결합의 관계가 경제적, 심리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깨지게 됨에 따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사이에 비극적인 갈등을 빚게 되는 소설”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가정소설의 유형을 크게 계모형 가정소설과 쟁충형 가정소설로 나뉘게 된다. 계모형 소설이란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된 계모가 전처소생 자식을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학대하는 양상을 보이는 작품을 말하며, 쟁충형 소설이란 조선조의 일부다처제 또는 축첩제도로 인하여 한 지아비를 놓고 여러 부인 또는 처첩간에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갈등을 빚는 소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전자에 해당하는 『薔花紅蓮傳』, 『콩쥐팍쥐전』, 『鄭乙善傳』, 『金仁香傳』, 『黃月仙傳』 등이 있고, 후자에 『謝氏南征記』, 『月英娘子傳』, 『소씨전』 등이 있다.

2. 조선조의 가족제도

1) 가족의 유형

머독(G. P. Murdock)이 언급한 것처럼 “가족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이란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이다. 즉 가족이란 혈연이란 관계로 결부된 사람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인 것이다. 또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원이며, 또한 ‘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집’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생활하는 거주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이나 가풍, 가장, 가옥 등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조에 많이 창작된 가정소설을 이와 같은 가족성원들 사이의 문제나 ‘집’을 형성하는 인물 및 재산 소유에 관련된 갈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1) 단순가족/핵가족/개별가족/부부가족

- 가족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족이 바로 파슨즈(T. Parsons)가 말한 단순가족(simple family)이다. 이 용어에 대해 머독(G. P. Murdock)은 핵가족(nuclear family)이라 하였고, 슈미트와 코퍼스(W. Schmidt & W. Koppers)는 개별가족이라 하였다. 그리고 말리노브스키(B. Malinowski)와 레비스트로스는 부부가족(conjugal family)이라고 불렀다. 단순가족은 가족의 최단순형인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2) 복합가족/총제가족/합성가족

- 부부가족 내지 단순가족이 더 확대된 가족 또는 복합된 가족을 코퍼스는 복합가족(composite family)라고 하였고, 슈미트와 코퍼스는 총제가족이라고 하였으며, 파슨즈는 합성가족(compound family)이라고 하였다.

3) 확대가족/직계가족

- 부계 확대가족에는 두 종류가 있다. 흔히 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혼한 자식이 전부 그들의 방위가족, 즉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와 직계가족이라 부르는 것으로 결혼한 자녀 1인만 그의 생식가족과 더불어 방위가족에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가 있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윌리엄 구드의 ‘이념적 핵가족’과 실제의 핵가족>

윌리엄 구드(William J. Goode)는 핵가족이라는 말이 단순히 미혼 자녀와 부부로 구성되어진 가족형태 그 자체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이

론적 구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구성된 이상적 가족형태로서의 핵가족과 실제의 핵가족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념형으로서의 핵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마디로 가족생활에 있어서 일가친척의 개입이나 관여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 ① 핵가족은 일상생활에서 광범한 혈족, 인척관계를 배제한다.
- ② 핵가족의 부부는 친척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일가친척들도 부부의 봉사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핵가족의 부부와 일가친척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으며, 또 상대방에 대한 의무감도 약하다.
- ④ 친척들은 핵가족의 부부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덕적인 통제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 ⑤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충돌이나 갈등도 핵가족 내에서 부부 사이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 ⑥ 이혼과 재혼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핵가족은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산업화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은 업적지향적, 보편주의적, 기능적 특수성의 강조, 개방적인 계층체계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특징과 이념으로서의 핵가족의 특징은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그 문화의 가족제도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부거제나 모거제에서는 부부가 특정 지역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으나, 핵가족에서는 부부가 독자적으로 주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동이 자유스러워 산업의 발달에 따른 직업의 기회를 포착하기가 다른 가족제도보다는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서 핵가족이 공업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업을 물려받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핵가족 내의 개인은 자기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산업사회에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택하기 때문에 경쟁에 적응할 수 있다. 셋째, 핵가족에서는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과 직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직장생활에 대한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즉 ‘가족망’과 직장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직업 성취의 평가에 편견없이 보편주의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개인은 성취지향적 동기를 갖게 된다. 이 점은 업적지향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산업사회와 조화를 이룬다.

넷째, 핵가족 내에서는 재산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본의 이용이 용이하고 친척관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광범한 혈족유대로부터의 독립은 개방적인 계층체계를 지향하는 산업사회와 기능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다섯째, 현대 산업사회의 업적지향적인 경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시키고 따라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는 정서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역시 단란한 핵가족이 다른 종류의 가족형태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점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사회와 가족의 형태 중에서 핵가족이 서로 적합한 기능적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공업화, 산업화된 사회에서 핵가족화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구드의 견해이다.

2)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유형

현대의 한국 가족은 대개 단순가족이 주를 이루고, 일부 직계가족의 경우나 확대가족의 경우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울산부 기유식 토적대장(영조 5년)의 특징

- ① 부부가족이 많았다
- ② 평균 가족수는 3.6인이었다
- ③ 고려때의 6.7인에 비해 소인수화되었다
- ④ 1인 가족에서 8인 가족까지 분포되었다

이광규가 경상도 울산부 己酉式戶籍大帳(영조5년, 1729)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柳浦面에서 선정한 5個里인 六岩里, 山下坊里, 達洞里, 長登里, 於勿洞里的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체의 78.4%가 부부가족이라는 것이다. 즉 288호 중에서 226호가 부부가족이었고, 60호가 직계가족이었으며, 사회직계나 확대가족은 1호씩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분석자료가 경상도 울산부의 5個里 밖에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인 분포는 조선조의 전반적인 가족의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가족의 크기는 常人이나 兩班의 戶에 기재된 노비의 수를 제외할 때 1인가족에서 8인가족까지 분포되었고, 평균가족원수는 3.6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려 때의 평균가족수 6.7명에 비해 상당히 소인수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려 때부터 조선초기까지는 복합가족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나,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는 3.6인~4.3인의 가족수를 보이는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점차 부부가족의 양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복합가족과 부부가족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4) 조선조의 복합가족 - 가장적 가족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의 복합가족은 家長的 家族의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적 가족은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에 있는 자를 주요한 가족성원으로 하는 외에, 또 그 근친자를 포함하는 곳에 특색이 있다. 가장적 가족에 있어서 가족성원은 언제나 가장의 통제하에 공동생활을 완수한다. 가장은 가족내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표하여 사회의 단위를 구성한다. 가장적 가족의 특색은 가족 전체가 전체적 통일성과 유대감을 긴밀하게 갖는 데에 있다. 가장적 가족은 같은 조상아래서 전체의식을 가지고, 감정적 융합으로써 일체화되어 연대적 의식을 가지고 생활의 공동과 재산의

공유가 영위되는 것이다.

● 비에르칸트의 ‘복합가족(대가족)’의 특징

- (1) 경제적 공동사회로서 가족의 물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족자급에 의한 봉쇄적 가족경제를 영위한 것,
- (2) 대외적으로 일체가 되어 연대적 관계를 형성한 것,
- (3) 성원 각자의 개인적 분화를 불허하며 善惡譽毀에 전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한 전체를 형성한 것,
- (4) 종교적 공동체로서 祖先을 숭배하고 祖孫을 통한 영속적 집단인 것,
- (5) 내적 감정적 요구가 강렬하여 상호 밀접한 집단을 형성한 것 등등

(1) 복합가족과 부부가족의 차이

또 복합가족에서는 성원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을 보장하고 최연장자의 권위가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장은 생육과 연령과 경험의 차라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그리고 통제와 종속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도의적 법률적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비해 부부가족은 특정한 남녀간에 맺어진 혼인관계에서 시작된다. 남녀의 부부관계는 인간으로서의 공동존재를 실현하는 최초의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결합이 바로 가족존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족은 바로 부부상호의 결합이 바로 가족존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족은 바로 부부상호의 융합, 일리를 주로 하는 형태로서 근대적 개별가족형태인 것이다.

(2) 작품속의 가족 유형

- ① 부부가족의 유형과 확대된 직계가족의 유형이 많다
- ② 『월영낭자전』의 경우, 부친 최상서와 진씨부인을 부부로 하는 부부가족의 유형에서 희성이 결혼하여 세 부인을 차례로 맞아들여 함께 공동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계가족의 유형으로 확대된다
- ③ 『황월선전』의 경우, 황어사와 박씨부인(계모)의 부부를 중심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월선, 월생이 함께 동거하는 부부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조에 창작된 가정소설은 대다수가 부부가족의 양상을 보이거나, 이러한 단순한 가족형태가 확대된 직계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몇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예를 들면, 생충형 가정소설의 하나인 『월영낭자전』은 송태조 창업시에 소주땅을 배경으로 하여 최현이라는 이부사랑(상서)집안의 이야기이다. 최현과 그 부인 진씨가 49세가 넘어서야 낳은 아들이 최희성이고, 희성은 호부인

인 월영낭자와 약혼을 하나, 월영낭자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장원급제 후 민상서의 딸 민부인과 결혼한다. 희성은 월영낭자와의 약조를 지켜 민부인의 양해를 얻어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국공 정한의 둘째딸 설앵을 천자의 명에 의해 억지로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월영낭자전』은 이러한 세 부인이 남편 희성의 사랑을 독차지 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을 주요한 스토리로 삼는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허구적 작품이라고 볼 때,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가족 형태는 조선조의 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월영낭자전』에 나타난 가족 유형은 부친 최상서와 진씨부인을 부부로 하는 부부가족의 유형에서 그 아들 희성이 결혼하여 세 부인을 차례로 맞아들여 함께 공동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계가족의 유형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황월선전』에서 경기도 여주땅의 황경승은 어사를 지낸 인물이나, 나이 40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다가 찾아온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월선을 낳으나, 곧 모친이 병으로 죽는다. 화어사는 곧 재취 박씨부인을 맞아 들이고 그녀에게서 아들 월생을 얻는다. 박씨부인은 월선을 해칠 계책을 꾸미고, 결국은 껌질 벗긴 강아지로 낙태한 흥계를 꾸며 월선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한다. 이렇게 『황월선전』은 계모가 전처자식을 학대하는 줄거리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족의 유형은 황어사와 박씨부인(계모)의 부부를 중심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월선, 월생이 함께 동거하는 부부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조의 가족유형의 일반적 현상과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유형의 일반적 현상과 가정소설에 나타난 가족유형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설의 작품구조와 사회구조가 상동성을 보이고 있는 한 증표이기도 하다.

3. 일부다처제의 위상

가정소설은 쟁총형의 경우는 조선조의 일부다처제의 모순된 가족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계모형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일부다처제의 변형된 양상과 관련을 맺는다. 즉 남편은 상처를 하면 홀애비로 늙을 수 없기 때문에 재취를 맞아들이게 되나, 부인이 상부하게 되면 독신으로 늙어야 된다는 모순된 사회현상 및 인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인류역사에 있어서 일부다처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대 수렵시대부터 이러한 풍습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명화되지 못한 족속에서의 일부다처제는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족과 부쉬만(Bushman)의 부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저급의 수렵민이나 식물채취민(food-collector)에서도, 또한 어떠한 초기의 농경민, 아주 저급한 형태의 농경민에서조차도 대규모로는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 일부다처제가 성행한 계층

- (1)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들 사이에서 성행
- (2) 유동적인 민족 사이에서 성행
- (3) 귀족계층 등 주로 부유한 계층에서 성행

일부다처제는 순수 농경민에서보다는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들 사이에서 한층 더 성행하고 있으며, 저급한 유목민에서보다도 다소 수준이 높은 유목민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다처제는 정착된 민족보다는 유동적인 민족 사이에 성행하였고, 그 중에서도 부유한 계층에 한정되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국가를 형성한 이후 각 민족 사이에 일부다처제의 수용양상은 고대 수렵시대와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즉 일부다처제는 추장이나 귀족계층에서만 수용되었던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가를 제외하고는 일부다처제에 관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또 유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중세까지도 그대로 행하여졌으며, 회교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아라비아에서는 회교도가 남자가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수 있는 처의 수는 네 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의 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인도-유럽계의 민족에게서도 일부다처제는 수용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왕이나 부유한 귀족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고대 슬라브인들 사이에서도 행해졌으나, 주로 추장이나 귀족 같은 일부만이 거기에 탐닉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일부다처적인 관행에 빠져 있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왕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남자는 자기가 선택한 만큼의 첩을 거느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명 이상의 합법적인 처를 둘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서게르만 민족에서는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수의 처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고대 아일랜드인들 사이에서도 왕 또는 추장이 두 명의 처를 두고 있었음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도 중국의 영향으로 1880년의 형법전이 공포되기 전까지 일부다처제의 일종인 첩 제도가 존속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일부다처제가 성행한 요인

- (1) 혼기에 달함 부인의 과잉 때문
- (2) 1명이상의 처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
- (3) 여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남자에게 끼치는 매력
- (4)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남자의 기호
- (5) 후손에 관한 강렬한 욕구
- (6) 財富나 권위를 바라는 측면에서나 대대적인 자손을 두려는 수단에서 비롯함

그러면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게 된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제도가 성행하게 된 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부다처제가 성행하게 된 것은 혼기에 달함 부인의 과잉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시시대에 특히 이러한 현상이 농후했으며, 씨족, 부족간의 정복싸움이 치열해짐에 따라 남성의 급격한 감소와 불균형적인 이성간의 숫자가 일부다처제의 관습적 수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여자의 과잉이 일부다처제를 가져오게 되는 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부다처제의 유일한 원인 또는 전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것은 일부다처제의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로 삼을 만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 일부다처제를 조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만은 일부다처제의 직접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처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남자는 매월 일정한 기간동안 자기의 처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기 어려운 욕구불만이 일부다처제를 가져오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부다처제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여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남자에게 끼치는 매력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의 처가 늙게 된 때, 생기발랄한 처를 얻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아무리 남자가 성인에 달하자마자 같은 나이 또래의 부인을 얻는 경우에도 그 처의 젊음을 머금은 아름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때에도 남자는 아직 한창 때 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문명의 저급한 단계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넷째, 일부다처제에 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남자의 기호이다. 성본능은 오랜 동안의 성교관계에 의하여 무더지고 새로움에 의하여 자극되기 마련인 것이다.

다섯째는 남자가 1명 이상의 처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성적인 동인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후손에 관한 강렬한 욕구가 일부다처제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유교적인 관습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축첩을 법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나갈 자손을 두어야 한다는 지고의 중요성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대 힌두인들의 일부다처제는 주로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많은 페르시아인들은 첫 번째로 얻은 처가 후손을 낳아주지 못할 때만 새로운 처를 얻으며, 이집트에서는 남자가 불행하게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처를 두고 있는데도 그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때때로 권유에 못 이겨 두 번째의 처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손을 두고 싶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조에 창작된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일부다처제나 그 변이 형태인 축첩제라도 모두 이러한 후사를 얻으려는 강렬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섯째, 일부다처제의 또 하나의 요인은 단지 후손을 얻으려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財富나 권위를 바라는 측면에서나 대대적인 자손을 두려는 수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개 이 경우는 미개한 야만상태에서 많이 성행한다. 야만 내지 미개의 사회상태에서는 남자는 대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친족을 제일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존경을 받으며, 그를 사람들이 더없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일부다처제는 여러 처의 노동에 의하여 남자의 물질적 안락에 이바지하고 그의 재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동부중앙의 아프리카인들은 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욱 부자이고, 남자를 부양하는 것은 그의 여러 처이고, 처는 남자가 해야 하는 쟁기질, 방아질, 요리 등을 모두 도맡아 한다는 것이다. 즉 여럿 있는 것은 남자의 부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수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그의 사회적인 중요성, 명성 및 권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콩고의 토착민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의 가장의 위대함을 인상 깊게 해 주

려고 할 때에는 그는 바로 그들이 데리고 사는 처의 수를 말하고, 더구나 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전체의 숫자에 12명을 보태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부인의 수가 남편의 사회적 위치나 명성과 권위를 상징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여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다처제의 변이형태보다는 ‘일처다부제의 변이형태’가 등장하는 경우도 과생될 수 있다. 요즈음 이 혼율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부계층의 불륜 등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젊은 미시족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요즘 애인 하나 없는 주부는 별주부다”라는 언술행위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여성계층들도 페미니즘의 물결을 타고 일부일처제의 변이형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1세기의 중국의 줄부들은 ‘축첩’을 즐기고 있어 중국당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성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도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현상이 초고속 경제 성장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 보충 핵심 포인트

요즘 중국의 권력자와 갑자기 돈을 번 줄부들 사이엔 축첩이 유행이다. 주로 기업주가 회사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도 노리고 채용하는 여비서를 뜻하는 ‘샤오미(小秘)’와 첩을 지칭하는 ‘얼나이(二内)’ 등 용어도 다양하다.

이처럼 축첩이 유행하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된 중국의 ‘혼인법’ 제3조는 중혼(重婚)과 배우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동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는 정신 또는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뿐 형사처벌의 근거는 아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이나 부녀권익보장법 등 관련 법률은 모두 이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다.

중국이 ‘첩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처벌해 얻는 사회적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 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광저우(廣州) 등 비교적 잘사는 남부지역에서 축첩 현상이 만연하자 광둥(廣東) 성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무위로 끝났다.

(동아일보 2007. 6. 18일자 베이징특파원 보도기사)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다처제가 생성된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조선조에 창작된 가정소설은 자손을 얻기 위한 욕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그 이외에도 천연이나 정치적인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다. 『월영낭자전』만 하더라도, 남편 최희성이 어릴 때의 약조를 생각하고 월영낭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정치적인 요인으로 월영낭자의 부친인 호상서가 참소에 의해 죽게 되고, 가족이 흩어지게 됨에 따라 월영낭자가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 민부인을 먼저 맞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 월영낭자를 맞아들이며, 셋째 부인 정부인의 경우는 국공 정한이 그의 둘째 딸을 천자에게 간하여 최희성에게 억지로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월영낭자전』의 경우는 天緣(선녀가 자주 출현하여 월영낭자를 위기에 서 구해주는 것에서 입증됨)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다처제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조선조에 남성위주의 제도가 존속한 근거

조선조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갈등요인이나 심리적인 갈등요인은 주로 처첩간의 또는 여러 처간의 질투심 내지 가정불화에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작품에 이러한 일부다처제의 모순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양상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일부다처제나 축첩제가 널리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조선조는 유교적인 통치 이념에 의해 움직여지던 사회이므로, 조선조에 있어서 남녀관계도 모두 유교적인 교육에 의해 그 위상이 설정되어졌다. 이러한 중세적인 남녀관의 근거는 우선 『소학』에 잘 나타나 있다. 『소학』은 원래 주자의 제자인 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유교적 수신서인데, 여기서 남녀의 질서를 다음과 같이 천지와 군신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남자가 新迎하여 남자가 여자에 先함은 남자가 剛하고 여자가 柔한 義이니 天이 地에 先하고, 君이 臣에 先함과 그 뜻이 같은 것이다.

이러한 남녀관에 따라 小學의 『君臣之義』조에서 王蠋는 “忠臣은 不事二君하고 烈女는 不更二夫한다”라는 말을 남녀 질서의 당위성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성에게는 烈 사상을 강조하면서, 남성에게는 도덕적인 어느 정도의 계율만 있었지, 실제로는 너그러운 것이 유교적인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가계의 부계계승을 중요시하는 부가장제의 사회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적인 혼인형태가 왕족 귀족사회에서 성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에 더욱 심하였고 고려말기와 조선조 초기에 와서야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선포하였다. 하지만 관료대신들 사이에 축첩제 및 중혼, 재가 등의 개별사항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면, 관습적으로는 일부다처제나 축첩제가 널리 성행하고, 어느 정도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고려시대 가족상속의 규정과 ‘축첩제’의 용인

상속인의 선정순위는 ① 嫡妻長子 ② 嫡出長孫 ③ 嫡妻長子同母弟 ④ 嫡出長孫同母弟 ⑤ 庶孫 ⑥ 女孫의 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여성의 상속권은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고려의 부부형태를 보면 왕실자체가 여러 왕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태조 왕건은 29명의 비와 부인을 두고 있다. 즉 신현왕후 유씨, 장화왕후 오씨 등 29명이 태조의 왕비와 부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대 현종은 21명의 왕비를 두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왕들도 보통 4명 내지 5명의 왕비를 두었고, 고려 34명의 왕 중 1인의 왕비를 둔 왕은 4王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고려도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상류 귀족계층이나 부자들도 3~4인의 처를 가졌거나 상당한 축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귀족계층의 축첩정황은 상당히 거대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우왕 때 재상 지연은 그 신첩이 30명에 달하였고, 그 아들 익겸도 첩이 일곱이었고, 고종 때의 최충현은 처음 상장군 송청의 女를 취한 뒤에 대장군 손홍윤을 살해하여 그 첩 임씨를 취하고, 또 강종의 시녀 왕씨를 취하여 각기 완성택주, 정화택주로 수봉하고, 또 이지영의 사후 그 妓妾 자운선을 취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처첩의 구별이나 차별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면 고려시대는 일부다처제가 왕실과 귀족계층사이에 성행하였고, 특히 축첩제도 널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일부일처제에 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 조선조 태종, ‘일부일처제’의 선포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고려조의 무분별하고 탈규범적인 부부형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3대 태종 때에는 적서의 차별과 일부일처제의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태종이 적·서를 차별하여 조부의 처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의 즉위 자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종에게는 15남 8녀의 많은 소생이 있었으나 그의 정비인 김씨의 소출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태종 자신의 즉위의 명분을 정종에게는嫡嗣가 없고,庶孽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태종이 적서구별의 강화정책을 펴게 된 또 하나의 동기는 주자학적 규범을 사회 질서의 틀로 삼으려고 하는 신흥사대부계층의 의지와 신념을 받아들여려는 데에 있었다. 유교적 도덕관념과 성리학적 규범을 충실하게 준수하려던 조선왕조시대에는 모든 혼인제도의 틀을 ‘대명률’에 의거하여 지켜나가려고 했다. 특히 하나의 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재가 여성의 소생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도록 봉쇄하였고, 父母·有服親의 喪中이나 國喪中에는 혼인할 수 없으며, 첩은 적처로 삼을 수 없고, 신분이 다른 경우의 혼인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동성불혼의 원칙도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중 일처일부제의 확립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재가에 대한 상당한 규제와 ② 첩을 적처로 삼을 수 없게 한 규제 및 ③ 혼인에 있어 신분상의 제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자녀안과 三嫁女

조선조에서는 재가의 완전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三嫁女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규제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대사헌 허응이 태종 6년(1406년)6월 왕에게 시무7조의 上啓文을 내었는데, 그 둘째 조에 “부부는 인륜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三從의 義는 있어도 更適의 理는 없는 것이니 지금 사대부의 正妻로서 夫가 사망한 자 또는 기거된 자들이 부모의 정을 저버리고 스스로 재가, 삼가 절계를 상실하고도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는 바, 이것은 풍속을 累息하게 함이 이를 데 없다. 바라건대 大小양반의 正妻로서 적삼부자는 前朝의 법에 따라 姙女案에 기록하여 그 풍속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등장하는 자녀안은 삼가녀의 소생에게 벼슬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을 말한다.

(2) 재가금지법 채택

또 성종 때 와서는 8년(1477년) 7월 성종임금이 직접 여러 중신들을 소집하여 부녀개가문제에

관한 입법을 의논케 하였다. 그 결과 좌삼관 임원춘, 예조영서 허중, 무영군 유자광, 모성군 유안 등 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재가 금지를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자의 말인 실질은 극대사요, 아사는 극소사라는 것과, 장황거의 말인 실질은 단 한번이라도 실질이니 종신 부개가 부인의 도라 한 것을 들어 이유를 막론하고 금후 재가자를 일체 금단하고, 재가자는 실행으로 치죄하여 그 자손의 입사를 불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4인의 말을 받아들여 재혼녀의 자손은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재가금지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재가를 조선조에서 반대하는 주요인은 두 가지로 보여 진다. 그 하나는 고려조의 풍기문란과 무분별한 윤리의식, 도덕관등을 신흥사대부들이 조선조를 개국하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한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왕조 창설의 합리화 내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도덕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도덕운동은 엄격한 계율과 규범을 강조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잘 담겨있고, 이것이 바로 일부일처제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조 초기 유학자들의 이상론적 도학정치의 이념의 반영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제도의 양상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고려조로부터 거의 보편화되고 현실화되어 있는 여성의 재가를 법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커다란 무리였던 것이다. 특히 일찍부터 부모를 잃고, 남편까지 잃게 된 나이 어린 과부가 재가를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데올로기만을 내세우는 관념론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신흥운동이나 정풍운동과정에서 나온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3) ‘처첩분한론’과 서얼금고의 법제 강화

한편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제도는 적서구분의 규범이었다. 애초에 축첩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은 가장적 가족제의 필연적 산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축첩제는 외형상으로는 일부다처제로 판단되나, 엄밀히 말하자면 일부일처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일부이었던 沃沮의 기록을 보면 “又途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으로 되어있고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大武神王때 大臣 仇都 등이 죄를 지어 서인으로 폄하됨에 “資貪鄙奪人妻妾・牛馬・財貨・恣其所欲”이라 한 것으로 보아 비첩 등이 재물과 같이 예속되고 사유재산과 같이 매매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때에는 왕족 및 귀족 사이에 다처나 축첩의 습속이 성행하여 혼탁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원나라에 의해 공녀문제가 발생하자 축첩을 장려하자는 주장까지 대신들 사이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기풍을 바로 잡고, 가치관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축첩제의 범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적서의 분별을 강화하는 법령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게 된다. 특히 적장상속이 명백하게 되자, 妻妾分限論이 대두하게 되고 庶孽禁綱의 법제가 강화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조선 초기부터 예론에 따라 처첩의 수를 제한하고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바로 매화사건이 터지게 된다. 태종3년(1403)에 의인대군 화의 첩인 매화가 첩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대신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매화에 대해 사간원이 상소하기를 “매화는 원래 관기로서 名을 樂籍에 예속하였더니 요행히 賤役을 면하고 함부로 응주의 호를 수여 받은 것도 적서의 分을 상실한 것인데, 부마인 平寧大君 趙大臨의 吉禮에 출석하여서는 宗室, 命婦, 戚里諸婦와 합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傲然히 그 상좌를 차지하여 명분을 혼란케 하고 犯分하였으니 그녀의 작첩을 거두고 替踰의 죄로 다스리며 그 본역을 정하여 적서의 分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논하였다.

4) 태종 13년(1413) ‘중혼금지의 법’ 확립

사헌부와 사간원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永樂11년인 태종13년(1413) 이후부터는 처첩이 완전히 구분이 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일부다처제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重婚禁止의 법이 비로소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일부다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관습적으로는 귀족계층사이에 그대로 존속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일부다처제의 변이형태인 일부일처제에 축첩제가 가미된 형태가 존속하게 되었다. 일부다처제가 관습적으로 존속하였던 증거로는 世祖11년 二妻竝蓄으로 일어난 爭嫡의 쟁송사건이 있다. 金洞이란 자가 애초에는 閔氏를 취하였으나 자식이 없는 관계로 都氏를 취하여 두 아들을 얻은 후 다시 민씨와 동거·해로 하였는데, 洞의 사후에 도씨의 소생인 堅이 洞의 적자라고 주장하는 관계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사헌부는 태종13년 중혼금지의 법을 근거로 하여 閔嫡都妾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堅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붕괴되고 중혼금지의 축첩제만이 공인이 되자 喪祭의 禮敎상의 문제와 喪服의 문제 등이 거듭 제기되게 된다. 즉 병부의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병부란 二妻가 죽은 후 夫의 神位와 동시에 祔廟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제례상 정처가 사망한 후에 개취하면 후처도 선처와 같이 하여 선후 二妻가 祔廟되는 것인데, 처첩이 구별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 竝附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끝으로 일부일처제를 확립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혼인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을 두었다는 점이다. 조선조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의 혼인관계가 성립되려면 그 신분적인 조건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조선조에는 결혼을 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불가능한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성은 결혼할 수 없고, 상을 당했을 때는 결혼할 수 없으며, 신분이 다른 경우나 당이 다를 경우에도 혼인할 수 없고, 남녀의 궁합을 반드시 따지는 등의 사항으로 議婚에 당하여 언제나 선결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중 常班不婚은 일부일처제가 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양반이 정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반댁 규수를 二妻로 맞아들이기는 어렵게 되므로 官妓나 賤婢를 첩으로 맞아들여 처로 승격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혼인이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일부일처제에 축첩제가 가미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良人과 賤人간의 혼인을 금하였다. 특히 천인의 남자가 良人의 여성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천인남자의 소생은 그 신분이 천인이 되어 천인의 인구는 날로 늘고

양인의 수는 줄어들어 국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국가에 대한 조세 부담자는 양인이었고, 천인은 이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양인 인구의 감소는 국고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禾尺 상호간의 혼인, 이혼 직후의 혼인, 궁중에서 방출된 궁녀와의 혼인, 역적자녀와의 혼인, 승려와의 혼인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혼인에 있어서 신분간 제한 조치는 일부다처제의 붕괴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개 양반사대부 계층의 후사를 얻기 위한 일부다처제가 신분 간 혼인 제한 조치로 인해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신분이 다르더라도 공인이 된 축첩제로 변형이 되게 된다. 따라서 점차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축첩제가 양반사대부 계층이나 부자들에 의해 성행하게 된다.

조선조에서 축첩제는 상층계층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존재 이유는 물론 후사가 주목적이나, 그 이외에도 재부의 과시, 개인적인 욕구충족 및 풍류객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 등이 있었다.

5) 하층사회에서도 축첩제의 관습적 존재

조선조의 상류계층의 일부다처제 및 축첩제의 법률적·관습적 존재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典律通考』 혼가조에는 “民으로 나이 40이상인데도 자식이 없는 자는 허가를 받아서 첩을 취한다. 위반한 자에게는 笞40”, 이라고 했고, 또 “처가 있는 자가 첩을 취하면 杖九하고 異離시킨다”든지 “남의 처를 첩으로 삼는 자는 장을 치고 처가 잇는 자가 남의 첩을 처로 삼은 자는 杖九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조의 하층사회에서 일반 백성들도 귀족계층과 마찬가지로 후사를 위해 본처 이외에 첩을 둘 수 있었으며, “처 있는 자가 남의 첩을 처로 삼은 자는 장구에 처한다”는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다처제가 상당히 퍼져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중혼이 많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다.

6) 조선조의 六禮와 부부간의 ‘애정 부재’ 현상

조선조에 있어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부모의 의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유형원이 찬한 『礪溪隱錄』申明親迎之禮條에 이르기를 “지금 왕자의 혼인에는 다 친영의 예를 행하나, 사대부가에서는陋習에 따라 사위를 신부집에 머물게 하므로 娶妻라 하지 않고, 入丈家(장가들다)라 하니 이것은 양이 음을 따르는 일로서, 남녀의 의를 심히 잃게 함이다. 마땅히 예법을 옳게 밝히어 인륜의 도를 正明케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조의 왕가나 사대부가, 民庶의 풍속에 있어서 혼인은 <議婚-納采-納幣-親迎>의 절차를 철저히 밟았던 것이다. 議婚이란 혼인의 당사자가 성숙하면, 부모가 중매인을 내세워 양가를 내왕케 하는 단계를 말한다. 納幣란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 붉은 비단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親

迎이란 혼례의 六禮의 하나로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 의식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절차는 혼례의 육례인 <納采-問名-納吉-納幣-請期-親迎>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다. 물론 혼례 형식에 대해서는 四禮說과 六禮說이 있다. 四禮說이란 앞서 설명한 <議婚-納采-納幣-親迎>을 말한다. 조선조에 있어서 혼인은 상기의 장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양반사대부 집안의 경우, 격식이 좀더 까다롭고 장중하며, 양민의 경우 격식이 좀더 간단하다는 차이 밖에는 없다. 조선조에 있어서 처·첩의 형식상의 구분은 혼인 형식상의 요건과 혼인 성립 후의 처·첩 지위 결정에 있다. 즉 혼인 형식상의 요건은 남녀의 결합이 혼례의 정중한 의식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小學』에서도 “聘則爲妻, 奔則爲妾(처·첩의 지위는聘禮로 혼인하면 처가 되고, 그저 하면 첩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의 장황한 절차는 혼인의 형식상의 요건이고, 실제 내용상으로 살펴볼 때 혼인 당사자 간의 의사 전달 기회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혼인의 중요한 개념은 부가장제 가정의 확대 및 계사에 있었던 고로, 혼인은 반드시 중매를 요하고 혼인 결정은 결혼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쌍방가족 전체의사에 따라야 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조의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형태라 하더라도 중매혼에 의해 결합된 부부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애정에 바탕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생활에서 부인의 역할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으뜸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였지 남편과의 애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조화는 의무의 일환이고, 첩을 두어 가정을 이끄는 것은 애정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인간적 욕구 충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태종 13년 이후 일부일처제의 확립을 선언했지만, 일부다처제가 관습적으로 종속하게 되고 축첩제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내의 모순과 문제점 때문이었던 것이다. 결국 조선조의 남성들은 의무와 애정을 분리 당하고 이중생활을 하여야 했으며, 정처는 질투심을 억압하면서 의무에 충실하는 모순된 생활을 하여야 했고, 첩은 애정과 천시라는 반목된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육례란?>

중국에서 전해온 전통적인 혼례의 엄격한 절차.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예법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① 납채(納采) : 남가에서 청혼의 예물을 보냄
- ② 문명(問名) : 여자의 출생 연월일을 물음
- ③ 납길(納吉) : 문명 후 길조를 얻으면 이것을 여가에 알림
- ④ 납폐(納幣) : 혼인을 정한 증명으로 예물을 여가에 보냄
- ⑤ 청기(請期) : 남가에서 결혼날짜를 정하여 여가에 지장의 유무를 물음

⑥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함

이러한 육례를 치르면 결혼이 성립이 된다. 옛날부터 육례를 갖추다 하면 정식결혼을 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4. 조선조 여성의 존재 위치와 내적 갈등

1) 고대 여성 위상 높음 -모계중심 전통 형성

고대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씨족사회에서는 제천행사의 주재자가 여성이었다. 그것은 여자의 출산능력을 대자연만이 할 수 있는 생산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모든 씨족원들은 여성의 신비하고 영험한 능력에 대해 경외감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가계 계승도 母系中心의 전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2) 농경사회, 가부장제의 확립

농업중심사회가 형성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힘의 질서에 의한 사회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점차 여성은 약간의 농사일을 제외하고는 출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정사의 대소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행동반경이 좁아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족국가 성립시기부터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확고하게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가부장권이 확립되면서 점차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예속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가계의 부계계승 - 고구려 고국천왕에서 미천왕 사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부계계승이 정립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대체로 왕권의 부자상속이 강화된 이후인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에서 미천왕 사이이며,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 동성왕대 전후의 시기라고 했다. 이 이후 가계 계승에 있어서도 男系 嫡子계승이 위주가 되었고, 적자가 없을 경우는 서자에게 그 계승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와 사정이 달라서 내물왕이후 김씨왕권이 확립되나, 삼국통일까지도 가계의 부자상속제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왕위의 부자상속이 확립된 뒤에도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가계계승에 있어서 서자로의 계승을 인정치 않았다는 것이다. 적자가 없을 경우는 여자인 長嫡에게 가계를 계승케 했는데, 신라에서 3여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여자에게 가계 계승권이 인정되고 있었던 까닭이라는 것이다.

4) 고려시대 - ‘남계적장자 우선주의’ 채택

고려시대에는, 삼국 및 통일신라 이래의 男系嫡長子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며, 여손으로의 계승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온다.

무릇 人民은 律文에 의거하여 嫡子로서 立嗣할 것이로되 적자가 유고시는 적손으로 적손이 없을 경우는 그 同母弟를 세우고 동모제가 없을 경우 庶孫을 세우며 남손이 없을 경우 여손을 세우도록 하라

이러한 기록은 고려가 신라시대 이래의 여계상속의 풍속을 지키고 있었음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전통에 의해 남성중심사회가 형성되어, 원칙적으로 왕족이나 귀족 계층이 일부일처제를 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처제 내지 축첩제가 만연되었다. 아울러 여성의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부정에 대해서는 시기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의 蓄妾蓄妓는 허용되었어도 여성의 부정은 형법으로 다스려졌다. 하지만 고려조에는 여성의 수절과 재가문제는 조선조보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여성이 남편의 생전에는 이혼이 불가능했으나, 일단 사별한 후에는 여성들에게 수절을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5) 조선조 - 남존여비적 남녀질서관 강화

한편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남존여비적 남녀질서관이 훨씬 강화된다. 조선을 건국한 신홍사대부 계층은 주자학을 건국이념으로 철저하게 보급함에 따라 충·효·열 등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 주·종의 관계에 놓이게 하는 종속이론을 폭넓게 내세우게 되었다. 즉 신홍사대부계층은 충을 강조하면서 지방세력의 대두를 억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형성하고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부계계승과 가부장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제도에 있어서 여성을 가부장에 얹매이게 하고 남성에게 예속시켜 남녀관계도 상·하적 질서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회질서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앞서 『소학』의 글을 인용한 바 있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선헤는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유한 의이니 천이 지에 선헤고 군이 신에 선헤고 그 뜻이 같은 것이다”는 데서 나타나듯이 남녀관계에서 남녀유별이 천부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조선조에서는 양반사대부집안 부녀자들의 외출을 철저하게 금지하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어려서부터 여성들에게 남녀유별을 가르치고 집안에 묶어두려는 관습을 정착시켰다.

6) 규방의 존재와 ‘三從之道의 논리’ 강요

조선조에는 여성들을 규방에 가두어두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三從之道의 논리이다. 조선조의 여성들은 혼인 전에는 집안어른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 강요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결혼이후 부의 허가 없이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모든 행동을 남편의 허가아래 행하도록 요구되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에게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일생동안 부, 부 및 자인 남자들에게 따르도록 예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여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순종과 정절이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아내로서의 역할과 딸의 역할,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 그중 아내로서의 역할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에서 순종과 정절은 하나의 의무조항이기도 하였다. ‘夫唱婦隨’나 ‘女必從夫’라는 말 속에는 바로 남편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는 관념이 들어 있다. 이러한 덕목이 지켜지지 못할 때 여성에게는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는, 부덕하고 악덕한 여자라는 오명이 뒤집어 씌어지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사이에는 조화로운 사랑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속적인 상하관계 내지는 한쪽을 향한 일방적인 존경심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였다.

여성의 순종은 또 하나 며느리로서 孀家父母들에 대해 행해진다. 혼인자체가 남편의 의사보다는 시부모의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었으므로 어쩌면 시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며느리는 시가의 번영을 위해 몇 가지 의무를 담당한다. 우선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한 가사를 떠맡고, 서민층의 경제적인 부양책임의 일단으로 논일, 밭일 등 과중한 노동을 행해야 하며, 시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도 떠맡게 된다.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식사시중을 들어야 하며, 가혹한 시집살이도 감내해야만 한다. 아울러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동시에 떠맡아야 한다. 그 하나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중대한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조상제사를 받드는 일로, 祭參事는 못하면서도 각종 음식장만과 뒤처리를 모두 맡아야 하는 것이다.

7) 七去之惡과 순절

또한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七去之惡이라는 관습적 규범에 의해 일방적으로 축출 당하게 된다. 칠거지악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불순한 행위, 질투, 말 많은 것, 惡疾, 절도 등의 7가지로, 이 중 ‘절도’라는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며느리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조선조 여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은 순절이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정절에 대한 관념은 가히 병적이라고 할만하다. 그 예의 하나로는 『芝峰類說』券15 人物部 節義條에 실린 다음의 기록이다. 즉 선조25년 임진왜란 때에 어떤 부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마침 강가에 이르러 배를 타야 되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배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뱃사람이 그 부인의 손을 붙잡아 배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그 부인은 크게 통곡하면서, “내 손이 네 손에 더럽혀졌으니, 어찌 살아 있겠느냐”하고 즉 정절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곧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에는 여성의 정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간음의 죄의 경우 가혹하게 처벌되었다. 『大典通編』에는 양반 부녀로서 음란하여 풍속을 해친 자는 그 간부와 더불어 교살한

다는 구절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법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근친이거나 유부녀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다. 남편의 사후에도 정절은 요구되어,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經國大典』에는 “사대부로서 처를 잃은 사람은 3년 후에 개취를 허한다”고 하여 남성에게는 재혼이 전처사후 3년 후에는 허용되었으나, 아내의 경우 ‘女必終一’, ‘不更二夫’라는 유교적 관념을 내세워 수절을 강요하고 재가를 철저히 금지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규범은 양반 사대부 계층의 부녀자 뿐 아니라 양인의 부녀자계층에게로 점차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조선조에서 ‘여성 중심적 시각’의 형성배경〉

조선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유교에 의하면 乾의 道(天. 男. 陽)와 坤의 道(地. 女. 陰)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거역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지극히 운명적인 하늘의 이치이므로 그것에 순응하는 것만이 인간의 도리로 귀결된다. 건에 곧이 순종하는 것은 다만 만물의 생성 발전의 원리 때문일 뿐이라는 이러한 원리적 착상들은 결과적으로 부부, 부자, 군신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상하와 존비의 질서를 낳게 한다. 천도와 인도의 차별적 질서들은 마치 그물을 이루는 각각의 매듭처럼 그 직분과 역할에 의미를 주어 얽혀지게 하였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관계, 양반과 상민의 관계는 단선적인 상하질서 안에서 존재하였으며 엄격한 신분질서는 사회구성원에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은 외형적 사회의 혼란은 유교적 상하질서에 동요를 가져왔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던 지배층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노출하자, 직접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피지배자층은 기존질서에 대해 회의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존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상층이 표방하던 이데올로기는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18-19세기의 새로운 종교사상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조선의 신분질서에 충격을 가하였으며, 신분상 특권을 누릴 수 없었던 계층의 적극적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신분적 예속을 요구하는 유교적 질서는 종교적 확신에서 우러난 인간평등 사상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사회에서 양반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혈통과 지식, 경제력 그리고 유교 이데올로기의 실천이었다. 이 네 가지 변수의 조합에 의해 특권계급으로서의 양반의 사회적 존재양식이 결정되었으며, 네 가지 변수의 최종적 표현은 관직이었다. 관직은 토지소유, 토지수조권, 녹봉을 제공하였고,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보장하였으며 초기에는 모든 공민의 의무였던 국역에서 면제되는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관직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17세기 이후 별열정치가 행해지면서 소수의 노론가문만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고 戚族에 의한 세도정치가 행하여지자 특권계층에서 탈락하는 양반의수가 급증하였다. 정권에서 소외된 많은 양반은 지방으로 낙향하여 鄉族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몇 대

를 지내도록 관직을 얻지 못한 양반 중에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몰락한 殘班들로서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양반계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인, 서리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면서 조선 후기의 문화는 다원화되었으며, 그들의 신분계층 옹호론은 계급사회의 규율을 동요시켰다. 양반계층의 몰락과 중인계층의 확대 외에도 같은 시기에 초기 상업자본의 형성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민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역할이 확대되자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계급적 신분질서의 동요는 고정된 사회현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고정적 상하개념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초래하여 점차 상대적 가치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유교적 상하의 구분이 절대적 명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은 남성 중심적 사회 내에서 여성 중심적 시각이 형성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또 실학의 등장은 사회의 변화를 재촉하는 촉매제역할을 하였다. 주자학이 기존 양반지배 체제를 보강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실학사상은 서민계층을 육성하고 새로운 국민국가를 형성하려는 혁신사상이다. 또한 실학자들은 中華・東夷, 內・外의 구분에 나타난 자기 비하적 우열 대립을 비판하였다. 그들의 태도는 ‘나’의 발견에서 비롯한 자주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에 각자가 사고의 주체자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실학자들은 주변적 입장으로 소외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들은 중화와 오랑캐의 차이는 사람에 달린 것이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小中華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렇게 실학자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중세적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상대주의를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상대주의는 소외되던 주변의 현실로까지 확대되어 새로운 가치관을 낳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나・너의 관계는 안・밖의 관계처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항상 중심에 위치하여 기준이 되는 시각이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는 이원론적 사고가 우월과 열등이라는 가치평가와 결부되는 통념을 타개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의 견해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었으나, 그들의 주장을 남・녀의 관계 설정에 확대, 적용시켜 보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남・녀의 대립은 하늘・땅의 대립으로 상징되며, 다시 양・음의 대립으로, 상・하의 대립으로, 강・약과 동・정의 대립으로 이어져 일차항의 연쇄(남, 하늘, 陽, 上, 강, 動)는 기준이 되는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자연히 이차항 연쇄(여, 땅, 陰, 下, 약, 靜)는 종속적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는 여성성(femininity)을 주변화 함으로써 남성성(masculinity)을 중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를 훼손함으로서 후자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이데올로기는 남성에게 자기만족을 주고, 가부장제의 유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여성에게 ‘나’중심의 사고를 할 가능성을 빼앗아 버린다. 실학자들이 여성 중심적 시각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지녔던 상대적 사고의 유연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여성 중심적 시각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양과 서양문화의

공통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 있어서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 결합 있는 남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녀가 결핍하고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예외적 동물이다. 성서의 창세기에는 여성이 두 번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한 부분이 모자란 채 역사에 등장하였다는 유대인신화가 담겨져 있다. 그 모자란 것은 성 바울에 의하면 ‘머리’이고, 프로이트에 의하면 ‘남근’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남·녀의 대립을 소유·결핍으로 비유하게 되며, 우월·열등이란 가치관을 내재하게 된다.

가부장제적 전통사회는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을 비하시켰는데 유가적 관념은 마침내 여성에 대하여 ‘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하고, ‘陰卑不得自專, 就陽而成之’라는 식의 주체성마저 가질 수 없는 종속적 존재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사회는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절이데올로기를 사용하였는데, 정절이데올로기가 지닌 보편적 외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여성의 정절이 천지 자연의 원리에 합당하며 자연 질서에 순종하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으로 이른바 삼강오륜, 상종지도, 남녀유별, 夫爲婦綱, 烈女不更二夫 등의 이론적 표명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절이 성현의 말씀에 규정된 바로서 성현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보편성을 띤 진리라는 것이다.

정절이데올로기는 수절, 외출규제, 복장규제, 내외법 등의 실천적 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성종 대에 이르러 再嫁女子孫禁錮法이 제정되어 법제적 통제가 시행되었다. 본래 이 법은 재가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녀의 자손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며, 양반신분 유지의 요건이었던 사족들에게 자손금고법은 정절에 대한 가장 철저한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여성이 정절이데올로기의 제물이 되어 자기의 생명을 ‘열녀’라는 사회적 인정과 쉽사리 바꾸는 풍조가 만연하자 이러한 극단적인 여성의 타인 지향적 태도에 대하여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약용은 <烈婦論>을 통해 남편을 따라 죽으면 열부라 하여 그 문설주를 빛나게 하고 그 패목을 붉게 하며, 호세를 면제하고 그 자손의 부역을 감해주는 것은 그릇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과부의 재가가 거론된 것은 1894년에 이르러 동학군이 폐정개혁안의 일안으로 청춘과부의 개가를 정부에 제시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과부의 재가금지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번 제기되고 있었다.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 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21 ~ 31쪽)

제 2장

가정소설의 작품분석과 그 의미

1. 계모형 가정소설의 분석

〈계모형 가정소설이란〉

남성의 재취에 따른 가정 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폭로되고 고발된 작품군. 이에 비해 일부 일처제가 태종 13년 이후 법률적으로 확립되었으나, 관습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존속하고, 그 변이 형태로 축첩제가 널리 퍼져 있음에 따른 가정 내의 모순과 비리를 다룬 작품군이 바로 쟁충형 가정소설 !!!

가정소설의 유형을 계모형과 쟁충형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가정소설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한 데 근거한다. 가정소설이란 조선조의 가족제도의 모순과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불평등 조항이 많음에 따른 불만을 비판적 안목에서 다룬 작품군을 말한다. 조선조의 여성들은 순종과 근신과 정절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는데, 그 반면 상대편인 남성들의 경우에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융통성과 관용이 허용되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가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남성에게는 정처와 사별한지 3년 후에는 재취가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재취에 따른 가정 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폭로되고 고발된 작품군이 바로 계모형 가정소설인 것이다.

계모형 가정소설의 작품구조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인 『장화홍련전』을 기본텍스트로 하여 세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장화홍련전의 이본〉

『장화홍련전』의 異本은 크게 한글본, 한문본, 국한문본, 개작본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글본에는 1) 筆寫本, 2) 木板本, 3) 舊活字本이 있다. 필사본은 현재까지 4종류가 학계에 소개되었으나, 필자가 연세대 도서관본 2종, 나손본 2종 그리고 필자 소장 2종 등 6종을 새로 찾아내었다. 필사본에는 우선 황해도 백천을 배경으로 하는 가람본 『장화홍련전』이 있는데, 이는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으로 33장본이다. 의산본 『장화홍련전』은 강원도 철산을 배경으로 하는 국립중앙도

서관 소장본으로 40장본이다. 고대본 『장화홍련전』은 경상도 영천땅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특이하며, 장화의 이름 또한 張愛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른 이본과 다르다. 薪菴本 『長花紅蓮傳』은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인데, 『이진스전』, 『삼국지 삼권』과 합철되어 있다. 한편 연세대 도서관본중 ㄱ)은 46장본인데 『낭주전』과 합철되어 있다. ㄴ)은 29장본으로 목판본 紫岩本, 巴里本 등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목판본은 현재 3종이 학계에 소개되어 있다. 紫岩本은 18장본으로 ‘紫岩新刊’이라는 간기가 명기되어있으며 평안도 철산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부사의 이름으로 전동호가 나온다. 28장본인 巴里 동양어학교 소장본이나 미국회도서관 소장 宋洞本(18장)은 자암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구활자본은 1915년경부터 1959년까지 발간되었는데, 약 20여종이 있다. 그것은 크게 3그룹으로 나뉘는데, 回章體로 되어있는 세창서관본계열과 전통적 고소설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영창서관본계열, 그리고 지리적 배경을 철산 남면 송화촌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계모의 성씨가 홍씨로 바뀌어 있는 동명서관본계열이 있다.

한문본에는 朴慶壽本과 朴仁壽本의 두 가지가 있다. 박경수본은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소개한 全東屹의 문집인 嘉齋集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마 숙종 24년 戊寅(1698)이 아니라면 영조 34년 戊寅(1758) 12월에 潘南 박경수의 손에 의해 창작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문본 박인수본은 목판본 『가재사실록』(1865)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 『嘉齋事實錄』은 고종 2년 乙丑에 8대손인 全基洛 등이 편찬한 문집이다. 한편 1968년 12월에 嘉齋公의 12대손인 全庸甲 등이 편찬한 『嘉齋公實錄』에도 박인수본 『장화홍련전』이 실려 있다. 국한문본으로는 嘉齋의 후손인 秋槎 全一求가 지은 『光國將軍全東屹實記』중 일부에 『장화홍련전』의 내용이 전한다.

1) 기본 텍스트의 작품구조

『장화홍련전』의 여러 이본 중, 묘사의 세련성과 다양한 설화의 조합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개화기 무렵의 신활자본 발간의 대본이 된 듯한 목판본 紫岩新刊本 『장화홍련전』(18장) 및 그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필자본 연세대본(B)(29장)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장화홍련전」의 줄거리를 기본 모티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강씨부인 夢兆(선녀→꽃송이)
- ② 장화·홍련의 출생(선녀 謫降)
- ③ 강씨의 유언과 죽음
- ④ 재취 허씨 맞아들임
- ⑤ 계모의 학대, 흥계 및 참소
- ⑥ 장화 낙태 모함 받음
- ⑦ 장화의 죽음
- ⑧ 장쇠의 虎患(虎叱)

- ⑨ 홍련의 투신자살(청조의 인도)
- ⑩ 원혼의 관청출현
- ⑪ 관장의 죽음과 폐읍화
- ⑫ 전부사의 자원부임
- ⑬ 전부사의 伸冤
- ⑭ 장화의 혼백이 결초보은을 약속
- ⑮ 작자의 감계(주제)
- ⑯ 삼취 윤씨 맞아들임
- ⑰ 윤씨 몽조(선녀→연화 두송이)
- ⑱ 장화자매 쌍녀로 환생

『장화홍련전』은 ①~⑨의 전반부와 ⑩~⑱의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⑨부분은 ‘계모학대형 소설’의 구조를 ⑩~⑱부분은 ‘공안류 소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장화홍련전』은 작품 속에 태몽설화, 적강설화, 호질설화, 청조안내의 전설, 원혼의 공청출현설화(신원설화), 재생·유생설화 등 여러 가지 설화를 포용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장화홍련전』은 어떤 하나의 실담이 소설화하였다고 하기보다는 한 이야기(설화)가 다듬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작가에 의한 하나의 창작이라기보다는 한 이야기의 골격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한 ‘적층문학적 성격’을 지녔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북한문학사에서 「장화홍련전」에 대한 평가〉

10여종의 북한문학사중에서 『조선문학통사(상)』, 『조선문학사(1)』, 『조선문학사(2)』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59년 해방직후에 펴낸 <<통사>>에서는 「장화홍련전」을 18세기 문학을 다루는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이 작품에 대해 “임장군전 등 전 세기에 창작된 국문소설 작품들이 더욱 광범히 읽혔을 뿐만 아니라, 장화홍련전 기타 많은 작품들이 새로 창작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7세기문학에서 「사씨남정기」를 쓴 서포 김만중문학에 대해 8쪽에 걸쳐 서술한 데 비해서는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1)』에서는 ‘봉건가족제도의 모순을 반영한 소설들’이란 항목에서 콩쥐팍쥐, 인향전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18 - 9세기 중엽에 창작된 구전문학에 토대한 소설들 가운데 봉건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봉건 가정 안에서의 모순은 주로 본처와 첩사이의 갈등, 본처 자식과 후처 또는 후처의 자식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기초에는 누가 재산의 상속자로 되며 누가 가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

드는 봉건 사회 자체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북한문학사는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하고 봉건 사회의 부패성이 노골화되면 될수록 더욱 더 강화되었다고 본다. 김일성의 평가에 근거하여 『조선문학사(1)』은 콩쥐팥쥐를 더 중요한 작품으로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남한문학사와 차이점이다.

북한문학사에서 「장화홍련전」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한문본 선행설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에서는 초기 학자들은 한문본 선행설을 제기했으나 최근에 올수록 국문본 선행설을 따르고 있는 추세인 점에서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중들에 유포된 구전설화에 바탕 했다면 국문본이 먼저 창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한문본선행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1)』은 이 소설의 한문본은 17세기 중엽으로부터 활동한 전동훈의 『가재집』에 박경수라는 사람이 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문본 「장화홍련전」은 대개 17세기말 - 18세기초엽에 창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국문본 「장화홍련전」은 한문본에 기초하여 18세기중엽 또는 그 이후에 씌어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판본끼리 내용상 차이점이 큰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문본은 민중들 속에서 돌아가는 설화에 의거하고 또 설화적 요소를 적지 않게 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주로는 철산부사로 있었던 전동훈의 이른바 『덕망』을 찬양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면 국문본은 가부장적 봉건제도와 사람들의 물욕이 인간을 얼마나 불구화하고 양반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비판하면서 장화와 홍련의 비극에 동정을 표시하는데 주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비교하고 있다.

주체사상 형성이후인 1977년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펴낸 『문학사(1)』은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 장화 홍련의 성격의 적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화, 홍련을 두고 볼 때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수 없어 죽음의 길에 나서는 것은 자식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유교윤리에 중독된 데로부터 생긴 사상적 약점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 죽어가서도 자기들에게 들썩워진 누명을 벗어버리고 원수를 복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형상에 민중적 감정이 체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창조자들은 그렇듯 어여쁘고 형제사이의 우애가 깊으며 마음씨 착한 장화와 홍련이 억울한 죽음으로 끝장날 것을 바라지 않았던 데로부터 그들을 환생시키며 철산부사를 통해 계모의 죄행을 적발하고 나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사건을 꾸며놓았다. 이것은 압제자들에 대한 민중들의 반항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화와 홍련은 17세기 김만중의 소설 『사씨남정기』의 주인공 사정옥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데 비하여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화홍련전』의 가치평가에 대해 가정윤리적 문제를 취급하면서 봉건가정안의 비극을 보여준 당시의 작품들에서 비극의 사회경제적 근원을 이 소설에서처럼 밝혀낸 것은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18-19세기에 와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함에 따라 양반들 속에서 물욕이 증대되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관계가 인간들의 사회생활, 도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람들이 점차 냉철하게 고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작품은 새로운 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물론 이 소설의 중세적 한계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

다. 소설에서 작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민중들의 증오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지지를 반영하며 부정 인물들인 허씨와 장쇠 등은 무지막지하고 추악하고 기형화된 인간들로 그리고 긍정인물들인 장화, 홍련은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아울러 소설에 나오는 호랑이, 말, 창조, 연꽃과 같은 동식물들은 형상의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나 장화와 홍련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표현해 주면서 작품에 동화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화홍련전』에서 철산부사의 의협심과 어진 정사에 의하여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린 것은 봉건 사회가 빚어낸 모순을 개별적 관료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여긴 작가의 사상적 제한성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장화와 홍련이 옥황상제에 의하여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는 것은 이 소설이 그 구성형식에서 고전감래적 중세기적 틀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소설은 양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모순을 사회경제적 관계와 연결시키면서 생동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첨예한 갈등 속에서 흥미있게 전개해나감으로써 당시 민중들의 공감을 자아냈으며 중세소설들 가운데서 가정 윤리적 주제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되게 되었다고 그 소설사적 위상을 평가한다.

한편 1994년 과학백과 사전종합출판사에서 펴낸 『문학사(2)』는 18세기문학을 다루면서 제 5장 구전설화에 토대한 국문소설에서 「장화홍련전」과 「콩쥐팍쥐」를 별도 항목으로 묶어 기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박경수가 지은 한문본이 선행한다는 것이다. 박경수의 생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전동홀이 1651년에 벼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아마도 1651년 이후의 무인년인 1698년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 후에 이 이야기는 민중들 속에서 구전되면서 그 주제사상적 과업이 변했다고 본다. 한문본의 작자는 계모의 죄상을 밝힌 부사의 <<현명성>>을 찬양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면 민중 설화자들은 장화, 홍련 형제의 불행한 운명을 동정하는 데로부터 봉건적 가족제도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가정적 비극을 기본 줄거리로 하여 계모의 비행을 폭로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의 주제 사상적 기초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한다. 이 설화를 토대로 하여 대체로 18세기말 - 19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 국문본 「장화홍련전」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시도하고 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시기와 모해로 불행히 짧은 일생을 마치게 되는 장화, 홍련 형제의 비극적 운명을 추구하면서 봉건사회 양반 가정의 이면생활을 비교적 진실하게 재현하였다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계모와 전실자녀간의 현실적 모순을 기본 갈등으로 하여 사건을 구성하고 있으며 계모 허씨는 ‘차마 바라보기 어려운’ 추악한 형용에다 ‘그 심사 또한 부량한’ 인물로 형상화된 반면에 장화, 형제는 착하고 어진 처녀로 묘사되어 있다.

계모 허씨는 남편이 두 딸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시기도 자라며 끝내는 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며낸다. 그는 우선 장화에게 행실이 부정하다는 누명을 들켜워 남편 배좌수를 속이고 제 자식 장쇠를 시켜서 깊은 산중의 연못에다 밀쳐 넣어 죽인다.

밤에 난데없이 외가에 다녀오마고 떠난 후에 같이 갔던 장쇠만이 한 팔, 한 다리, 두 귀를 잃고

돌아오고 언니 장화의 소식은 묘연하여 슬픔에 잠겨 있던 홍련은 허씨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장쇠를 달래여 그 전후사연을 알게 된다. 그는 ‘침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한탄하던’ 중에 청조의 인도로 장화가 빠져 죽은 연못을 찾아가서 그 뒤를 따르고 만다.

작품은 장화와 홍련이 당하는 불행과 비극적 운명을 과장된 수사로 묘사함으로써 미학 정서적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작품은 당시의 양반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을 바로 봉건적 소유관계에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비극을 자아내는 다른 요인의 하나는 사물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인간생활을 불구화하는 봉건적 윤리라는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는 인간적 관계가 참다운 사랑이나 동지 우애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재물, 명예, 권세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장화, 홍련의 아버지 배좌수가 원래 성품이 순후하고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또한 지극할 뿐만 아니라 허씨의 사나운 심사를 곱지 않게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씨가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하리’라고 기만하고 위협하자 곧 장화를 죽여 없애자는 범죄행위에 동의하고 마는 것도 딸의 생명보다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유교교리에 더욱 충실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그 예술적 형상화의 면에서 볼 때에 현실생활의 재료에 기초한 사실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전세기 소설들의 제한성을 많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건체계는 평면적이고 단순하며 작가의 서술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작품은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응당한 관심이 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장화, 홍련이 다시 배좌수의 쌍둥이 딸로 태어나 평양 이씨의 쌍둥이 아들과 결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장화형제는 칠십오살에 죽으며 그 자손이 유자생녀하여 복록을 누리며 자손이 창성하더라’고 한 긴 후일담은 작품의 주제 사상적 과업에 비추어볼 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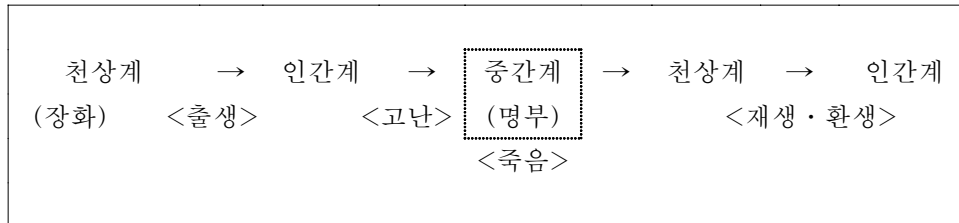
하지만 소재의 세속화현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장화홍련전」의 소재는 현실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속적 현상이며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화, 홍련의 형상은 도덕적 선의 체현자로서 일면적으로 강조된 약점이 있지만 소설은 흔히 당나라나 송나라 등 외국을 사회적 배경으로 한 소설작품들보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생활적으로 가까운 소재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북한문학사에서 「장화홍련전」에 대한 평가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구전설화에 바탕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문예이론의 바탕중 하나인 소위 ‘인민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창작연대에 있어서도 <<문학사(2)>>에서는 국문본의 경우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형성되었다고 다소 간행연대를 늦춰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부터 「장화홍련전」의 작품구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작품구조 속의 공간

고소설의 경우, 불교 또는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지상계, 지하계, 수중세계, 천상계등 공간개념의 확산이 이루어져 있다. 『장화홍련전』에 등장하는 공간도 일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다. 천상계 → 지상계 → 중간계(명부: 불교적 용어)의 삼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장화의 출생담을 보면 천상계에서 하강한 인물임을 상징하고 있다. 천상계에서 하강한 장화는 인간계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는다. 결국은 계모의 모함으로 연못에 투신하여 죽게 된다. 사람이 수명을 다하여 죽으면 인간계에서 저승(지하계)이나 극락(천상계)으로 직행하지만, 원이 맺혀 죽게 되면, 인간계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총각이나 처녀로 억울하게 죽게 되면 뭉달귀신이나 처녀귀신으로 되어 죽은 장소주변을 맴돌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장화나 홍련도 억울하게 죽은 처녀귀신이므로 삶의 미련 때문에 연못주변에 자주 출현하는 것이다.

연못에 투신하여 죽은 후에 연못 주변을 맴도는 것이나, 신원하기 위해 관청에 출현하는 것 등을 볼 때, 장화·홍련은 처녀귀신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자연 인간계도 아니고, 천상계도 아닌 ‘중간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장화홍련전』의 소설구조 속에는 벌써 삼원적인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현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대인들만의 발상이지만, 이러한 발상이 또한 고소설의 한계를 가져오는 ‘傳奇性’의 유형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신원을 하게 된 장화·홍련은 작품말미에서 윤씨 부인의 쌍녀로 환생하게 된다. 즉 장화는 천상계 → 인간계 → 중간계 → 인간계를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화홍련전』의 공간은 삼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자연의 순화원리에 따른 ‘life-cycle’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신화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수축 → 정지 → 확산’의 구조

1> 작품 전반부 - ‘哀憐(애련)과忍苦의 삶’

앞서 『장화홍련전』의 구조를 ①~⑨의 전반부와 ⑩~⑱의 후반부로 나누어 볼 때, 죽음 이전까지의 장화·홍련의 삶의 양상과 죽음이후의 삶의 양상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죽음이전까지 장화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어머니 강씨가 죽은 이후, 계모 허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고난은 시작된다. 애(부성애), 증(계모의 시기지심)의 틈바구니에서 갈등이 야기되니, 장화는 적극적인

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항상 수동적이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된다. 장화 앞에는 부친의 사랑과 계모의 증오가 번갈아 펼쳐진다. ‘부성애’와 ‘계모의 증오’가 반복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화는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없고 갈등의 심화에 따라 위축된 삶, ‘현실순응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화는 ‘역경’과 ‘고난’의 현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눈물로 날을 보낸다. 여기에서 한국여성의 전통적 현실접근방법의 하나인 ‘눈물의 미학’이 등장한다.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난관을 제거하려는 적극적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항상 눈물로 현실에 순응하는 ‘哀憐의 삶’만이 계속될 뿐이다. 가슴에 맺힌 한을 눈물로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화의 삶의 양상은 ‘현실순응적인 삶’의 단적인 예이다. 계모의 흉계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아버지 배좌수에 의해 축출명령을 받고 죽으러 가는 마당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유도 모르고 한밤중에 외삼촌댁에 장쇠와 함께 다녀오라는 명을 받고도, 까닭은 묻지 않고 날이 밝으면 다녀오겠다고 사정할 뿐이다. 그리고는 결국 父命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어리석고, 우유부단한 아버지와 흉계를 꾸민 악녀 계모 앞에서는 명대로 따르기도 하고, 돌아서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동생 홍련에게 사연을 말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아픔을 맛본다. 이러한 장화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 ‘인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장화의 ‘현실순응적인 삶’의 두 번째 모습인 것이다.

2> 작품 후반부 - 현실 극복적 삶의 태도

반면에 후반부에서의 장화의 삶의 모습은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후반부에서의 장화는 현세인간이 아니라 원귀이기는 하지만, 현실 접근 태도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철산부사 앞에 녹의홍상을 입고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설명하는 자체가 색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수를 갚기 위해 죽기 전과는 달리 계모의 흉계를 날날이 폭로한다.

철산부사에게 나타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며 계모의 흉계를 폭로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장화의 연못 투신 전의 ‘현실순응적인 삶’의 모습은 새로운 ‘현실극복적인 삶’에 의해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전부사가 허씨의 잔피에 넘어가 흥녀를 풀어주자, 홍련과 장화의 원혼은 다시 관장을 찾아온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며, 흥녀를 법대로 처치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解恨의 방법 - 잔인한 권선징악적 보복방식

우리는 장화홍련전 에서 고소설의 중요한 결함이자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을 푸는 ‘解恨의 방법’속에 담겨 있다. 눈물의 삶, 순종·인고의 삶에 입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누명을 벗기되 사랑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랑과 믿음을 통해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화홍련전』의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의 단죄모습은 한 인간

의 ‘현실극복적인 삶’의 추구를 위해 대립인물에 대한 철저한 ‘보복’의 양상을 띤다. 이는 물론 권선징악적 결론을 위한 장치일수 있지만, 고소설이 극복하지 못한 부정적 모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권선징악적인 보복양상은 이인직의 신소설 <귀의 성>이나, 이해조의 『봉선화』, <구의산>등에 와서는 비합법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보복, 살인행위로 변모되어 계승된다.

(3) ‘꽃’의 상징적 의미

『장화홍련전』은 ‘꽃’에서 시작하여 ‘꽃’으로 끝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선 제목에서 주인공인 장화와 홍련의 이름은 장미와 연꽃에서 따왔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패턴은 ‘꽃’의 상징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하겠다. 또한 『장화홍련전』의 작품 속에는 꽃이 두 번이나 등장한다. 장화의 출생담인 강씨 부인의 태몽장면에서 선관이 주는 꽃의 모습이 나오고, 또 작품 말미에 장화·홍련의 ‘환생’을 상징하는 꽃송이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러한 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화홍련전』에서의 ‘꽃’은 ‘여성탄생 징조’, ‘美에 대한 상징’, ‘구원한 것에 대한 표상’, ‘자연의 순환 cycle, 즉 삶의 패턴을 상징함’등의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꽃’이 여인의 삶의 패턴을 상징하는 예는 『장화홍련전』이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이해조의 신소설 『봉선화』에서 ‘봉선화’는 주인공인 박씨 부인의 삶의 패턴을 상징하고 있으며, <화세계>에서도 ‘나무의 잎(꽃의 변이된 형태)’은 여승이 되어 모진 고초를 겪으며 구참령을 찾아 헤매는 수정의 삶과 관련을 맺는 것이다. 또 신소설 <홍도화>에서 ‘홍도화’는 여주인공 이씨 부인(태희)의 삶과 관련을 맺는다.

(4) ‘물’에서의 죽음의 의미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뒷못(실화에서는 백방홍릉못)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심청전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고소설에서 자살은 주로 우물, 연못, 시냇물, 강, 호수, 바다 등 ‘물’에서 시도하던가 아니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는 경우(<황월선전>·『정을선전』·『봉선화』등)의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신소설에도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장화홍련전』뿐만이 아니라 <황월선전>·<인향전>·<치악산>·<화세계>등에도 물에서 투신자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고소설 3편과 신소설 2편에서 주인공이 ‘물’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황월선전>을 제외한 고소설 『장화홍련전』·<인향전>에서 주인공은 ‘죽음’에 성공하나, 신소설에서는 실패한다. 주인공이 투신한 장소를 살펴보면, 『장화홍련전』에서 장화는 산중에 있는 연못(소)에 뛰어들고, <인향전>에서의 인향 또한 연못에 투신한다. 즉 물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곳이므로, 뛰어들면 죽게 마련이다.

그러나 신소설에서의 ‘물’은 얕은 곳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조자가 등장하여 주인공을 구출하

므로, 죽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인직의 신소설 <치악산>에서 며느리 이씨 부인은 반길밖에 안 되는 ‘우물’에 뛰어들고 그나마 시아버지 홍참의가 등장한다. 이해조의 신소설 <화세계>에서 수정은 물살은 세지만, 별로 깊지 않은 시냇물에 뛰어든다. 그리고 떠내려가다가 다리에 걸려 머물러있는 것을 필공(자신이 찾는 남편될 구참령)이 구조해준다.

어찌되었든 고소설이나 신소설이나 다같이 ‘물’에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은 농경민족의 풍요로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물’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여성상징의 의미도 지닌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보면 양산 밑 蘿井 곁에서 붉은 알이 六村의 촌장들에게 발견되었다. 얼마후 그 안에서 동자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신라시조인 박혁거세왕인 것이다. 그때 ‘나정의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여성상징이거나, 씨앗에게 있어서 비와 같은 존재, 즉 풍요로움을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이 표상하는 이미지는 ‘생력상징’, ‘영원한 생명상징’, ‘여성상징’, ‘풍요로움 상징’등이 되겠다. ‘물’이 이러한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장화홍련전』에서의 장화·홍련의 ‘물’에 뛰어들기 전의 삶과 뛰어들기 전의 삶과 뛰어든 후의 삶은 <심청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도표3>

<투신 전>		<투신 후>	
(1) 현실적 삶의 종말	<- - - →	(1) 새로운 삶의 시작.	
(2) 순간적 삶	<- - - →	(2) 지속적 삶	
(3) 운명적 삶	<- - - →	(3) 초월적 삶	
(4) 폐쇄적 삶	<- - - →	(4) 개방적 삶	
(5) 과거지향적 삶	<- - - →	(5) 미래지향적 삶	
(상징의 본질적 기반을 해명)		(완성, 재생, 순화, 조화, 인류의 동경)	

◆ 보충 핵심 포인트

☞ <도깨비와 귀신은 다르다?>

1. 도깨비의 어원은 ?

(1) ‘절구’와 깊은 관련성

삼국유사 鼻荊郎說話에서 기원한 ‘豆豆里’는 절구질을 할 때 두드리는 작업의 형상과 관계가

있으며, 도깨비는 돛구(절구)와 아버가 결합된 용어라는 박은용의 견해가 있다. 특히 두두리는 동사인 ‘두드리다’에서 기원을 했다고 본다. 원래 두드리다는 ‘문을 두드리다’나 어떤 물체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표현할 때, 즉 ‘쇠를 망치로 두드리다’와 ‘북어를 방망이로 두드리다’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절구를 버나 쌀을 넣고 작업하는 표현은 즉 공이질을 할 때는 두드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컨대 ‘짚다’나 ‘뺨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15세기부터 나타나는 ‘돛가비’를 어원으로 보는 입장

두두리의 용례를 농경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야철문화와의 연관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권병탁에 의하면, 두두리는 달천철산 주변에 유포된 전설적인 사람인데, 쇠의 신인 시우씨의 사자로써 쇠를 신통하게 다룰 수 있는 초인력적인 기능인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경주 주변의 양산, 울주, 월성 등지가 삼한시대 이래로 야철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격체나 기능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두두리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돛가비’라는 표현은 月印釋譜 와 釋譜詳節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때의 돛가비는 돛 + 가비의 합성어로 판단되며, 돛은 ‘火’나 ‘種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돛은 풍요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적인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는 아버지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장물애비’, ‘처용아비’ 등의 용례로 볼 때 성인이 된 남자 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돛가비는 풍요를 관장하는 남신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신격으로 평가된다. 김종대에 의하면, 지금 각 지방에서 쓰이고 있는 토째비(경북 월성), 돛재비(경남 거창), 도채비(제주도, 전남 신안), 또깨비(전남 신안), 돛깨비(전남 함평) 등이 있다. 이들의 용어변화는 돛 + 가비 > 도까비 > 도까비 > 도깨비와 돛 + 가비 > 도까비 > 도재비 > 도채비라는 것이다.

(김종대,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4, 27 ~ 37쪽)

2. 도깨비의 일반적 성격

민간전승의 도깨비로는 등불도깨비(도깨비불), 홀이불도깨비, 달갈도깨비, 갓쓴도깨비, 더벅머리도깨비, 삼태기도깨비, 명석도깨비, 강아지도깨비, 將師도깨비 등이 있다. 갓쓴도깨비는 제주도 영감본풀이에 나타난 도깨비의 형상에서 찾아본 것 같으며, 강아지도깨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이 개고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관을 맺고 있는 듯이 보인다.

도깨비는 동굴 등과 같이 음습한 곳을 거처로 하고 있으며 활동시기도 밝은 곳을 피하고 밤이나 비 내리는 낮 등을 택하는 陰鬼의 要素가 강하다. 化體로는 자전을 근거로 자연의 精이나 怪物로 보는데, 민담을 토대로 사람의 손때가 묻은 헌 빗자루나 절구대 등 버린 물건이 변한 것으로 보았다. 형체는 씩씩하는 도깨비이야기를 근거로 중국의 抱朴子 의 獨脚 같은 독각으로 보고 있다. 性情으로는 심술이 가장 뚜렷한 성격으로 나타나며, 기능으로는 神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비스러움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도깨비의 생성원리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즉 ‘物 →變形 →人間形’과 ‘精氣 → 神化’의 두 가지가 복합된 영적 존재물로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화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가 결합된 특이한 존재물로 규정하고 있다. 최인학은 鬼와 도깨비의 차이를 민간신앙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精靈信仰의 결과로 도깨비가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① 가시적인 도깨비

- 인간으로 화생하는 것 : 거인(남자), 미녀(여자)
- 도깨비불(鬼火), 혼불(魂火)
- 구슬도깨비 등

② 비가시적인 도깨비

- 괴음 : 집을 때려 부수는 소리, 우박이 쏟아지는 소리, 문두드리는 소리, 벼락치는 소리, 기물 파괴하는 소리, 개짖는 소리, 휘파람소리, 돌 던지는 소리, 말발자국소리
- 기타 환각 환상류에 속하는 것

<도깨비의 성질유형>

‘악한 도깨비’의 성질유형	빈도	‘선한 도깨비’의 성질유형	빈도
난폭하고 무섭다	47	온순하고 유머가 있다	22
장난많은 심술쟁이	43	좋은 일을 하고 착하다	10
사람 흘려 곤경에 빠뜨림	30	선하고 악한 것이 공존	2
교활하고 영악하다	12	善賞惡罰	15
마음이 약할 때 나타난다	12	잘 사귀면 부자가 된다	1
술취한 사람을 골탕먹임	7	도깨비불(키가 8척이고 다리가 없고 불을 켜다 껐다 한다)	14

(5) ‘혼사장애 모티프’의 변이와 그 의미

장화 · 홍련의 ‘죽음’은 신원의 과정을 통한 후 ‘환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죽음→재생의 구조는 성인식(initiation)의 통과례의 모티프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장화 · 홍련의 고난과 죽음은 ‘婚事障碍’와도 관련을 맺는다.

고소설의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남 · 女散集型의 類型’은 혼사장애와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향은 신소설에도 계속 이어진다.

고소설 중 애정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숙영낭자전>의 줄거리에서 혼사장애의 기본 모티프를 추출해보기로 한다.

<숙영낭자전>의 줄거리에서 ‘혼사장애의 핵심유형’을 추출해낼 수 있다.

- ① 남·여 결연 또는 정혼
- ② 남·여 離散의 사유발생
- ③ 여자의 고난이나 죽음(주로 부정한 여자로 모함받음)
- ④ 구조자의 출현과 여자의 시련극복(또는 죽음에서 환생함)
- ⑤ 남·여 극적으로 상봉
- ⑥ 완전한 부부로서 행복한 결합

혼사장애의 여섯 가지 기본 유형은 주로 고소설의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의 경우 또는 신소설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일치하나, 『장화홍련전』과 같은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에서는 변이양상을 나타낸다. 계모의 전처자식 학대에 주안점이 주어진 『장화홍련전』에는 앞서 여섯 가지 중 ① 남녀결연(정혼), ② 남녀 離散의 유형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외의 유형은 약간 변모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장화의 죽음은 ③의 유형에 해당하며, 전부사는 ④의 구조자의 변이형태이고, 장화·홍련의 윤씨부인의 쌍녀로 환생하는 것 또한 ④의 변이양상인 것이다. 그리고 『장화홍련전』에서 쌍녀와 쌍남의 만남은 그들 신분이 전생에서 천상계의 선군·선녀였다고 가정해본다면(작품에서는 夢事를 통해 상징적으로만 암시해줌), 此生에서의 결합은 ⑤유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품에서 쌍둥이 양부부의 자손번창과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결말은 ⑥의 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화홍련전』은 혼사장애의 기본유형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변이형태를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혼사장애에서 여자의 ‘고난’이나 ‘죽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듯이 『장화홍련전』에서도 장화의 ‘죽음’은 작품의 내적 구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화·홍련의 ‘투신’의 의미에는 “본래적 자기, 영혼의 성숙한 자아를 찾아 회복하는 ‘탐색(quest) 모티프’와 인간의 시간에서 탈출, 무시간의 영원한 순환적 시간으로 침몰하여, 인간의 한계,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불감(immortality) 모티프’ 및 자아변모의 ‘죽음과 재생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죽음’ → ‘재생’의 구조의 의미는 장화·홍련의 父로부터의 온전한 이탈과 환생 이후의 부부로서의 異性的 결합에의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장화·홍련의 쌍녀가 윤필·윤석의 쌍남과 결합하여 부귀영화를 대대로 누리는 장면묘사는 ㉠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맺음 ㉡ 天上得罪에서 비롯된 징계에서 해제됨의 의미이외에 ㉢ 미숙한 인격체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변모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장화의 ‘죽음’과 ‘환생’의 상징적 의미는 한마디로 완전한 성인·완전한 인격체·완전한 부부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2) 계모형 소설의 줄거리

계모형 소설의 개별 작품으로는 필사본을 근간으로 하여 한문 필사본, 활자본의 세 종류를 텍스트로 하였다. 각 작품에 나타난 중요 모티프를 비교하기에 앞서 각 작품의 줄거리를 몇 작품만 살펴보기로 한다.

(1) 「黃月仙傳」

- 1) 경기도 여주문촌 황경승 어사는 탐관오리의 모함을 받고 낙향한다.
- 2) 나이 40이 넘도록 황어사 부부는 자식이 없다가 찾아온 노승을 만나 시주를 한 후 부인이 태몽을 꾸다.
- 3) 월선을 낳은 후 부인이 죽자, 황어사는 재취 박씨를 맞아들인다.
- 4) 황어사가 중국사신으로 간 사이 계모 박씨는 월선을 학대한다.(무리한 농사일을 시킴)
- 5) 계모 박씨는 무녀의 계책을 듣고 월선에게 잉태한 것처럼 흉계를 꾸민다.
- 6) 박씨는 월선이 잠든 사이 껌질 벗긴 강아지를 속옷 밑에 넣어 낙태한 것처럼 꾸민다.
- 7) 계모 박씨는 황어사가 귀국한 뒤 이를 보고하여 월선을 축출하고, 물속에 넣어 죽이려 한다.
- 8) 박씨 소생 월생이 월선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한다.
- 9) 방랑길에서 고난을 겪는 월선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 그때마다 선녀가 내려와 위로하고 길을 인도한다.
- 10) 월선은 우연히 호주촌 장진사택에 들러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몸을 의탁하게 된다.
- 11) 장진사의 아들 장위가 월선의 사람됨을 보고 부모에게 구혼을 청한다.
- 12) 황어사는 월선이 보고 싶어 월생을 보내 널리 찾게 한다.
- 13) 월생이 월선과 극적으로 상봉한다.
- 14) 회개한 시비를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된 황어사는 계모 박씨를 꾸짖고 박씨의 두 눈을 뽑는 등 단죄를 내린다.
- 15) 월선, 월생이 대대로 영화를 누린다.

(2) 「金仁香傳」

- 1) 평안동 안주의 김석곡 좌수는 부인 왕씨와의 사이에 아들 인형과 딸 인향, 인함을 낳는다.
- 2) 인향은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극진하여 동리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 3) 왕씨 부인이 우연히 득병하여 세상을 떠난다.
- 4) 타계 전에 왕씨 부인은 김좌수에게 자식부탁과 어진 후처를 맞이할 것을 당부한다.
- 5) 재취 정씨(18살)는 절세미인이나 성품이 간교한 인물이다.
- 6) 재취 정씨는 반년 만에 딸을 낳는다.

- 7) 김좌수는 관가의 일로 인해 한달에 한 두 번만 집에 들린다.
- 8) 정씨는 걸인 노파에게 인향을 해칠 계교를 묻는다.(무덤위에 난 돌메밀로 만든 떡과 큰 구렁이를 잡아 먹여 잉태한 것처럼 만들자는 흥계)
- 9) 정씨는 걸인 노파와 짜고, 인향을 목화밭으로 유인하여 돌메밀떡을 먹인다.
- 10) 인향은 유진위의 아들 성윤이 매파를 보내 청혼하므로 허혼한다.
- 11) 인향의 꿈에 왕씨부인이 나타나 계모에 의한 환란을 예고한다.
- 12) 정씨는 노파를 매수하여 인향이 잉태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간부의 편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김좌수에게 보인다.
- 13) 김좌수는 오라비 인형에게 인향을 삼천동 연못에 넣고 오라고 명한다.
- 14) 인향이 적삼에 혈서를 남긴다.
- 15) 인형이 정처없이 떠나라고 놓아주나, 인향은 못에 투신자살한다.
- 16) 인함의 꿈에 인향이 출연하여, 나를 찾아오라고 한다.
- 17) 인함은 삼천동 못에 도달하여, 인향의 무덤을 발견하고, 관을 해쳐 인향의 치마끈에 목을 매어 죽는다.
- 18) 인형은 인향의 유서를 박천 외조모택에 전한다.
- 19) 인향이 죽은 지 반년 후부터 삼천동 못가에서 귀신의 곡성이 들리고, 관장이 오는 즉시 죽으므로, 폐읍이 된다.
- 20) 평안감사가 염탐하여 사연을 알아내고 임금에게 이를 보고한다.
- 21) 이조판서가 전두용을 천거하니, 임금은 그를 안주군수로 내려보낸다.
- 22) 전두용이 그날 밤 등축을 밝히고 기다리니, 인향, 인함의 원혼이 들어온다.
- 23) 전두용은 이튿날 아침 김좌수, 정씨, 무녀노파, 춘삼이, 입분(시비)등을 잡아들여 문초한다.
(윗답을 혈어 간부가 출입한 양 꾸민 죄)
- 24) 계모 정씨와 무녀노파를 동문 밖 장거리에 세우고, 큰톱으로 켜서 죽인다.
- 25) 전두용의 이름이 평안도에 자자하게 되어, 거리마다 불망비가 세워진다.
- 26) 전두용 꿈에 인향 형제가 나타나 은혜에 감사한다.
- 27) 유성윤이 장원급제한 후 돌아와 인향의 죽음을 알고, 분묘 앞에 제물을 차려 혼백을 위로한다.
- 28) 유한림의 꿈에 인향이 나타나 회생시켜 연분을 맺게 해 줄 것을 요망한다.
- 29) 유한림이 回生水로 인향과 인함을 환생시킨다.
- 30) 인형은 장소저와, 인향은 유한림과 혼례를 올리고, 인함 또한 조유수 댁에 출가하게 된다.
- 31) 유한림 부부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팔십에 세상을 떠나고, 자손이 대대로 번창한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김인향전 의 이본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김인향전』 중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인향전>’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김인향전』’ 그리고 박순호 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에 수록된 『김인향전』이 있고, 활자본으로는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에 수록된 <인향전> 등이 있는데, 표제가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고소설 작품에 흔히 있는 현상이다. 『김인향전』도 표제에 성씨 유무만 차이가 날 뿐, 전체적인 내용은 필사본이나 활자본이 대동소이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이본간의 성격이 같지 않다. 필사본과 활자본에서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은 ‘작품의 서두’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자본만을 주 텍스트로 하여 연구한 결과 『김인향전』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인향전』 필사본의 서두는 고소설의 전형과 일치하여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 및 주인공의 선조가 소개된다. 그런데 필사본의 서두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종 즉위 삼십 팔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필사자나 전사자 혹은 이야기꾼이 아무 생각 없이 오래된 이야기라는 뜻에서 사실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연대를 조선조 초기까지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의 『김인향전』(필사본)’에는 “각설 이적에 화종황제 즉위 초에 국태민안하고 시화연풍일러라”¹⁾로 시작하여 시대적 배경을 애매모호하게 설정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인향전』 활자본의 서두는 필사본과 달리, 고소설 서두의 전형과 전혀 다른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힘없이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이 평안도 안주성내 김석곡 집 후원 인향당 앞에 떨어지니 나이 십이삼세 가량이 필락말락한 처녀 둘이 오동 잎사귀를 집어 들고 “형님 벌써 어머님 돌아가신지가 반 년이 되었구려”하며 한숨 한 번 길게 쉬고 눈물이 비오듯하는지라. 조선 태종 즉위 초에 국태민안하고 시화연풍이라. 그 때에 김석곡은 그 고을 좌수로 관부에 출입하고 그 부인 왕씨도 또한 현철후덕하더라.

인용문에서 보듯, 『김인향전』 활자본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고소설 서두의 전형적 수법과는 달리 작품의 첫머리에 ‘힘없이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과 ‘생모를 사별한 자매가 슬픈 나날을 보내는 장면’을 전면에 내놓았는데, 이러한 서두는 선행 연구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활자본 서두에 현대적인 수법으로 ‘오동잎’과 ‘눈물’을 통해 주인공의 삶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암시를 시각화시키고 ‘조선 태종 황제 즉위 초’라는 고소설의 전형적 수법을 끼워 넣은 것이 『김인향전』 활자본 서두의 특성이다.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사」, 일위 우쾌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고소설 연구사』, (월인, 2002.)

3) 계모형 가정소설의 중요 모티프의 비교와 변이양상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김인향전』 1장, 본문의 고어를 필자가 현대어로 고쳐 인용했음.

가정소설 30여 편의 작품 중 계모형이 약간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모형 가정소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모형에도 우선 계모의 등장배경이 다양하며, 그 성격 또한 일치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여주인공을 모해하는 방법과 여주인공의 한풀이(복수)방법도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웅담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따라 이러한 영웅의 활동상을 영웅소설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계모형 가정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경우는 아마도 영웅담이 작품의 플롯전개에서 얼마나 필연성을 지니는가의 여부와 전체 줄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계모형 가정소설의 경우, 대개가 ‘혼사장에 모티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미숙한 주인공이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나가는 데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의 통과과정으로 가정의 ‘고난담’을 넘게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계모형 소설의 개별 작품에서 중요 모티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등장하는지에 대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계모형 가정소설도 주인공의 삶의 일대기 양상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이 탄생하여 삶의 역경을 겪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종국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패턴을 지나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대개 고소설은 개인의 전기의 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구성이 단순구성(복합구성의 형태를 가미)이고, 플롯의 진행이 평면적으로 진행되며, 작품의 구성이 <출생담 - 결연담 - 고행담 - 시련극복담 - 행복담>의 다섯 단계의 천편일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패턴을 좀 더 세분하여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겠다.

〈도표 4〉

작품명	출생 (태몽)	모친의 죽음	계모의 등장	(정혼) 결연	고난 극복	수학	입궁 (영웅담)	복수	가족 재회	부귀 영화
장화홍련전	○	○	○(허씨)					○		○
황월선전	○	○	○(박씨)	□	○			○	○	○
김인향전		○	○(장씨)					○	○	○
양풍운전		○	○(송씨)		○	○	○	○	○	○
조생원전		○	○(배씨)	○				○		
김취경전	○	○	○(안씨)	○	○	○	○	회개	○	○
창선감의록	○	○	○(분부인 심씨)	○	○	○	○	회개	○	○
김전전	○	○	○(설씨)	○	○	○	○	회개	○	○
정유선전	○	○	○(노씨)	□	○	○	○	○	○	○
여룡전	○	○	○(강씨)		○	○	○		○	○

위의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계모형 가정소설은 조선조의 가족제도 및 부부형태의 모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연이나 수학·입궁 등의 애정담이나 영웅담은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모친의 죽음과 계모의 등장, 복수 및 가족 재회 등의 단계는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① ‘정격형 소설’ 계모형 가정소설 - 『장화홍련전』, 『황월선전』, 『김인향전』, 『조생원전』 등의 ‘정격형 소설’

① 변격형인 계모형 가정소설 - 점차 조선조 후기로 가면서 영웅소설, 애정소설 등이 여성독자들에게 주로 인기를 얻게 되자, 영웅담이나 애정담이 첨가된 변격형인 『양풍운전』, 『김취경전』, 『김전전』, 『정을선전』, 『어룡전』 등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후기에 창작된 변격형 가정소설의 경우에는 내용상 유형범주를 설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 공간구조

칸트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실재로 파악하지 않고, 선형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칸트는 순수직관인 선형적 감성론으로 공간을 해명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개념에 의하면 공간이란 사물의 공통점에서 추려낸 개념이 아니라 순수직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표상하는 공간은 오직 하나이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경우에도 그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그리는 이미지이며 표상일 뿐, 세계 그 자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의 견해는 “인간의 입장에서 외적 직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제약을 떠나 버리면 공간의 표상은 무의미해져버리고 일체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제약을 제거하여 공간을 사물 자체의 근저에 있는 무엇으로 해석한다면 공간은 무”라는 것이다.

소설은 시간과 더불어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창조된다. 조선조에 있어서 작가나 독자는 세계관이 범우주적이었기 때문에 공간적 인식이 칸트와 마찬가지로 순수직관에 의한 절대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의 문제는 저승의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연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소설에서 죽은 사람이 환생하여 산 사람과 로맨스를 나누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둔 공간개념으로 주인공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공간이 현상계에 머무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개의 계모형 소설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월선전』에서 부정한 여자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계모에 의해 축출된 월선이 몇 차례의 자살을 시도하나, 신명의 도움으로 현상계를 벗어나지 않고, 결국 구조자의 도움으로 가족과 재회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승과 저승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중간계가 설정되어 삼원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경우와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계시켜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게 설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장화홍련전』이나 『김인향전』에서 죽은 원혼이 출현하여 이승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는 경우 이외에도, 『김취경전』에서는 김취경이 이미 죽어있는 목소저의 목숨을 살려내는 대

목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삼국시대 인물이 환생하는 것이니 비현실적인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확산적인 공간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취경전』과 유사한 양상은 『정을선전』에서도 나오는데, 계모 노씨의 흥계에 의해 부정한 여자로 을선에게 인식되자, 혈서 적삼을 남기고 자살한 추년을 을선이 원혼의 지시에 따라 금성산에 가서 구슬을 가져와 환생시키는 대목은 바로 이승과 저승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조선조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계모형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구조 중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양풍운전』에 나오는 풍운이 천상계에 다녀오는 장면이다. 즉 풍운이 천왕보살을 만나 무술을 연마하기 직전에, 천상계에 올라가 옥황상제로부터 갑옷 한 벌을 하사받고 인간계를 내려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칸트 : “공간이란 사물의 공통점에서 추려낸 개념이 아니라 순수직관이다”

〈고소설에서의 공간구조〉

1. 주인공이 현상계에 머무는 경우
2. 삼원적 세계관이 등장하는 경우

(2) 태몽

고소설에는 주인공의 출생과 관련하여 거의 대다수의 작품들에 태몽장면이 등장한다. 물론 태몽이 등장하는 이유는 주인공의 인물됨을 위대하게 하거나 신비롭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고소설에 나타나는 꿈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胎夢과 運夢으로 二大別할 수 있다고 한다. 태몽이란 주인공의 출생의 얽힌 상징적 꿈해석을 의미하며, 운몽이란 주인공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 모든 운명을 靈夢을 통하여 짐작하는 것을 뜻한다.

프로이트는 꿈을 성적 충동과 관련된 소원충족으로 해석했다. 그에 배해 융은 집단무의식으로 해석하여, 미래지향적 기능과 과거지향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융에게 있어서도 꿈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그의 말을 빌면 “꿈은 무의식적 정신의 공정한 자발적인 산물이다. ... 꿈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런 진리를 보여 준다”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로 나오고, 부모가 나이 40이 넘어 얻은 고귀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태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화홍련전』, 『황월선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전전』, 『정을선전』, 『어룡전』 등이 태몽이 나오는 작품들이다. 물론 이본마다 출입이 심하지만, 『김인향전』, 『양풍운전』, 『조생원전』등에는 태몽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몽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도 도사나 스님이 다녀가는 것으로 처리하

거나, 비록 빠져있지만, 대개 태몽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징적 처리가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태몽은 계모형 소설의 거의 대다수에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계모형 소설에 등장하는 태몽은 조선조인들의 조상들의 무의식적 체험의 침전물에 대한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기능은 과거의 천상계에서의 회상을 소생시키는 과거적 기능을 통해 범 우주적 통합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조화·순응을 모색하는 한편 주인공의 전도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영웅적 인물상에 대한 유추로서의 미래적 기능을 수용함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려는 생각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 핵심 포인트

☞ 〈고소설에서의 태몽〉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로 나오고, 부모가 나이 40이 넘어 얻은 고귀한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태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화홍련전』, 『황월선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전전』, 『정을선전』, 『어룡전』 등이 태몽이 나오는 작품들이다. 물론 이본마다 출입이 심하지만, 『김인향전』, 『양풍운전』, 『조생원전』등에는 태몽이 등장하지 않는다.

1. 태몽 등장 계모형 : 장화홍련전, 황월선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전전, 정을선전, 어룡전
2. 태몽 없는 계모형 : 김인향전, 양풍운전, 조생원전
3. 황월선전의 태몽 : 선녀가 구름을 타고 부인의 꿈에 나타남
4. 어룡전의 태몽 : 부인의 꿈에 청의동자가 품안에 달려드는 장면

(3) 계모의 등장배경과 성격묘사

계모형 가정소설에 나오는 계모의 등장배경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조선조의 남성의 재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습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장화홍련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집안을 관장할 주부가 없음을 내세우며 주변에서 재취할 것을 강권하는 경우로 『조생원전』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단순히 가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후처를 두는 경우도 『황월선전』, 『김취경전』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전처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현숙한 여인을 재취로 둘 것을 권유하는 경우로, 『어룡전』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원래 三妻를 두었으나, 두 부인이 일찍 죽었으므로 본부인(심씨)이 계모의 역할을 떠맡은 경우로, 『창선감의록』이 이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계모형 가정소설에서 계모의 등장배경은 사회적 관습적 요인으로 남성위주의 사회가 병리적인 형상을 일으킨 경우와 가정 내의 요인으로 개인적인 권유나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계모 등장의 밑바탕에는 전처 부부가 후사를 잇기 위해 40이 넘어서까지 아들(이나 딸)을

남으려 고 함에 따라 부인이 출산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핵심 포인트

☞ 〈계모의 등장배경〉

1. 남성의 재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관습
- 『장화홍련전』
2. 집안을 관장할 주부가 없음을 내세우며 재취를 강권하는 경우
- 『조생원전』
3. 가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가장이 후처를 들이는 경우
- 황월선전 , 김취경전
4. 전처의 권유로 자식들을 볼보기 위해 들이는 경우
- 어룡전
5. 삼처를 두었으나 두 분인이 사망함에 따라 본부인이 계모여할을 맡은 경우
- 창선감의록

한편 계모형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계모의 성격묘사는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크게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간악하고 방자한 것으로 묘사되는 소설로서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 『인향전』의 정씨, 『양풍운전의 송씨, 『조생원전』의 배씨, 『김전전』의 설씨, 『정을선전』의 노씨, 『어룡전』의 강씨 등이 이 경우에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후처로 들어온 후 자식을 낳은 뒤 재산에 욕심이 나서 성격이 포악해진 경우인데, 『황월선전』의 박씨, 『김취경전』의 안씨, 『창선감의록』의 심씨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계모의 성격〉

1. 천성적으로 성격이 간악하고 방자한 경우
- 장화홍련전 의 계모 허씨, 김인향전 의 정씨, 양풍운전 의 송씨, 조생원전 의 배씨, 김전전 의 설씨, 정을선전 의 노씨, 어룡전 의 강씨
2. 자식을 낳은 후 재산 욕심으로 성격이 포악해진 경우
- 황월선전 의 박씨, 김취경전 의 안씨, 창선감의록 의 심씨

(4) 주인공 모해의 방법

계모형 가정소설이 조선조의 여성독자층의 흥미를 크게 끌었던 것은 계모에 의한 여주인공의 모해방법이 다양하며,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했기 때문이다. 즉 잔인한 수법을 통해 주인공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서 독자계층의 동정심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계모형 소설에 주로 사용하는 주인공 모해의 방법은 주인공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대개 여주인공의 경우 부정한 여자로 몰아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사람(계모의 자식이나 심복)을 팔려 보내 자살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남주인공의 경우는 하인을 시켜 목을 베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의 박해를 가해 결국 집을 떠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 모해방법의 유형 분류>

첫째, 여주인공을 부정한 여자로 오인하게 하여 집안에서 축출하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인데, 『장화홍련전』이나 『황월선전』, 『인향전』에서 이러한 수법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한 여자로 나쁜 소문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표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표 5〉

작품명	모해 방법	계획 주도자	행동 실천자 내지 공범	나타난 결과
장화홍련전	깎질 벗긴 뉘를 넣어 낙태한 형상	계모 허씨	장쇠	연못에 투신 자살
황월선전	깎질 벗긴 강아지를 넣어 낙태한 형상	계모 박씨	부녀와 시비 운항	집안에서 축출된 후 수차례 자살 시도
김인향전	둘레밀로 만든 떡과 큰 구렁이를 먹여 잉태한 형상	계모 정씨	결인 노파와 오탁 인형	연못에 투신 자살

여주인공을 부정한 여자로 모는 방법으로 상기 세 작품은 처녀가 낙태하거나 잉태한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의 양반사대부계층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성의 부정이나 불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주인공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죽음 이상의 흉계를 꾸밈으로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또 상기 작품들은 그 모해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을 띠는 데, 이는 『장화홍련전』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그 아류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둘째, 남자주인공의 경우, 계모는 하인을 시켜 남자주인공을 해칠 흉계를 꾸미거나, 모함을 꾸며 계모가 남편의 긍정적 반응과 호응을 유도한 후 집안에서 내쫓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조생원전』과 『양풍운전』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평범하게 전처자식이나 자신의 소생이 아닌 자식을 계모나 사모가 재산의 계승문제나 부친이 전처자식을 편애하는 양상에서 비롯된 시기지심 등의 요인으로 박해를 하는 경우이다. 『창선

감의록』에서 정부인과 화상서가 죽은 뒤 본처 심씨와 춘이 정부인 소생의 빙성과 진을 확대하는 경우와 『김전전』에서 서장모인 설부인이 남편 위승상이 죽은 후 전처자식 형욱과 사위 김전을 심하게 박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는 첫째 경우의 변이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계모가 전처자식이나 며느리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 집안에서 쫓아내는 경우이다. 단지 첫 번째와 다른 것은 그 방법이 계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며, 또 모해방법이 잔인하거나 충격적이며 유치한 양상을 지니지 않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이다. 『정을선전』에서 계모 노씨가 사촌오래비 노태를 간부로 위장하여 추년의 방에서 나와 도망가게 하여 부정한 여자로 을선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 〈주인공 모해의 방법〉

1. 여주인공을 부정한 여자로 오인하게 하여 집안에서 축출하거나 죽음으로 유도
 - 장화홍련전 , 황월선전 , 김인향전
2. 남주인공의 경우, 계모가 하인시켜 흥계를 꾸미거나 모함을 꾸며 집에서 축출
 - 조생원전 , 양풍운전
3. 재산 계승문제로 인한 부친의 전처 자식 편애에서 비롯한 경우
 - 창선감의록
4. 첫째의 변이형태로 계모가 전처 자식이나 며느리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 집안에서 축출하는 경우
 - 정을선전

(5) 주인공의 죽음 여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죽음이란 개념은 무시될 수 없고, 오히려 양자는 상보적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의 고전문학에 있어서 특히 설화·소설 등의 산문에서 죽음은 중요한 역할을 떠맡는다. 하지만 <죽음>이 등장하는 분포도로 보면, 고전문학 속에는 죽음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무속신앙에 바탕을 둔 낙천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계모의 모함에 의해 전처자식이 박해를 받는 계모형 가정소설에는 죽음이 많이 등장한다. 또 『장화홍련전』, 『심정전』, 『황월선전』, 『조생원전』, 『김인향전』등의 고소설과 『치악산』, 『화세계』, 『봉선화』 등의 신소설에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계모형 가정소설의 분석대상 10작품 중 8작품에 죽음이나 자살, 죽음의 위기 극복 등 타나

토스와 관련된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모티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계모형 소설 중 죽음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

- 주인공의 비극적 삶의 종말이 나오는 작품으로는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조생원전』, 『정을선전』 등

<간접적인 죽음 모티프인 자살충동이나 죽음의 위기의식 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작품>

- 『황월선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전전』 등이 있다.

계모형 소설에 등장하는 <죽음>은 단순히 소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의 위치에 서서, 작품전체의 총체적 구조를 떠받치는 요소로도 작용하며, 주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물론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김취경전』, 『김전전』, 『정을선전』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죽음과 현실세계로의 환생, 시체의 썩지 않음 등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당대의 조선인들의 샤머니즘적 내세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때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생원전』이나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죽음이나 죽음의 위기극복과 유배 등의 내용은 작품의 플롯내의 사건전개에 짜임새를 더해 주는 요소로 사실성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볼 때 상당히 후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죽음의 양상 등이 신소설 등에 나타나는 수법과도 매우 유사함을 느끼게 된다.

▼ 핵심 포인트

☞ <죽음의 등장>

1. 주인공의 비극적 삶의 종말이 나오는 작품

-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조생원전』, 『정을선전』

2. 간접적인 죽음 모티프인 자살충동이나 죽음의 위기의식을 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경우

- 『황월선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전전』 등

(6) 주인공의 한 풀이 방법

주인공이 악인을 퇴치하고, 그에게 보복을 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訟事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힘 및 구원자의 도움에 의해 선을 퇴치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범죄의 근원을 파고들어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주인공이 지략이나 무공을 세워 영웅이 됨으로써 사태의 반전을 자연스럽게 도모하는 방법이다.

1> 訟事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양풍운전』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死靈인 홍련이 진동호 부사(칠산부사)에게 심야에 찾아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명과 계모 허씨의 비행에 대한 단죄를 요구함에 따라 조선조의 사법적인 전환을 겪고 있던 지방관에게 송사를 의뢰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으며, 『장화홍련전』의 아류작품인 『김인향전』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진두용 안주 국수가 부임하여 근무하자, 심야에 억울하게 죽은 인향·인함 자매의 원혼이 찾아와 계모 정씨의 흉계를 낱낱이 밝혀 자신들의 억울함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양풍운전』에서는 계모 송씨의 흉계에 의해 모친과 함께 집안에서 쫓겨난 풍운이 갖은 고초를 극복하고 옥황상제의 도움과 천왕보살의 무술지도에 힘입어 나라의 재앙을 막는 데 커다란 공을 세우고, 그 결과 순무어사가 되어 계모의 비행을 밝혀 계모를 처형하고, 가정의 화목을 되찾는다는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송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 계모형 소설의 경우 선의 승리가 악의 퇴치를 가져오는 보복의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아마도 이는 조서조의 양반사대부 계층이 유교적인 윤리를 철저하게 관습화·생활화하기 위해 소설에서마저도 이러한 주제의식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파생하는 부산물로 보인다.

2> 초월적 힘 및 구원자의 도움에 의해 선을 퇴치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초월적 힘이나 구원자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악을 퇴치하는 방법인데, 『황월선전』이나 『정을선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황월선전』에서 계모 박씨에 의해 갖은 박해를 받고, 결국 집안에서 내쫓긴 월선은 자신의 앞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나, 그때마다 선녀나 노승 등 초월적 구원자가 등장하여 도움을 주어 중국에는 황승상이 진실을 밝혀 계모박씨의 두 눈을 뽑는 잔인한 보복을 행하게 된다. 또 『정을선전』에서는 계모 노씨의 흉계를 이겨내지 못한 추년이 자살을 시도하여 죽게 되고, 그녀의 비소를 들어간 사람마다 죽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러자 승상이 노씨의 시비를 엄형추문하게 되는데, 도중에 공중에서 소리가 나며, 노씨가 피를 토하고 죽고, 그 자녀는 말도 못하고 인사불성이 된다는 문제해결방식이 나온다. 이 경우는 모든 악의 원흉에게 하늘이 천벌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주인공이 지략이나 무공을 세워 영웅이 됨으로써 사태의 반전을 자연스럽게 도모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우이다. 『김취경전』에서 취경은 과거에 급제하여 공명에 힘쓰더니 점차 승차하여 영의정에 오르게 된다. 그 이후 임금에게 표를 올려 순천본가로 금의환향하여 와서 외가에 가 계모 안씨를 만나니 계모가 스스로 회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창선감의록』에서 주인공 화진이 해적 서산해를 토벌하는데 대원수로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우고 금의환향하자 서모 심부인이 스스로 회개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김전전』에서도 김전이 장원급

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어 국사에 힘쓰다가 고향에 돌아와 처계모 설부인에게 그 동안 양육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황금 700냥을 내어 놓으니 설부인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 이러한 세 작품에서의 내용은 積善之家하면 반드시 경사롭고 화목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여 화해의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주인공의 단죄방법〉

1. 송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장화홍련전 , 김인향전 , 양풍운전
2. 초월적인 힘이나 구원자의 도움에 의해 악을 퇴치하는 방법
 - 황월선전 , 정을선전
3. 무공을 세워 영웅이 됨으로써 화해의 방법 모색
 - 김취경전 , 김전전

◆ 보충 핵심 포인트

〈송사소설이란?〉

公案이란 말이 설령 ‘관공서의 문서’에서 ‘소송사건의 문서’라는 뜻으로 전용되어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속에는 ‘事由 - 所志(告狀) - 拷音 - 看檢 - 判詞’라는 규격화된 형식을 갖춘 사건 기록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창작 작품으로서의 소설이 지닌 허구성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현홍교수는 ‘송사사건의 시말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소설’이라는 의미로서 ‘공안소설’이란 용어 대신에 ‘송사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송사소설이란 송사모티프가 소설작품 전반의 결말에 대응되는 구조를 지니고 전개되는 일련의 고소설’을 말한다.

송사소설들 중 설화적 원천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정수경전』, 『황새결송』, 『서대주전』, 『진대방전』, 『장화홍련전』, 『옥낭자전』 등을 들 수 있고, 역사적 현실로서의 의미를 지닌 송사사건이 각종 문집에 전의 형태로 수용되고, 이 전이 소설적 수준으로 형상화된 경우로 『柳淵傳』, 『金氏南征記』, 『洪烈婦傳』, 『鄭孝子傳』, 『金淳夫傳』, 『朴孝娘傳』 등이 있다.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24 ~ 28쪽.)

(7) 작품구조와 변이양상

소설의 플롯을 분류하는 방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단순구성과 복합구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고소설은 단순구성(단일한 플롯)에 가까우면서도 복합구성(복잡한 플롯)을

가미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구성과 복합구성의 차이를 플롯의 세 요소라고 부르는 급전(peripeteia), 발견 또는 인지(anagnorisis), 파토스(pathos:연민, 공포 등)를 포함하고 잇는가, 없는가에 따라 판정하였다. 즉 단순구성은 주인공의 운명의 변화가 급전과 발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 복합구성은 이 변화가 급전, 발견, 혹은 양자를 다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단일구성과 복합구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일구성은 말 그대로 하나의 플롯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법이고, 복합구성은 둘 이상의 플롯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고소설을 살펴보면, 고소설은 단일한 플롯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것임에는 이론이 따를 수 없다. 동시에 두 가지 플롯이 전개되는 예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좀 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플롯이 소설의 수법상의 한 요소라고 한다면, 구조는 형식적인 개념과 비형식적인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내적인 동적 총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플롯이란 개념과 <구조>란 개념을 총괄하여 절충적인 개념으로 텍스트의 작품구조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확실히 고소설에서는 고소설 나름대로의 내적인 구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화홍련전』이나 『심청전』은 두 소설 모두 주인공이 물에 뛰어들기 전과 뛰어든 후의 이야기가 다른 내용을 지닌 채 전개된다. 즉 소설의 작품구조가 전대단락과 후대단락으로 나뉘어지는 서사구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전대단락은 계모 학대형 소설의 구조를, 후대단락은 공안류 소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 등에서의 서사구조의 특색은 계모형 가정소설에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화홍련전』, 『황월선전』, 『양풍운전』, 『김취경전』, 『김진전』, 『어룡전』, 『정을선전』 등은 모두 전대단락과 후대단락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생원전』, 『창선감의록』 등은 단일한 플롯을 가진 극적 구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후대단락으로 작품의 서사구조가 나뉘어지는 계모형 소설의 특색을 도표로 그려보기로 한다.

〈도표 6〉

작품명	전 대 단 락	후 대 단 락	분기점
장화홍련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收縮의 구조	• 公案類 소설의 구조 • 擴散의 구조	장화 · 홍련의 投身自殺
황월선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박씨, 월선을 낙태한 것으로 흥계를 꾸민다.	• 월선의 結緣譚의 구조 • 월선은 장위를 만나 결혼을 한다.	월선의 投身
양풍운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송씨가 흥계를 꾸며, 최씨 부인과 양풍운을 내쫓는다.	• 영웅소설의 구조 • 양풍운이 천왕보살에게서 무술을 연마한 후 송국의 침범을 격퇴한다.	풍운 남매의 축출
김취경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안씨는 족질 윤도익을 통해 취경 남매를 해칠 흥계를 꾸민다.	• 영웅소설(군담소설)의 구조 • 김취경이 단군도인의 도움으로 백제국의 침범을 퇴치한다.	취경 남매의 축출
김전전	• 영웅소설(군담소설)의 구조 • 김상서가 남만의 침범을 격퇴한다.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처 계모 설부인이 金鎗 부부를 모해할 흥계를 꾸민다.	전쟁 중 金鎗의 실종
정을선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노씨가 며느리 추년을 부정한 여자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	• 妻妾爭寵型 가정소설의 구조 • 을선의 둘째부인 조부인이 본부인 유부인을 해칠 계책을 꾸민다.	추년의 환생
어룡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강씨가 龍의 남매를 내쫓는다.	• 영웅소설의 구조 • 도술을 전수받은 魚龍이 북흉노의 침범을 격퇴한다.	어룡 남매의 축출
김인향전	•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 • 계모 정씨, 인향이 임태한 것으로 흥계를 꾸민다.	• 公案類 小說의 구조 • 전두용 군수가 사건을 해결한다.	인향의 投身自殺

계모형 가정소설이 이와 같이 전·후 대단락의 서사구조의 형태를 취하게 된 요인은 조선조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양인 특유의 순환론에 바탕을 둔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인간의 <생-로-병-사>의 반복적인 인생유전에서 고난의 도래와 시련의 극복은 자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모형 가정소설은 『김전전』을 제외하곤 전대단락에서의 비극적 구조와 후대단락의 고난극복을 통한 승리담의 구조의 대립구조의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생원전』과 『창선감의록』은 계모학대형 가정소설의 구조만을 지니면서 긴박한 사건전개와 해경의 과제를 추리 소설적 수법을 통해 서술해나가고 있는 단일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두 작품은 나머지 계모형 소설보다는 상당히 뒤늦게 즉 조선후기에 가까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전개의 양상도 신소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 영웅담의 개입여부와 그 의미

조선조에 창작된 고소설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역시 ‘영웅소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충렬전』이나 『조웅전』등의 이본이 가장 많고, 현재도 도서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유형의 소설이라는 데에서도 그 인기도는 충분히 입증된다.

임·병 양란이라는 전쟁은 조선후기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영웅의 출현을 간절하게 기원하는 민심을 반영한 영웅소설이나 영웅담이 오히려 중세가 몰락하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시대에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담은 애정소설이나 사회소설, 그리고 가정소설에도 중요한 모티프로 삽입되고 있다. 따라서 영웅담의 줄거리가 절반 분량을 차지할 때는 영웅소설로 간주할 것인지 가정소설로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애매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모티프가 무엇인지, 아울러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계모형 가정소설 중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 10편중 영웅담이 나오는 작품이 6편이 된다. 『양풍운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진전』, 『정을선전』, 『어룡전』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계모형 가정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영웅담은 창작 기법 상 두 가지 목적에서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영웅소설이 독자층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계모에 의한 가정 내의 모순과 갈등을 다루는 가정소설에도 그러한 줄거리를 삽입하여 주로 여성독자층의 흥미와 관심을 모아보자는 의도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정 내에서 계모가 전처자식을 모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쟁을 통한 영웅의 활동상을 삽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이 전처자식만을 총애하므로, 계모가 시기지심을 일으켜 전처자식을 모해할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그 흉계의 행동화는 가장이 집안에 없을 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핵심 포인트

〈가정소설에 영웅담이 삽입된 이유〉

계모가 흉계를 꾸미며 전처 자식을 모해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서사구조의 틀을 짜는 단계에서 가장이 집을 떠나 없을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4) 갈등양상의 유형 비교와 의미

계모형 가정소설에는 인물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갈등양상을 빚는 인

물을 계모와 전처자식간에서 비롯되며, 가장의 우유부단하거나 편향적인 성격이 문제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가장이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

계모형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중요인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 도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표 7〉

작품명	갈등의 주요인	해소 방안(+)	나타난 결과(-)	계모의 자식 출산 유무
장화홍련전	남편의 애정 독차지 여부(시기지심)	남편의 편애 지양	장화·홍련의 죽음	장쇠 등 세 아들 낳음
황월선전	전담 분배 문제	남편의 공정한 배분	황월선의 죽음	월생 낳음
김인향전	계모의 간교한 성격	계모의 개과천선	인향·인합의 죽음	인형 낳음
양풍운전	계모 송씨의 간교한 성격	계모의 개과천선	풍운 남매의 죽음 (1남 2녀)	×
조생원전	• 계모 배씨의 간악한 성격 • 재산 욕심	계모의 개과천선	조영의 살해	두 아들
김위경전	계모 안씨의 재산 욕심	계모가 탐욕을 버림	위경 남매의 죽음	1남 1녀 (설애 등)
창선감외록	남편의 애정 독차지 (시기지심)	남편의 편애 지양	화진과 병선에 대한 박해	아들 춘
김전전	계모 설부인의 방자한 성격	계모의 개과천선	전처 소생 荊玉과 사위 김전에 대한 박해	아들 荊伯
정율선전	어질지 못한 계모 노씨의 성격	계모의 개과천선	머느리 추년의 자살	1남 1녀
어룡전	남편의 애정 독차지 (시기지심)	남편의 편애 지양	어룡 남매 죽음	아들 才龍 낳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모형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가 모두 전처자식의 죽음이나 잔혹한 박해 등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가장 밑바탕에는 남성의 재취만이 용이한 사회적 조건이 가져온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도표를 보면, 대개 전처는 나이 40이 넘어서야 딸 자매만을 낳고 일찍 출산후유증으로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후처나 첩으로 들어온 계모는 거의 대다수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은 후사를 위한 남성의 재취의 법률적 관습적 용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갈등의 시발점의 요인〉

① 재산에 대한 욕심

- 계모가 아들을 낳은 후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는 데서 기인한다.
- 『황월선전』(전답 배분문제), 『조생원전』

② 남편의 애정 독차지

- 계모가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남편인 가장의 전처 자식에 대한 지나친 편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
- 『장화홍련전』, 『창선감의록』, 『어룡전』

③ 계모의 심리적 강박관념

- 계모는 조선조 사회의 가족형태나 부부형태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재취로 들어가는데 따른 ‘사회적 질서’와 ‘남편의 애정 독차지’라는 양면적인 현상 사이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분출구로 찾은 것이 전처자식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쟁쟁형 가정소설의 분석

1) 기본 텍스트의 작품구조

쟁쟁형 가정소설 - 조선조의 일부다처제 또는 축첩제도로 인하여 한 지아비를 놓고 여러 부인 또는 처·첩간에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갈등을 빚는 소설로서 조선조의 일부다처제 내지 축첩제의 모순된 부부형태가 가져온 가정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사씨남정기, 월영낭자전, 소씨전, 소현성록, 일락정기, 정진사전, 화산기봉, 옥란빙 등이 있다.

『사씨남정기』: 유한림이 본처와의 사이에 혈육이 없어 첩 교씨를 맞아들임으로써 빚는 가정내의 갈등을 그린 가장 대표적인 쟁쟁형 소설

1. 서포소설을 주로 연구한 김무조의 『사씨남정기』에 대한 네 가지 입장

- ① <남정기>는 서포(김만중)의 작품이다.
- ② <남정기>는 목적소설이다.
- ③ <남정기>는 소설이면서 실화를 소재로 했다.
- ④ <남정기>는 구운몽보다 앞서 만들어졌다.

2. 사씨남정기의 핵심적인 줄거리

- 전대단락-

- ① 유소사와 최부인 늦게 유연수를 얻음. 유원수 장원급제
- ② 유한림 사소저를 신부로 맞으나 혈육이 없음
- ③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임
- ④ 사씨가 아들을 출산후 교씨 시기지심발동. 동청과 공모.
- ⑤ 사씨, 부정한 여자로 참소되어 폐출됨

- 후대단락-

- ⑥ 사씨, 방랑생활-심명의 도움으로 자살실패. 산사의탁
- ⑦ 교씨, 동청과 사통하여 유한림마저 유배보냄
- ⑧ 동청은 유한림의 전재산 탈취, 교씨와 도망감
- ⑨ 동청과 교씨, 도적에게 재산을 탈취당함
- ⑩ 동청의 흉계 밝혀져 처형되고, 유한림 풀려남 - 가족과 극적 상봉

* 전대단락 :

- 사씨 중심의 이야기로 구성
- 선이 악에게 잔인하게 희생되는 비극적 구조
- 전반적으로 하강구조의 양상

* 후대단락:

- 교씨 중심의 이야기로 구성
- 악의 전횡이 가져온 비극적 이야기 구조이나 선의 반전 현상을 표출함
- 전반적으로 상승구조의 양상

- ※ 작품의 전체구조 : 사씨부인의 인생유전에 따른 <행복→ 몰락→ 반전→ 행복>의 기복 표출
- 동양인의 순환론에 입각한 세계관 반영.

〈도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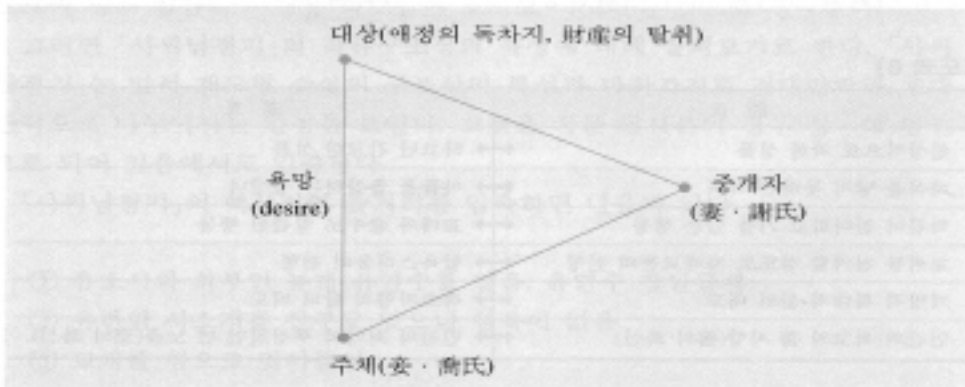
謝 氏	喬 氏
원성적으로 착한 성품	↔ 타고난 간교한 성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석녀	↔ 아들을 출산하는 정상녀
학같이 전아하고 기품 있는 행동	↔ 교태와 술수로 일관된 행동
교씨를 천거할 정도로 자애로움의 전형	↔ 탐욕스러움의 전형
개방적 확대적 삶의 태도	↔ 축소지향적 삶의 태도
인간의 최고의 품 지향(善의 화신)	↔ 인간의 최악의 부정적인 면 노출(惡의 화신)

-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인물간의 이원적 대립구조를 통해, 조선조의 양반 사대부계층의 선·악의 분명한 윤리관·도덕관의 정립과 실천을 지향,
- 일부다처제의 변이 형태로 존재했던 축첩제의 모순을 비판
- 욕망구조의 갈등을 통해 가정 내의 인물들이 뒤엎기는 양상을 리얼하게 그려 냄으로써 고소설의 전범적인 위치를 획득(작품 내 인물양상을 통해 조선조 후기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르네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구조’는 이와 같은 쟁충형 가정소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교씨가 유한림 집안의 재산을 탈취하고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청 등의 간악한 인물과 공모하게 되는데, 사실상 애정 및 재산의 독차지 모델은 자신 스스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본부인 사씨가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량과 위치에서 차용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씨는 사씨가 누리고 있는 지위의 탈취를 통해 남편의 애정과 재산의 독차지라는 욕망을 실현하려고 기도. 이와 같이 주체가 자신이 꿈꾸는 바를 직접 시도하지 못하고 중개자의 행동에서 모델을 찾게 되는 것은 조선조 후기의 왜곡된 사회구조상을 반영, 간접화된 욕망의 표출에 해당

〈도표 9〉



2) 기타 쟁쟁형 소설

- (1) 「소씨전」: 옛나라 시절 장안 금화문 밖의 병부상서 장상서의 아들 장한림과 부인 소씨 그리고 군주와의 갈등을 그린 작품
- (2) 「소현성록」: 16권의 방대한 분량의 작품으로, 변경 남문 밖 자운산 밑의 소현성은 원부인 화씨 외에 부인이 더 있었는데 석부인, 여부인과의 갈등을 그린 작품
- (3) 「일락정기」: 주인공 서몽상이 권채운, 정소저, 위부인등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정 내의 갈등을 빚는 내용의 소설
- (4) 「월영낭자전」 (「호씨 효행록」)
- (5) 「정진사전」: 충청도 괴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지리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
- (6) 「화산기봉」: 당나라 태종조 연간 예주 취연동에 사는 이영춘 태후
- (7) 「옥란빙」: 대명 성화연간 북경 동화문 밖에 진량은 왕부인과 첩 장씨, 주시를 데리고 살았는데, 주씨는 간특한 여인이었다.

3) 쟁쟁형 가정소설에 나타나는 중요 모티브 비교와 변이양상

- 쟁쟁형 가정소설은 남자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인, 세도있는 인물의 딸이 부실이나 첩으로 들어와 본부인을 모해하고 박해하는 줄거리를 담은 작품군을 말한다. 대개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제2, 제3의 처나 첩이 본부인을 모해하고 축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복수의 방법이 계모형 소설과 같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1) 후처의 등장배경과 성격

- 등장배경

〈도표 10〉

작품명	본처의 등장	후처(妾)의 등장	군모자	주인공의 고난 앞날	고난 극복 방법	진실 규명	영웅담	복 수	가족 재회
사씨남정기	메파를 통한 정실적인 결혼	본부인 謝氏의 연유 謝氏 등장	崔杼	무정한 여자로 재출	崔女인 魏皇·女美的 도움	조정 출신 들에 의해 형의가 풀림	×	교씨·중청 처벌	○
소씨전	남주인공 장생이 직접 정혼	연왕이 딸 군주와 결혼시킴 (皇命)	시비와 궁녀	소부인 축출 강물에 투신자살	崔氏가 구출(구원자 등장)	시아버지 장상서가 하인 문초 진실 규명	×	군주 부유 시킴 ↓ 회개	○
소현성록	花夫人과 정상 결혼	금슬이 좋지 못하여 石夫人·呂夫人(皇命) 맞아들임	×	呂夫人의 통제에 의해 石夫人 축출	소현성이 呂夫人의 음모를 밝혀 냄		×	呂夫人 본가 축출	○
일락정기	정상 결혼 (권재운+정소씨)	미인 위부인을 보고 매혹됨	조견	위부인이 편채운·정소씨 모해		서학사 승려 이후 음모 발견	서학사(몽상) 대원수로 무궁 세움	위부인 조견 처형	
월영낭자전	정상 결혼 (민부인+호부인)	정부인 연흥 (皇命)	×	남편 없는 사이 정부인 僞書로 통제 꾸밈	하늘에서 仙官 나타남		화성, 발해 종적 최무수가 위해 출현	정부인 자결	○
정진사전	정상 결혼 (준경, 옥련 + 석부인, 최부인)	예원一枝	×	정관사가 사신으로 간 사이 僞書로 통제 꾸밈	산신령의 계시	판국한 정진사가 문초		一枝 추방	○
화산기봉	이성, 강부인과 정상 결혼	화양궁주 (皇命)	모친 설귀비의 인척 어질	강부인과 시비·유모 박해 피해 탈출	이성서가 순꾸어사가 되어 해결		서면 침공, 이성 대원수가 됨	설귀비를 본가로 내쫓음	○
옥란빙	정상 결혼 석씨	유부인 부실 (皇命)	×	유부인·석부인 모함(위장 간부 보냄)	진학사가 무궁을 세운 후 해결		복통노 침범 대원수	유부인 처벌	○

① 황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본부인 이외의 처첩을 두게 되는 경우

: 『소씨전』의 군주, 『소현성록』의 여부인, 『월영낭자전』의 정부인, <화산기봉>의 화양궁주, 『옥란빙』의 유부인 등

② 남편이 우연히 만나거나 한 번 보고 처·첩으로 맞아들인 경우

: <일락정기>의 위부인, 『정진사전』의 일지, 『소현성록』의 석부인 등

③ 본부인의 천거에 의해 첩으로 들어오는 경우

: 『사씨남정기』의 교씨

- 성격

후처는 일반적으로 외모는 아름답지만 성격은 간악한 인물로 묘사된다.

◆ 보충 핵심 포인트

☞ <‘처첩갈등’의 공통된 성격>

쟁종형소설에 해당되는 처첩관계 갈등이 드러나는 소설에는 『사씨남정기』, 『소씨전』, 『소현성록』, 『월영낭자전』 또는 <월령전>, 『옥란봉』, <화문록> 등이 있다. 처첩관계 갈등이 근간을 이루는 작품들의 단락을 정리하면, 이 작품들이 동일한 소재를 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공통적 성격을 먼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남녀 주인공의 설정
- 나) 어릴 때의 수난
- 다) 남녀 주인공의 만남, 결연
- 라) 남녀 주인공의 혼인
- 마) 남주인공의 득첩
- 바) 첩에 의한 모해
- 사) 여주인공의 수난과 구출
- 아) 악한들의 지속적 악행
- 자) 남주인공의 수난과 구출
- 차) 수난 회복의 계기
- 카) 결말

물론 이러한 주요 단락은 일부 작품에만 나타나는 경우와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이중 처첩관계 갈등을 다루는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공통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남녀주인공의 설정
- 라) 남녀주인공의 혼인
- 마) 남주인공의 득첩
- 바) 첩류의 모해
- 사) 여주인공의 수난과 구출
- 차) 수난 회복의 계기
- 카) 결말

단락 가)는 처첩관계 갈등의 주역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제시한 단락이다. 이들 남성 주인공들은 성장 과정에 있어 큰 시련이 없이 유복하게 자라 혼기에 이른다. 여주인공 역시 명문가의 규수로 외모와 덕행, 재주가 겸비된 이상적인 여인상이며, 덕있는 부모가 뒤늦게 기뻐서 얻고 난 뒤 태어난 귀한 자손이다. 이 남녀 주인공의 설정은 이 작품들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인 두 사람임을 시사한다. 이들 완벽한 남녀 주인공은 개별화된 실재라기보다 여러 가지 가문적 조건

과 규범, 그리고 인간, 특히 가족관계가 만나는 인습적인 체계 속의 존재라고 파악할 수 있다.

단락 라)는 혼인을 사건 성립의 기본 조건으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처첩관계 갈등은 혼인 이후의 시련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남녀 주인공의 혼인은 서로 완벽한 조건의 융화로,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결합이면서도 처첩관계 갈등에 놓일 수 있는 제반 복합적인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단락 마)는 득첩이나 병처가 갈등의 실마리로 설정되어 있음을 보인다. 남성주인공이 득첩이나 병처를 거부하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남성주인공이 거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득첩하였더라도 문제가 있는 여성이 들어옴으로써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어느 쪽이든 득첩이나 병처 자체가 말미가 되어 갈등 유발의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득첩은 처첩관계 갈등을 다룬 작품에 있어 필수적인 사건 설정이며 득첩의 과정은 갈등의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득첩이나 병처가 작품의 주요 갈등의 실마리가 된다는 설정은 곧 처첩관계 갈등을 다룬 작품의 핵심이다.

단락 바)는 득첩이나 병처의 과정을 거쳐 가정에 새로 들어 온 여성이 기존 가정의 질서에 도전을 가한다는 설정이다. 그 계기는 작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여러 조건에서 열등한 여성이 자신 보다 우월한 여성 주인공에게 모해를 가한다는 것이 이 작품군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다.

단락 사)는 처첩관계 갈등을 통해 야기되는 인물의 불행이 주로 여성주인공의 수난임을 시사한다. 수난의 내용은 가정에서의 지위 박탈과 축출, 실정 위기, 투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삶의 의지 상실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공통적이다. 출가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으로 구가에서의 축출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편 여성주인공은 이 시련에서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든 구출을 받는 것이 공통된다. 처첩관계 갈등을 다룬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어떤 종류의 힘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다.

마지막 단락 차), 카)는 첩들이 응징을 받고 수난이 회복될 계기를 맞아 남녀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결말이 공통성을 보인다. 단락 라)에서 이루어진 이상적인 남녀의 결합은 결국 회복이 되고, 수난의 결과는 행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위에서 처첩관계 갈등을 다룬 작품 상호간의 단락상 공통성을 살펴보았다. 이 공통된 과정은 처첩관계 갈등의 전개 방식에 있어 하나의 유형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당대 독자들이 처첩관계 갈등을 다룬 작품을 읽고 복잡한 줄거리를 기억할 때는 언표 차원의 형상물로서가 아니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건의 틀을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틀이란 것은 하나의 공식이 되는 셈이다. 복잡한 소설의 형태지만 이러한 공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었으며, 유사한 작품의 독서행위를 통해 이 공식은 거듭 환기되고 익숙해져서 그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의 재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틀은 인물의 차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몇 작품을 예로 들기로 한다.

『사씨남정기』에는 유희, 엄송, 두부인, 유연수, 묘혜, 사부인, 사씨, 교씨, 남매, 설매, 춘방, 십낭, 장주, 연아, 동청, 냉진, 임씨, 몽중의 아황 여영, 몽중의 관음, 몽중의 백의 니고, 사공자, 천자 등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사씨, 교씨, 유연수는 처첩관계 갈등의 당사자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인

물이다. 두부인은 처를 후원하는 기능을 한다. 납매, 설매, 십낭, 동청, 냉진, 엄송 등은 첩류를 후원하는 악인들이다. 묘혜와 임씨는 사씨를 위기에서 구출한다. 몽중의 이비와 관음도 구출자 기능을 한다. 그 밖의 인물은 표면에서 크게 활약하지 않는다.

『소씨전』에는 소질, 양부인, 소민, 소정, 정낭부인, 숙정부인, 장준, 오정난, 종할미, 소민의 장자, 춘월, 난월, 몽중의 직녀, 김진사 부부, 소민의 차자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종할미는 첩류에 동조하는 인물이다. 몽중의 직녀와 현실의 김진사 부부는 처의 구출 기능을 한다. 소민의 차자는 소민 부부가 재회하는데 매개 기능을 한다. 그 밖의 인물의 기능은 크게 고려할 것이 없다.

<월령전>은 최현 부부, 최희성, 호원부부, 호소저, 간신 연환, 소주 자사 위현, 경어사 부인, 몽중 노승, 민씨, 천자, 정국공, 정국공의 차녀 정설앵, 정설앵 시비 채운, 선관 등을 등장시키고 있다. 최희성, 호소저, 정설앵이 갈등의 주역이며, 간신 연환이나 소주자사는 혼인 이전의 호씨의 적대자이다. 몽중 노승이나 선관은 호소저를 구출하는 인물이다. 천자, 정국공, 채운은 정설앵을 후원하거나 동조한다.

『옥란빙』에는 진양, 진양의 부인 왕씨, 진양의 첩 장씨, 송씨, 장씨의 딸 숙혜, 진숙문, 석흥부부, 석소서, 유기, 유기의 딸 유매영, 유기의 모 송씨, 석씨 장자 백현, 유기의 매자 유낭낭, 황제, 정씨의 유모 최유랑, 최유랑 일파 천년화, 노승, 적도들, 박둔충, 범등, 범소저, 유개, 유생 등이 등장한다. 이들 중 석소서, 유매영, 진숙문이 갈등에 직접 기능하는 인물이며, 장씨, 숙혜소서 등은 처인 석소저를 후원한다. 반면에 두 송씨, 유기, 유낭낭, 최유랑, 천년화, 적도들, 박문충, 유개, 유생 등은 유매영을 후원하거나 유매영의 행동에 동조하는 인물들이다. 노승은 주인공을 구출하는 기능을 한다. 나머지 인물은 부수적이다.

<화문록>에는 등장인물이 많다. 화운부부, 화운의 아들 화자경, 이상서 부부, 화자경의 외구 한어사, 한어사의 아들 한생 형제, 호소저 홍매(한생 외구 호각노의 딸), 호부인, 호각노 빈, 화자경의 삼매자들, 이씨의 조모, 이씨의 삼형, 이씨의 자매 남부인, 남부인의 남편 남학사, 이소저 시녀 난화, 위주, 괘씨(화운의 계부의 부인), 괘시랑 부인 화씨(화운의 친매), 화자경의 유모 노유랑, 호각로 부인 만씨, 호씨 시비 약난, 설경윤, 이씨 시비 난앵, 호씨 시비 난소, 난소 오래비 난춘, 뉴세광 등이다. 화자경, 이씨, 호씨의 주요인물을 제외하면, 화운부부, 이상서 부부, 이생들, 등은 이씨를 후원하고, 호각로, 만씨, 만귀비, 호씨 시비 난화, 난앵, 난소, 난춘 등은 호씨를 후원하거나 호씨에게 동조하는 인물들이다. 뉴세광은 이씨를 구출하고 그밖에는 부수적인 인물들이다.

(박순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처첩관계 갈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0, 40 ~ 46쪽)

(2) 공모자의 등장과 역할

- ① 『사씨남정기』의 동청으로부터 모든 흥계가 꾸며진다.
- ② <일락정기>의 조평, 화산기봉의 어침, 신관도사, 설귀비 등은 황제와 태자 사이를 이간시키거나, 남의 부인을 강탈하려고 하는 흥계까지 서슴치 않는다.
- ③ 『소씨전』의 시비와 궁녀는 흔히 등장하는 하인과 심복으로 개화기 소설에서도

계승

(3) 본처 모해의 방법과 고난

- ① 후처에 의해 자행되는 흥계나 모함중 쟁송형 가정소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인 거짓편지를 써서 본부인에게 간부가 있는 듯이 흥계를 꾸미는 경우 : 『소씨전』, 『월영낭자전』, 『정진사전』
- ② 사씨남정기에서는 공모자 동청이 흥계를 교씨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 방법은 흉악하기 그지없다.
- ③ 주인공의 고난의 양상은 대개 부정한 여자로 집안에서 축출되는 것 : 『사씨남정기』, 『소씨전』, 『소현성록』
- ④ 위서를 꾸미고, 간부를 들여보내 납치하려는 흥계등도 정진사전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산신령의 계시로 박부인은 간신히 피신하여 정절을 지키게 된다.
- ⑤ 고난의 방법에 있어서 쟁송형 소설은 계모형과 달리 주인공의 죽음이 등장하지 않는 게 특징

(4) 고난의 극복양상과 구원

- ① 주인공 고난의 극복은 대부분 구원자가 출현하는데 대개 구원자는 초월적 힘을 가진 자이거나 현실의 인간의 경우의 두 부류로 나타난다.
- ② 초월적인 힘을 가진 구원자
 -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를 구원하는 아황·여영 등의 선녀
 - 「월영낭자」에 등장하는 선관
 - 「정진사전」에 등장하는 산신령
- ③ 현실적인 인간이 구원자
 - 「소씨전」에서 강물에 투신한 소부인을 구해주는 두어사
 - 「화산기봉」에 등장하는 이상서
 - 「옥란빙」에 등장하는 진학사

* 고소설, 신소설, 근대소설엔 능히 구조자가 자주 등장

* 구조자의 성격 차이

- 고소설: 현세의 인간이 아니라 도사나 신선, 선관, 선녀 등이 등
- 개화기소설: 주인공과 직접관련 있는 남편, 시아버지 될 사람 등
- 근대소설(이광수의 <무정>) : 주인공과 관련 없는 일상적 인물

(5) 여주인공의 한풀이 방법

① 후처와 공모자 처형

- 「사씨남정기」의 교씨와 동청, 「일락정기」의 위부인과 조평, 「옥란빙」의 유부인

② 본가로 축출하는 경우

- 「소현성록」, 「화산기봉」

③ 회개의 기회를 준 작

- 「소씨전」

④ 스스로 자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작품

- 「월영낭자전」

- 쟁충형 소설이 계모형보다 보복의 수법이 완화된 요인은 일부다처제나 그 변이 형태인 축첩제가 관습적으로 널리 상층계층에서 용인되고 있었으므로, 재취나 재가의 경우 심각한 재산탈취나 가정 분규보다는 그 갈등양상이 덜 심각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또한 쟁충형의 후처는 대개 미인으로 남편이 스스로 반해서 첩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잔인한 처벌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6) 영웅담의 개입과 그 의미

영웅담이 개입된 배경은, 간교한 후처가 자애로운 본부인을 축출하고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하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 「일락정기」, 「월영낭자전」 「화산기봉」, 「옥란빙」

쟁충형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간의 대립양상이나 갈등유형은 계모형 보다도 훨씬 단조롭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처·첩간의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이거나, 재산의 탈취가 주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황실의 강요에 의해 들어오게된 후처나 첩이 권력을 등에 업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려는 경우에 빚어지는 갈등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 특색이다.

다시 말해 부부형태나 가족제도의 모순이 가져온 사회적인 현상이 인물간의 대립양상을 촉진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조선조에 창작된 쟁충형 가정소설의 특징이다.

제3장

가정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가족사소설'의 등장

1. 17세기 말의 가정소설

가정소설이 처음 발생되었던 17세기 말에는 조선조의 대가족제도의 가부장 중심 사회의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다루는 양상을 보이다가 18세기에는 처·첩간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양상까지 포괄하는 특성을 보인다.

(1) 가정소설의 창작연대에 대한 학설의 차이

학계 : 계모형이 먼저 생성되고 그 인기에 힘입어 쟁충형이 창작된 것으로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쟁충형 소설이 먼저 만들어졌고 계모형 소설이 그 뒤에 창작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장화홍련전』의 경우, 과거에는 한문본 선행설에 근거하여 한글본의 생성연대가 순조(1801~1834), 철종(1850~1863)이후에 번역되었거나 창작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박태상 교수에 의해 한글본 선행설이 제기된 이후 한글본은 숙종-순조 18년(1818, 한문본 창작시기)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인정.

- cf) 이원수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 쟁충형이 17세기 후반 창작
「장화홍련전」 등 계모형이 18세기 중엽에 창작되었다는 의견 제시
박태상 : 계모형은 17세기 말인 숙종무렵에 창작
장희빈 사건을 풍자한 『사씨남정기』 등은 18세기에 창작

(2) 계모형 소설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 ① 가정소설 중 계모형은 조혼의 풍습과 다산의 장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생활수준의 낙후와 의료복지 상태의 취약성으로 여성들의 출산 후 사망이 급증하는 등
- ② 산모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발생 계모의 대량 영업이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 ③ 계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의 신임을 얻고 전처자식을 밀어내야만하는 숙명에 처해 있었다.

예)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황월선전」 등

(3) 18세기 전환의 계기

- 대외적 :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인한 국력의 쇠퇴에 따른 신분제 동요
- 대내적 : 봉건적 경제구조의 변동에 따라 농민층의 분화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시장이 활성화, 신분제의 동요는 세력다툼을 유발하여 세도정치, 붕당정치로 이끌었다.
- 사회변화는 가정소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쟁총형의 등장은 물론 정치적 갈등에 의한 사건 전개 등의 서사구조가 생성하게 된다.
- 「소씨전」, 「월영낭자전」, 「화산기봉」, 「옥란빙」 등에 등장

2. 조선 후기 사회의 동요

조선조 18세기는 농업의 발전으로 농업사회 분화 처·첩간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양상까지 포괄하는 특성을 보인다.

- 1) 17세기에 들어와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 농업경영의 변동에 따른 지주제의 확산
- 2) 토지의 상품화 진전에 따른 지주 및 부농과 상인의 토지 소유량 증가
- 3) 지주제의 발달에 따라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층으로 분화, 빈농층은 토지경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 4) 수공업과 광업에서도 생산력이 발전하여 경영형태의 변화.
- 5) 관영수공업 체제는 해체되고 민영 수공업 체제의 성장.
- 6)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대외교역의 활성화에 따라 금·은·동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
- 7) 상품생산이 증대되어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화폐도 발달하였다.
- 8) 화폐의 발전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및 장시의 발전,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공인층이 새로운 상인으로 등장
- 9) 18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몰락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상업에 종사하거나 지방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에 사상층(私商層)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상업자본을 쌓은 상인이 생겨났다.
- 10) 농촌사회가 분화되고 계급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신분제도가 동요하였다.

3. 18~19세기의 가정소설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가치관의 동요는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지탱해오던 가부장권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에 따라 절대적인 권위로 지탱되고 있던 가문 중심의 가족의식이 약화되었고 개인주의적 가족관이 대두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족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제 세대간·남녀간 질서의 이념적 토대인 효와 삼종지도의 규범이 더 이상 가족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부권(父權)과 부권(夫權)도 절대적 권위를 상실함으로서 전통적 가족 질서가 근본적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조선후기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사회현실의 사실적 반영에 바탕하는 소설문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개인의 삶이 집단의 삶보다 우선시 될 때 투기의 금지나 적서의 위계 그리고 효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적인 규범으로 ‘처-첩’, ‘계모-전처자식’갈등은 어느 쪽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고 그들은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처-처’갈등 : 「창선감의록」

* ‘첩과 계모’=‘악인·가해자’이고 ‘처와 전처’갈등 = ‘선인·피해자’라는 도식을 통해 갈등의 모든 책임을 첩과 계모에게로 돌렸는데, 첩과 계모에게 가해졌던 가정적, 사회적 횡포는 외면하면서 제도의 불합리를 인성의 결함이라는 개인적 문제로 왜곡한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열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의 희생을 통한 불합리한 기존질서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

: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쏟아져 나온 소설들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그들은 일처다부제하의 가장 전형적인 가족갈등 유형인 ‘처·전처자식 = 선인’, ‘첩·계모 = 악인’이라는 인물설정의 도식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이에 바탕한 작품들은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더욱 확대되면서 삶에 대한 규범의 지배력이 한층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갈등과 관련된 문제의식도 보다 구체화 현실화 되고 있으나 강제혼이나 양혼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처첩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계모, 전처자식 갈등과 관련된 가장의 책임도 한층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후기 가정소설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 자기들의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내들이 남편의 횡포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문 중심의 가족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 「조생원전」, 「김취경전」, 「일락정기」, 「쌍선기」 등

4. 가정소설의 통속화 경향

1) 통속적 가족소설

17세기 중엽(말엽)의 초기 가정소설에 이어 등장하여 흥미 중심으로 합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소설류

2) 18세기 이후 상업적소설에는 여성독자를 의식한 가정 내 비극적 실상을 군담 및 애정의 기존 흥미담에 합성하는 작품들 출현

3) 17세기 중엽(말엽)부터 18세기 이후의 가정 소설의 두 갈래

(1) 선행 작품들의 서사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만 통속화시키는 것.

- ① 『정진사전』, 『옥란빙』, 『김인향전』 등으로 이들 작품의 통속화 경향은 멜로 드라마적 성격의 강화로 집약
- ② 선악 대조 한층 극단화되고 첩과 계모의 ‘이유 있는 반항’이 ‘이유 없는 악행’으로 바뀌는 등 악인의 성격이 맹목화
- ③ 선인들의 시련은 가중되고 ‘처·첩 갈등’과 ‘계모·전처 자식 갈등’은 ‘선·악 대결’로 단순화
- ④ 독자들의 동정심과 증오심을 유발하기 위한 무절제한 감정의 노출이 이루어지며 작품 세계는 권선징악적인 인과론의 절대적 지배를 받음

(2) 서사의 골격까지도 통속적 흥미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

- ① 『정을선전』, 『어룡전』, 『양풍운전』
- ② 가정소설 하위 갈래들을 서로 결합, 다른 소설 유형의 일부 삽화들 첨입시켜 사건을 복잡화하고 있는데, 서사구조 변형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군담소설의 전쟁 장면을 주인공의 무용담으로 첨입시키는 것
- ③ 이들 작품은 선인들의 시련을 중첩시켜 독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한편, 거둬드는 시련 뒤에 얻어지는 승패의 극적 반전이나 새로 첨입된 삽화 자체의 흥미, 연속되는 사건 등을 통해 통속적 흥미의 재고를 꾀함
- ④ 통속화는 가정소설 본래의 문제의식을 둔화시키고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과 진실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음

4) 회문록 :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문제의식 드러냄

(1) 처·첩 갈등을 문제삼되, ‘왜 축첩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근원적 물음 던짐으로써 축첩에 따른 결과적 현상만을 문제 삼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 근본적 시각차 드러낸다.

(2) 현실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축첩과 그로 인한 가정불화는 관념적 규범보다 현실적 삶이 더 중시되고, 남녀관계에서 전통적 부덕보다 관능적 애정이 더 선호되는 가치관의 전환에서 근본적으로 기인된다 .

(3) 작자는 가문이란 집단적 삶의 일부로 간주되던 혼인을 당사자 개인들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축첩과 그로 인한 가정불화는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혼인은 강제혼이나 애정 표현이 부족한 부부관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현실성 있게 보여줌

5. 개화기 이해조의 문학

1) 이해조 작품의 특징

전통적 윤리관과 근대적 각성 대립하여 이루어진 처첩간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전통적 윤리관

- 유교의 이념, 즉 충효사상, 주종의식, 여성의 전통적 미덕 등으로 집약 등 구조설적 요소들

② 근대적 각성

- 종래의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 해외 유학, 부패관리에 대한 고발, 근대적 재판 형식 등(개화기라는 급변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연히 발생한 갈등양상)
-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과학정신을 작품에 반영

③ 빈상설

- 전통적 윤리관과 근대적 윤리관 사이에서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는 개화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그러나 작자는 전통적 윤리관의 미덕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 그의 논설 <윤리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통옹호론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 무속적 세계관과 합리적 세계관의 갈등구조로서 이루어진 작품

① 작중인물이 ‘개화인-미개화인’, ‘선인-악인’, ‘합리적 사고인-무속적 사고인’ 등으로 나누어져 대립관계 이룸

② 『구마검』

- 개화인이며 선인형인 함일청, 함종표, 미개화인이며 악인형인 최씨부인, 안잠노파, 정장님, 대묘골 만신, 금방울, 임지관, 강서방 등이 대결하여 개화와 수구 간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됨
- 미개화인, 악인형 무리들의 개과천선을 유도하거나 그들이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형상화
- 무속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합리적 사고가 승리함을 보여준다.

③ 『자유종』

- 1910년 발간 토론회 소설, 자유의 개념을 여성해방과 관련지어 역설(페미니즘에 가까움)
- 자유 및 여성 교육의 필요성, 신학문의 필요성, 국문자 사용 문제의 시비, 적서 및 반상제도 철폐 등 주장 등을 제시.

3) 자아 확립의 과정

조혼의 부당함, 새로운 애정관, 개가의 당위성 등을 주장한 근대적 결혼관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아각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고부간의 갈등, 미신타파 등의 문제를 통하여 자아확립의 과정을 보여줌

- ① 개가의 당위성을 강조, 합리화시키기 위해 <홍도화>에서 《제국신문》의 논설 ‘개가론’ 전개
- ② 개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화기 사회의 한 반영이며 사회개혁을 위한 의지표현

4) 범죄적 행위 발생

신분질서의 붕괴로 계층간 갈등, 경제적 궁핍이 극대화되고 인신매매, 사기, 도박 등 경제적 원인과 관련된 범죄적 행위를 발생하게 함

- * 인신매매
 - 『봉선화』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팔고
 - 『빈상설』 : 남편이 아내를 팔고
 - 『원앙도』 : 안경지 아내가 금쥐를 팔고
 - 『모란병』 : 아버지가 딸을 팔고

5) 동학을 다룬 신소설 작품

- 「화의 혈」

6) 복수를 통한 결말구조

이해조 소설에서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과정의 특징은 ‘복수’를 통한 결말구조를 지닌 채 나타난다

- 악인모해형 소설, 남녀이합형 소설 등에 나타난 원한 관계는 갈등과 긴장 과정을 통해 복수의 방법으로 사건이 결말을 맺는다
- 이해조 작품 중 복수를 통하여 결말이 처리된 작품
- 「빈상설」 · 「화의 혈」 · 「구마검」 · 「화세계」 · 「구의산」 · 「소학령」 · 「비파성」 · 「탄금대」 · 「소양정」
- 이 작품들은 대체로 재판 형식을 통해 갈등 해소(법치, 과학주의)

7) 근대 지향의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작가의식

사회적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한 편으로, 작 중 개인 혹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구간의 갈등 양상은 근대 지향의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작가의식의 표현으로 인정

◆ 보충 핵심 포인트

☞ 〈모던걸이란?〉

신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전후의 역사적 산물로 등장한다. 그것은 전쟁 중 남성노동력을 여성이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산업역군이 된 여성이 종래 가정을 지키던 현모양처 여성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인격체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1920년대 신여성은 하나의 사회세력을 형성하고서 당시 세계를 휩쓴 여성해방론을 주창하였다.

한국의 신여성은 19세기 말 이른바 개화기에 교육받은 여성의 뒤를 이어 계속 여성 스스로 여성교육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사회활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자의식을 가지고 사회현실에 눈뜨기 시작한 이들 신여성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들어와 더욱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강조하는 한편 세계 여성해방의 선진적 조류를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다. 신여성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식 근대교육을 받고 뽀족한 가죽구두에 짧은 머리, 양장 차림에 양산을 쓰고 손에는 장가 머리에는 모자 등 일단 서양식 맵시를 뽐내기도 했다. 서양식 건물이나 교회에서 혼례를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여성 부부는 이른바 서양식 문화주택에서 커튼을 드리우고 침대와 피아노가 있어야 문화생활을 누린다고 여길 정도였다. 그리고 여학생이나 직업여성 사이에 트레머리와 파마가 유행한 것도 신여성의 생활에서 닳할 바는 아니었다.

이러한 모단(毛斷, modern) 걸은 결혼한 여성의 경우, 시집 성을 따라 친정 성을 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개화기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갖고 행세깨나 하는 남자의 첩(부실)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진다. 당시 인천 감리로 소문난 갑부, 하상기의 첩 하난사는 남편의 재산을 이용해 미국 최초의 여학사가 되었고, 이화당 교사가 되었다. 그의 이 난사는 바로 미국이름 낸시이다. 첩만 남편 성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한말 내무대신을 지낸 이지용의 부인 홍현경은 부부동반으로 일본황실을 견학하러 갈 때 이홍경으로 개명했다. 일제시기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자매의 경우는 놀랍기까지 하다. 박에스터의 본명은 김점동이였다. 뿐만 아니라 정동학교 교사에서 정신여학교 교장이 된 신마리아가 그의 언니이며,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정식 간호사 김배세가 동생이였다.

또 초기 여권론 또는 신여성론에는 주로 여성의 자유로운 남녀교제, 결혼, 이혼과 소박 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여성선구자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한 신여성 중에는 독신 여성이 많았다. 김활란, 이숙종, 고헌경, 서은숙, 윤성덕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또한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여성교육에 투신한 차미리사나 이혼 후 독신으로 농촌사업에 나선 박인덕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이혼한 남편과 사는 이화여고생 딸을 만나러간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거침없는 여성이였다.

1920 ~ 30년대에 국제결혼한 부부나 전문직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다양하고도 원만한 생활상도 화제가 되었다. 또 당시 신여성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1920년대 신여성의 대표적인 직업을 든다면 단연 의사, 교사, 기자 등 전문직에서부터 주로 사무직, 서비스직에 이르는 이른바 여성직이 본격화하였다. 이들 신여성들은 초기의 자유연애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모순을 점차 극복하며 나름대로 정착되어

감을 보여주며, 여성지에 성에 관한 솔직한 글들을 발표하여 짓눌린 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엿보게 하기도 하였다.

(신영숙,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1999, 72 ~ 79쪽)

6. 1930년대의 가족사소설

- 1) 조선조 가정소설의 계보는 개화기의 이해조 등의 신소설을 거쳐 식민지시대인 1930년대에 와서는 ‘가족사소설’의 유형으로 새롭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 2) ‘가족사소설’의 경우 가족의 계보관계 및 세대간의 단층, 붕괴와 변동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수반되며 전통적 형태는 <조씨삼대록>, <박씨삼대록>, <유씨삼대록>
- 3) ‘가족사소설’의 대표작품 : 염상섭의 <삼대>(1931), 채만식의 <태평천하>(1938), 김남천의 <대하>(1939), 안수길의 <북간도>, 박경리의 <토지>도 ‘가족사소설’과의 친족관계를 지님
- 4)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3대에 걸친 가족의 몰락이라는 가족사를 통해 식민지시대에 있어서 조선 민족 전체의 삶의 붕괴라는 거시적인 안목과 세대간의 갈등을 통한 조선 민족 좌절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는 미시적인 통찰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5) <삼대>와 <태평천하>의 작품적 특징

● 염상섭, <삼대>(1931년)

- 유교윤리적 실천도덕으로서 오류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윤리가 동요하면서 삼각관계적인 상황이나 갈등이 현저하게 나타남. 삼대의 변화와 그들이 갖는 가치관의 변질을 통해 가족 내적인 세대간의 차이는 물론, 역사에 의한 사회적 변천과 우리 정신사의 변이까지 파악

① 할아버지(조의관) - 한말세대

- 유학사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가부장적인 가족관념을 고수하는 구세대의 전형, 봉건적 토지 소유계층 대표,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 가독과 재산상속을 주도, 돈으로 양반을 사고, 경제적으로 우세하나 사회적, 신분적으로는 열세
- 조의관의 일생-‘사당-조상숭배’와 ‘열쇠-경제적 가독권(家督權)’를 지키는 일로 압축
- 조의관은 이 두 개의 전근대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정신구조를 삶의 기반으로 하는 세대의 전형
- 장손에게 상속 승계 - 적서의 갈등야기, 가족적 삼각관계 예각화 시킴

② 아들 (조상훈) - 개화 세대

- 서구문화의 세례를 받았지만 사상의 변용을 끝내 시도하지 못하고 무위도한 안일에 투신, 위선적인 이중생활의 인간으로 묘사 가장 갈팡질팡의 세대이며 파멸적인 세대

③ 친손 (조덕기) - 식민지 세대

- 앞 세대의 극단적인 정신의 대립을 조정하는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조정을 대표하는 세대.
- 가족주의의 승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맹목적인 노예가 될 것은 거부. 가독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타락한 부친의 과용을 통제하며 병화와 팔순이네 같은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 아울러 조부의 경제적 욕망과 철저한 가문주의 및 부친의 탐욕스런 성적 욕망이라는 이중의 숙명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구차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도덕적 연대감을 갖고 있으며 필순과 같은 여성에 대한 금욕적인 자제심을 발휘한다.

제 4장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소설사적 변화양상

□ 한국 여성문학의 계보 □

- ① 개화기, 식민지 : 나혜석, 강경애, 박화성
- ② 50년대 : 박경리, 한무숙, 한말숙, 강신재
- ③ 60~70년대 : 박완서, 오정희
- ④ 80~90년대 : 윤정모, 양귀자, 공지영, 공선옥, 신경숙,
은희경, 조정란, 하성란, 전경린, 고은주

소설 속 여성해방운동의 사회적 흐름		
남성 작가	← 80년대 →	여성작가
최인훈, 조해일, 최인호 등	대표작가	박완서, 윤정모 등
왜곡된 여성상 창조	특징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에 접근
① 남성에게 위안이 되는 순진한 존재 ② 겉으로는 여성 해방의 이념에 동조 ↔ 실제로는 교묘하게 남성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지속 내지 강화 ③ 한국적인 어머니상 : 자기 희생으로 평생을 일관 ④ 신비롭거나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단정하여 찬양하거나 비난 ⑤ 작가의 대리인 : 주인공의 입을 빌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냄		1) 대립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① 가부장적 인습과 여성의 위상 정립 ②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충돌 ③ 창조적 삶과 순응적 삶의 내적 갈등 2) 동반자적 위상속에서의 여성자아의 실현 ① 계급의식의 타파와 결혼 ② 매춘과 여성해방 ③ 주체적 인식을 통한 여성의 자기 정체성 획득

--	--	--

◆ 보충 핵심 포인트

☞ 〈서양 여성운동의 흐름〉

17~8세기에든, 그 이전, 이후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정에 속해 있다는 가설은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

18세기 중·후반, 특히 19세기에 들어,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사적 환경의 현저한 변화는, 여성을 가정 안에 고립시키면서 가정과 직장을 분리시켰다. 공장의 기계화와 가내수공업의 쇠퇴로, 직업의 공적인 세계는 가정의 개인적인 세계로부터 전에 없이 현저하게 분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계몽주의로 하여금 이성을 공적인 영역과 동일시하고, 비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개인적인 영역 및 여성의 영역과 동일시하도록 부추기게 되었던 것이다.

18세기 페미니스트들의 등장은 당시 서구 전역을 휩쓸고 있던 혁명적 열기의 흐름, 모든 국민은 통치권이 개입하지 못하는 어떤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사상을 담고 있는 <미국독립선언서>(1776)와 <프랑스인권선언서>(1789)의 철학적 근거와 관련된다.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에비게일 애덤스는, 국가를 위해서 작성한 <신법률안>이란 글에서, 여성들도 어떤 목소리나 표현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그녀의 남편인 존에게 제안

1790년 미국의 주디스 서전트 머리는, <성의 동등성에 관하여>출간

1791. 9 올림프 드 구즈, <여성의 제 권리>라는 파리 가두 팜플렛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됨

1792년 1월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최초의 주요 업적인 <<여권옹호론>>이 완성되는데, 현재까지 이 저작은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고전으로 간주된다.

19세기 미국 여권운동의 두 지도자인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과 수잔 B. 앤터니는 그들의 선배인 울스틴 크래프트, 라이트, 그림케가 표명한 계몽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련시켰다.

미국의 여성들은 마침내 <19차 헌법수정안> 혹은 <앤터니의 헌법수정안>이 비준된 때인 1920년에 투표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예해방령>(1863)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않았으며, <참정권수정안>은 여성을 위한 평등권을 아무것도 확립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들 중에는 19세기 여권운동을 상대적인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투표권이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탄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들에게 경제적 기초를 확립해주고 어린이 보호에 있어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를 증진시켜주는 숙고할 만한 수단을 부여해 주었다. 이혼법도 자유화되었다. 마침내, 1880년대 까지는 고등교육과 수많은 전문직업으로의 문이 여성들에게도 열리기 시작하였다.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페미니즘이론, (문예출판사, 1993), 13-58쪽.)

찰스다윈의 <종의기원>을 통한 진화이론, 스펜서, 크로포트킨 등의 사상에 힘입어 살렛 퍼킨스

길만은 <<여성과 경제>(1898)>를 통하여, 여성의 종속화는 종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자연스러운 탈선이다라는 사회주의적 다위니즘의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조세핀 도노번, 위의 책 조세핀 도노번, 87-90쪽.)

현대페미니즘 이론의 주요한 연구업적 두 가지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성>>(1949)와 메리텔리의 <<성부 신(聖父神)을 넘어서>>(1973)는 그 연구의 이념적인 전제를 20세기 철학운동인 실존주의로부터 이끌어 내었다.

진정한 실존주의자로서의 드 보부아르는, 여성들을 어떤 도덕적인 선택권을 가진 존재, 불안으로 가득찬 무(無)인 존재(one)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포함하고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독립적인 성공은 그녀의 여성성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참된여성>은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만들기를, 타자가 되기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드 보부아르는, 여성들의 해방, 혹은 성취는, 오직 대자로서, 즉 창조적인 계획들에 이해서 자신의 미래를 구축하는 초월적인 주체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선택을 함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처럼 여성의 이성적 능력의 강화 및 초월을 성취하기 위한 비판적 능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그밖의 다른 리버럴 페미니스트들과 연결되고 있다. 한편 메리 텔리는 어떤 ‘실체화된 초월성’이나 지고한 남성존재로 고정된 이미지로서의 신의 이념을 거부한다. 그녀는 여성운동을 일종의 ‘영적인 혁명’으로 보고 있다.

(조세핀 도노번, 위의 책 조세핀 도노번, 217-235쪽.)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들보다 앞선 시기의 선배들을 상기시키는 여러 페미니스트운동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이 그들의 공권력의 지위만을 상징하면 정치는 자동적으로 ‘정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선배들과는 다르다.

(조세핀 도노번, 위의 책 조세핀 도노번, 314쪽.)

☞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실학에서 이미 극단적인 정절관에 비판이 가해졌고 천주교의 전파도 유교적 여성관의 동요를 가져왔다.

더욱이 19세기에 창도된 동학에서는 남녀의 동등성을 주장하여 누구나가 신앙에 따라 도인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1876년 강화조약 이후에 시도된 정치적 개혁은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일제 주도의 공업 자본주의화의 진행에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접합되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낳게 된다. 개화당에 의한 개화상소, 당시 지식인에 의한 여성 인권 선언과 여성 지식인들의 활동, 그리고 여성교육 기회의 확대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바탕한 것이다.

1900년대 초반은 개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자유주의적 이상론이 한껏 펼쳐진 때였다. 때맞추어 선교사들에 의해 여성 교육을 위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사립학교가 세워지고, 여성 단체들이 결성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의 진보적인 분위기와 근대적 여성 교육의 결과, 이른바 ‘신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초로 전통적인 여성상을 대체할 현대적 여성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주로 잡지·신문에 기고하며, 여성단체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인 유교 의식을 깨트리고자 운동을 전개하여왔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자아의 발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과 ‘신정조론’이 중심을 이룬다.

일군의 ‘신여성’, 특히 많은 여성기자, 문인들 역시 급변하는 사회 정세에 동참하여 여성운동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들은 서구의 자유연애론자 엘렌 케이의 결혼관을 소개하면서 “결혼은 사랑이 무제가 되고 법률이란 형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랑이 끝났을 때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그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라할 수 있다”(노자영)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원주 역시 1924년 <우리의 이상>이란 글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성 도덕에서 벗어날 것을 주창한다.

초기 소수의 신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정생활 양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선각자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 신여성의 가족 상황을 보면, 첩과 후처로 들어간 이들이 많으며, 기독교 계통의 소명 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독신이거나 만혼을 한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여성들이 사회적 여론 조성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후에 이혼을 하는 등으로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1920년대 후반부터 급진적 신여성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회적 지탄이 더욱 거세어지며, 주로 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과 “일시적 연애를 위하는 결혼과 순간적 감정에서 나온 이혼의 감행”에 대한 비난이 주 내용을 이룬다.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신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해방의 성취를 목표로 삼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계급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본질적임을 주장하며 여성운동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사회주의 탄압정책 아래 ‘근우회’의 해체를 계기로 하여 여성운동이란 것은 결국 기독교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계몽운동, 여성 교육 보급 활동 등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개성과 인격의 존중을 부르짖어온 제1기 여성해방운동가들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부리를 내리지 못한 채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편에서 공격을 받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이후 여성의 독립적 삶을 부르짖던 분위기는 퇴색하고 여성의 ‘고유한’모성적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는 신복고주의가 일본의 황민화정책과 1930년대의 식민지 정책에 의한 한반도의 공업화 과정을 통해 대두된다. 식민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일본의 회유책이 성공을 거두데 되면서 근로자 등, 현대적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분화가 생기고 도시 중산층, 도시 핵가족이 등장하게 된다. 사회여론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차 직업 부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모성애를 강조하게 된다. 잡지 <<여성>>에 실린 “모성은 다만 여자로서만 최고의 천직이 아니라 진실로 인류로서의 최고의 성직이다”는 이광수(1936)의 ‘모성찬양론’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1930년대 <<삼천리>>에는 “가정 일을 전적으로 맡아하며 가계를 절약하며 사치하지 않고 질

서 정연하게 가정을 꾸미고 어린애를 청결히 씻기며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꽃같이 방글방글 피어오르는 미소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내”를 이상적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자본주의가 진전함에 따라 발생한 부부 중심의 가족관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며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양치현모’상이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업화가 진행되어 남성들이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기대는 달라져갔다. 이른바 엘리트 여성은 결혼을 시집이라는 가족 집단보다는 능력있는 남성과의 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역할을 근대적 직장을 가진 능력 있는 남편을 내조하고 그 아이를 기르는 일에 전념하는 현대적 가정주부의 역할에 한정시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근대 교육을 받은 층에서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움직임 속에 여성들은 전통적인 자신의 자리인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여성은 다시 전쟁과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바깥 활동을 해야 했다. 이러한 혼란기를 통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실제적 기대치는 낮아졌다. 피난살이에서는 남성은 성적 상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그것으로 족했다. 살아있어만 주면 족한 존재였던 것이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배경 어딘가에 비껴서 있는 듯한 남편상”, 또는 김원일의 가족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여전히 당시의 가족에서 어머니가 중요했던 반면 아버지가 부재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지속된다. 한층 높은 생활층을 향해 돌진해가는 가족의 중심인물로서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남의 가족에 뒤떨어질새라 그들이 길러온 저력을 한껏 발휘해 갔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며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늘려왔다. 일한 여성의 ‘지위 재생산’활동은 후발 공업국에서 대체로 나타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사회 구조적 여건에서 자극되어온 활동 영역이다. 특히 한국의 여성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에 전력 투구해온 것은 전통적인 부덕을 내면화시킨 가족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지속성의 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역시 자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적 원리가 나타났다. 일제시기를 거쳐 형성된 ‘현모양처’이데올로기는 최근 낭만적 사랑을 강조한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의 형태로 발전된다. 7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러한 ‘핵가족주의’를 상당히 보편화시켰으며 그 존속의 기제도 전통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띠게 되었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90~106쪽.)

1. 대립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

- 1980년대 여성해방 문제에 대한 관념적 접근을 시도한 소설
- 박완서 : 70년대 작가로서 급작스런 근대화가 빚은 인간소외와 인간상실에 대한 관념적 접근과 도시생활의 소시민적 생활안주가 가져다주는 허망함이나 획일적 삶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경향의 소설을 주로 형상화 했다. 특히 소시민을 등장시키거나 중산층을 등장시켜 왜곡된 사회현실의 문제를 꼬집는 경향을 보인다.²⁾

◇ 작품 소개

- 차문경이라는 35세의 교사 직업이 개성 강한 독신녀,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여자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꿈(가정, 자식, 남편의 사랑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의 독신 남자인 혁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혼하지 못한 채 파경에 이른다. 이런 차문경의 꿈에 대한 좌초는 자식을 통한 모성애로 극복되지만 자식을 뺏아가려는 혁주의 소송으로 꿈이 다시 깨진다.
- 소설집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여자가 꿈을 못 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꿈임없이 새로운 꿈을 창출해 내는 게 어찌 여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이지요."

1) 가부장적 인습과 여성의 위상 정립을 위한 이념간의 대립양상

(1) 가부장적 인습 - 작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 ① 남성의 편리함대로 사회구조가 왜곡
- ② 남성들의 가치관에 근거해 판단,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여성소외 현상이나 여성억압 현상이 출현한다는 점

(2) 여성의 위상 정립 - 일탈 행위

- ① 일탈행위 : 차문경이 남편도 없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남성의 무책임성과 여성에 대한 억압, 무언의 폭력성에 대한 거부 내지 반항의식에서 오는 행동
- ② 남성 편위 위주의 잘못된 사회구조에 대한 여성의 위상 정립을 위한 행동적 저항

2)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충돌

(1) 정신적 가치

- ① 혼인의 장애적 요소 - 왜곡된 관습제거, 성차별제거 등에 관해 많은 관심

2) 제 5장 작품 감상, 7. 엄마의 말뚝 참조

- ② 차문경 : 이념적, 정신적 가치에 더 충실한 이념형인물
- 행정사무 능력도 빠르고, 교육자로서의 신념도 강한 인물
 - 학부모의 돈봉투 거절 : 교사사회에서 일탈, 학부모에게 비난

(2) 물질적 가치와 충돌

- ① 아들 문혁 - 커가면서 물질적 유대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나타나자 풍요에 대한 선망이나 성취, 물질적 소유에 대한 갈망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됨,
-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하려는 차문경을 위협 : 정신적 가치를 고고하게 지켜 나가려는 신념, 개성 있는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위협
- ② 남편 김혁주와 자(子)인도 청구권 소송 : 경제적 여건이나 아버지를 존재하게 만드는 호적입적 등
- 강인한 신념과 투철한 행동력 : 문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사조정실과 판사에 의한 심판과정 등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인습에 과감하게 맞서 여성의 자아 실현과 새로운 위상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차문경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3) 창조적 삶과 순응적 삶의 내적 갈등

- ① 한국여성해방운동에서 중요한 점 - 여성 중심주의적 전망을 획득해 나아가는 것. 여성의 경제권 확보, 주체성 확립, 뚜렷한 주관에 의한 모성 획득, 노예적 근성타파, 극단적 수동성, 순종성의 탈피, 편협된 사고로부터의 도피 등의 성취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 ② 개인적 자아(identity : 자기동일성) 성취 여부 - 야우스 작품 수용에서 기대지 평의 재구성을 전제로 함.

◆ 보충 핵심 포인트

☞ 기대지평 :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전제를 총망라해 이야기하는 것, 기대지평은 수용자가 지닌 창작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킴.

- ③ 지평의 전환 : 독자는 차문경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지평의 전환을 초래, 차문경의 창조적 삶과 순응적 삶의 내적 갈등양상을 보여 주는 것
- ④ 창작 의도 : 입으로만 여성해방을 외치고, 현대적 여성상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에 맞부딪쳐서는 남성에 의존적이고 남성 구미에 맞는 성적 매력과 성격을 창조하려는 이중적 가치의 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 독자층에게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꿈과 환상에서 깨어날 것을 요구

◆ 보충 핵심 포인트

☞ <페미니즘 비평의 기본원리 (W.W. 모간)>

1. 문학작품이 이념의 축 또는 이데올로기의 축을 따라 창조된다는 원리.
2. 한 작가의 작품은 성에 이해 결정되거나 상당한 정도로 성에 제약된다는 원리.
3.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이 전통적으로 남성과 남성원리에 의해 지배된 나머지 여성적인 것의 가치와 의미를 배제하였듯이 무학도 같은 종류의 나쁜 전철을 밟아 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성에 의한 실지(失地)회복을 실천하려는 운동에 관련된 원리.

(엘레인 쇼왈터 외 著, 김열규 외 共譯,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문예출판사, 12~13쪽.)

2. 동반자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 윤정모의 『고삐』를 중심으로 ◇

- 여성의 노예 근성의 탈피 등 범민족 차원의 총체적 역사인식 속에서 여성해방의 고삐를 풀자는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봄
- 『고삐』: 장편소설 1부-고삐, 2부-뒷길, 그 안개 별판, 3부-고삐를 끊고 당당히

- ① 소설의 여주인공은 신분계층이나 계급의식이 전혀 상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화해적 양상 속에서 여성 자아실현을 위해 내적 자각을 이루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
- ② 민족 분단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의 매춘과 여성해방 문제의 진보적 해결을 모색하는 집단적 소외 현상을 다룬다는 것이 개성
- ③ 고삐는 여성문제를 제국주의와 약소민족, 이데올로기 갈등과 자주성 확보, 매춘과 여성해방, 계급의식의 타파를 위한 대안 제시

◆ 보충 핵심 포인트

☞ 윤정모

윤정모(尹靜慕) : 1946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 1968년 장편 <무늬져 부는 바람>을 펴내며 작품활동을 시작 하였고, 1981년 여성중앙 중편 공모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된 바 있다. 그는 분단의 현실에 처한 인간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그려 내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창작집으로 <밤길>, <님>, <빛>, <딴 나라 여인> 이 있고, 장편소설로 <나비의 꿈>, <그들의 오후>가 있다.

1) 계급의식의 타파와 결론

- (1) 줄거리 - 한밤중에 남편 한상우가 기관원에게 불법 연행되는 것으로 시작, 술집 스트립걸 출신의 강정인과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역사선생 한상우의 인간적인 결혼에 초점을 맞춘 상황 소설
- (2) 특징- 현대판 춘향전의 논리를 담고 있음
 - : 80년대 한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파악하고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창녀와 지식인의 로맨스 설정
- (3) 만남과 결혼의 의미
 - ① 결혼은 경제적 소외계층이 느끼게 되는 계급의식 타파
 - ② 자본주의 풍조 속에서 진정한 사랑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 휴머니티를 담아 젊은이다운 건강한 민주의를 보여줌
 - ③ 이데올로기 갈등의 희생계층과 상우로 호칭되는 아픔을 딛고 분단 현실을 극복하려는 진보적 행동주의자의 진정한 만남 상징

2) 매춘과 여성해방

(1) 매춘의 원인

- ① 루브너(Rubner) - 출생시의 잘못으로 인한 변태 등 인간적인 결합
- ② 바데(Th. Bade)
 -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상황을 들음,
 - 매춘을 양산하는 끝없는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바로 현재의 사회 상황속에 내재
 - 지식인 계급의 자본주의적 붕괴를 그 원인
 - 경제적 상황과 매춘을 직접 연결시키는 탁월한 견해
- ③ 포크(Fock)와 세베루스(Heinrich Severus)
 - 문명화된 현대의 여러 제도들의 불가결한 상호 보완물로 인식
 - 반사회적인 불만세력만을 양산하게 되므로 매춘을 국가가 적절히 통제하여 그 역기능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는 것

(2) 『고삐』 2부 - 뒷길 그 안개별판

- 정인이 남편 한상우가 구속되어 있는 진주교도서를 찾아가는 동안 차창 밖을 보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 행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내용, 주 내용은 매춘이 배경

(3) 여성해방

-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억압성의 현장을 목격한 정인은 분노를 느끼지만, 그 생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계속
- 매춘의 동인 : 매춘이 외세, 경제적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대 사회구조의 왜곡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계급성에 따라 그 창녀의 배치되는 곳이 달라진다는 인식에 도달

- 깨달음 : 여성해방운동이 여성의 억압성과 착취로부터 능동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때, 여 주인공 정인이 중국에는 남편 한상우의 도움으로 현실 타개적인 여성해방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

3) 주체적 인식을 통한 여성의 자기 정체성 획득

① 아데나

- 여성들은 지배집단에 비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구사력을 갖지 못한 점, 즉 병어리됨(mutedness)의 상태에 있음
- 『고삐』의 정인도 병어리됨 상태 :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체제에서의 소외 현상

② 정체성 획득

- 강정인은 남편 한상우와 대화를 통해 정체성 획득, 자아실현하게 됨
- 고삐를 끊고 당당히 자율적 깨달음에 의한 중대한 성격의 변화 양상
- 여기에서 작가 윤정모가 말하려는 것은 여성해방운동이 단순히 남녀관계의 동등

③ 작가(윤정모) 의식

- 공동체적 과제 : 여성 회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왜곡된 역사현실, 분단상황, 미·소 등 강대국의 힘의 논리, 독재상황과 줄기찬 민주화 투쟁 등의 사회현실과 맞물려 돌아가는 공동체적 과제라는 인식의 바탕을 제기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3. 마무리

(1) 1980년대 페미니즘 문학

- 지나친 ‘환상적 낙관주의’의 무지개빛을 띠고 있는 것이 한계

	박완서 (1989)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윤정모 (1988) 『고삐』
	대립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동반자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개인적 소외문제	민족 분단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매춘과 여성해방 문제의 집단적 소외 현상
	산업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체제 속의 억압된 현실 상황이 여성들의 삶의 양상을 얼마나 왜곡, 파멸시키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진단	민중적 사고와 현실 비판의 좌파적인 안목에서 매춘과 결혼, 외세 이데올로기 갈등과 여성해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총체적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다룬 작품

문제점	① 차문경의 성격 - 너무 일관성이 없음 ② 여성신문 연재소설로 - 흥미 본위로 인물 성격 묘사 ③ 우연성 남발	① 강정인의 체험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가와 리얼리티 결여의 문제 ② 여성해방과 여성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라는 막중한 주체성과 정인의 매춘이 주는 성적 타락상의 통속성이 공존함으로 균형감 상실 ③ 우연성 남발 ④ 작가의 고의적 개입이 너무 지나침, 매끄럽지 못한 문체, 짧은 대화체의 빈번한 반복
작품의 의미	· 여주인공의 삶의 몰락 과정 - 독자 스스로 보수성과 의타적인 태도에서의 꿈을 꺾 것	① 매춘의 문제를 외세와 관련지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풀려고 시도 ② 계급의식 타파를 위해 한상우와 강정인의 결합 시도가 중압감을 느끼게 함

(2)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

- 문민정부 하에서의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비관적 허무주의’의 양상

- ① 양귀자 『나는 소망한다-내게 금지된 것을』 (1992)
 - 남성 중심의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한 실험적 도전
 - 여성 수난사 고발하기, 억압 구조 바꾸기, 환상 제거하기
- ②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3)
 - 가부장제적 종속, 억압체계에 대한 맞섬과 절망
 - 고립에서 자립으로의 줄타기, 체념하기와 자생적 현실도피
 - 억압적 구조로부터 일탈하기
- ③ 공선옥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1993)
 - 만복과 기다림의 체험에서 탐색의 체험으로의 전환 모색
 - 운명적 절망을 표현하기, 계급을 뛰어넘기, 탐색으로 전환하기

제 5장

작품 감상

1. 「장화홍련전」

- 가정소설로 繼母(계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 연세대 도서관 소장 29장본과 紫岩新刊本(자암신간본)은 내용이 대동소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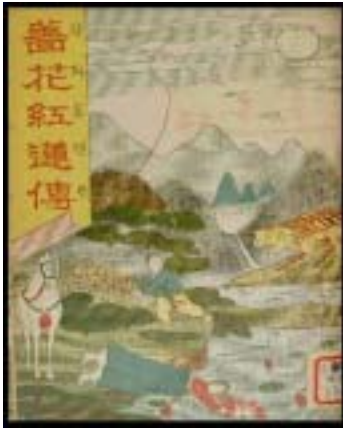
(1) 문학사적 위치

- ① 실전이 소설화됨 : 가재 전동홀(全東屹, 1610~1705)이 효종 때에 평안도 철산 부사로 가서 배씨의 딸 장화와 홍련의 원사 사건을 처리한 실재담을 소재로 이루어진 작품, <朝鮮名臣錄(조선명신록)>에 기록됨
- ② 조선조의 양반사대부계층의 부녀자계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설
- ③ 짜임새 있는 작품구조로 문학사적 위치가 확고

(2) 이본

(제 2장. 가정소설의 작품분석과 그 의미, 보충 핵심 포인트 참조)

- ① 한글본(한문본에 앞섬)
 - 필사본(7~8종)
 - 목판본(모두 경판본 3종)
 - 신활자본(1915 ~ 59년까지 20여종) : 1915년 세창서관본과 동명서관본
1917년 박문서관본
1923년 태창서관본 등
- ② 한문본 : 박경수본(현재 부전), 박인수본(1865년)
- ③ 국한문본 - 전동홀의 후손인 전일구가 지은 전기 광국장군전동홀실기 중 일부에 장화홍련전의 내용이 전함
- ④ 개작본 - 자암본, 세창본, 영창본 등을 대본으로 하여 아동을 위하여 개작



◆ 보충 핵심 포인트

국문본과 한문본을 비교해 보면, 국문본은 한문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플롯을 많이 가미시켜 어느 정도 소설의 표현을 갖추었다. 實話(실화)나 한문본에서는 볼 수 없는 靑鳥(청조)의 案內(안내)라든가, 호랑이가 장쇠의 다리와 귀를 베어 먹는 事件(사건)이라든가, 홍련이 꿈을 꾸고 언니의 죽음을 알았다든가, 결미에 가서 장화자매의 화신이 誕生(정생)하였다든가 하는 사건은 전부 작자의 독창성을 발휘한 허구적인 구성이라 하겠다.

(김기동 저,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509쪽)

(3) 소설구조

전반부 ← 장화와 홍련이 물에 뛰어드는 장면 → 후반부	
계모형 소설	공안류 소설(송사 소설)
- 같은 계열 작품 : 황월선전, 김인향전, 양풍운전, 조생원전, 김취경전, 창선감의록, 김진전, 정을선전, 어룡전, 반씨전	- 같은 계열 작품 : 김씨열행록, 김인향전, 정을선전, 진대방전, 은애전, 옥낭자전, 길녀, 이학사전, 월봉기, 옥소기연, 정수경전, 왕경룡전, 이운선전, 신계후전, 삼사형입황천기(삼설기), 왕랑반혼전, 서대주전, 황새결송, 녹처사연회, 蛙蛇獄案(와사옥안), 까치전, 박문수전, 柳淵傳(유연전)
애련의 삶, 인고의 삶(인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귀신)

* 公案소설 - 법정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는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그 원천이

중국 송사 포승에서 유래한다. 이상화된 재판 이야기의 집성인 용도공안(龍圖公案) , 포공안(包公案 , 용공안(龍公案) 등 삼협 오의(三俠五義)에 나타나는 포공(包公), 즉 이상화된 재판관의 기지·논리적 추리·심문 방법 등의 기록적인 재판 공안 문서를 추리의 흥미로 소설화한 것이 바로 공안 소설이다. (이재선, 한국문학 주제론 ,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108쪽)

(4) 작품구조

- ① 삼원적 구조 : 천상계 → 지상계 → 중간계
- ② 꽃 상징 : 피어남 → 만개 → 시들 → 떨어짐 → 피어남 (연속 반복)
- ③ 수축(죽기 전) → 정지(물에 뛰어듦) → 확산(죽은 후 고을 군수를 찾아감)

(5) 설화

- 적층문학적 요소를 가짐
- 태몽설화, 적강화소, 청조의 길안내 전설, 원혼의 공청출현설화, 재생·환생설화

2. 「구의산」(九疑山)

- 구의산(九疑山)은 매일신보에 1911. 6. 21~9. 27일까지 연재 후 1912년 신구서림(新舊書林)에서 간행되었다

◇ 작품 소개 ◇

서판서는 부인이 아들 오복이를 낳고 죽자 이동집을 후취로 맞아 또복이를 낳았다. 이동집은 오복이를 고양(高陽) 김판서의 딸 애송이와 결혼시킨다. 그리고 이동집은 혼인 첫날밤 하인 칠성이를 시켜 오복이의 목을 자르게 한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된 신부 애송이는 남장(男裝)을 하고 진범을 찾던 중 칠성어미로부터 단서를 얻고 서판서에게 고한다. 서판서는 이동집의 자백을 받고 그녀를 고발한 다음 팔영산 절로 입산한다.

첫날밤을 지내고 이튿날부터 과부가 된 애송이는 태기가 있어 아들 효손이를 낳았다. 효손이는 커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팔영산에서 서판서를 만나 조손(祖孫)이 함께 동행하여 칠성이를 붙잡게 된다. 그런데 칠성이는 지난날 이동집의 강요로 오복이를 죽이러 가던 도중 불의(不義)의 남녀를 만나 그들을 죽이고 남자 시체를 오복이의 신방에 넣은 뒤 오복이를 구하여 일본 규슈[九州]로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오복이는 15년간 공부한 뒤 귀국하여 온 집안이 다시 모여 행복하게 산다는 줄거리이다. 추리소설과 같은 극적 구성에 특색이 있다. 1968년 을유문화사 간 《한국신소설전집》 권2에 수록되어 있다.

(1) 작가 소개

- 이해조(李海朝 1869~1972) : 경기도 포천 출생, 호 : 동농(東農)·열재(悅齋), 필명 : 牛山居士(우산거사)·善飮子(선음자), 언론에 관계함. 인조의 셋째아들 인평대군(麟坪大君)의 10대손이다. 어려서 한문공부를 하여 진사시험에도 합격했으나 신학문에 관심을 두어 고향인 포천에 청성제일학교(靑城第一學校)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활쏘기와 거문고타기가 취미였으며, 특히 국악에 조예가 깊었다. 1906년 11월부터 잡지 《소년한반도 少年韓半島》에 소설 〈岑上臺(잠상대)〉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한 그는 주로 양반가정 여인들의 구속적인 생활을 해방시키려는 의도로 실화(實話)에 근거하여 소설을 썼다.
- 이인직, 최찬식과 더불어 신소설 3대작가에 들어감
- 제국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보, 국민신보 등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많은 작품 발표
- 작품 : 작첩·계모형의 가정비극적 주제를 보여주는 〈빈상설〉(1908)·〈春外春(춘외춘)〉(1912)·〈九疑山(구의산)〉(1912)이나, 미신타파를 내세운 〈驅魔劍(구마검)〉(대한서림, 1908), 일반적인 남녀이합(男女離合)에 중점을 둔 〈花世界(화세계)〉(1911)·〈鴛鴦圖(원앙도)〉(1911)·〈鳳仙花(봉선화)〉(1913) 등의 많은 작품들도 모두 봉건부패 관료에 대한 비판, 여권신장, 신교육, 개가 문제, 미신타파 등의 새로운 근대적 의식과 계몽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고대소설의 전통적인 구조를 기본바탕으로 엮어나간 전형적인 신소설들이다.
- 판소리계소설 6마당을 재작 : 춘향전 개작 - 『獄中花(옥중화)』(1912)
심청전 개작 - 『江上蓮(강상련)』(1912)
별주부전 개작 - 『兎의肝(토의간)』
흥부전 개작 - 『燕의脚(연의각)』(1913)
『昭陽亭(소양정)』
- 번안 : 베르느(Verne, J.)의 〈鐵世界(철세계)〉(1908) 및 〈華盛頓傳(화성돈전)〉(1908) 등

(2) 특징

- ① 조생원전과 기본 줄거리에서 일치(페러디), 추리 탐정 소설 기법
- ② 차이 - 신혼 첫날밤에 살해된 남편 조생원전과 달리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트릭을 쓴 것이 이색적(추리, 탐정소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

(3) 신소설의 특성

- ① 경찰치안 통제력(친일적 요소), 개화사상 미화위해 유교사상보다 근대 재판과정 나타남, 악행은 재판을 받는다는 형법으로 나타남(합법적 보복)고소설과의 차이점, 재판-권선징악(고소설의 대치)
- ② 유학이야기가 많이 나옴, 여성의 교육(새로운 주부관 나타남)
- ③ 자유결혼관, 개가론, 반미신 운동, 과학적 세계관 전파
- ④ 여성의식 고취 - 김씨부인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주체,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벗어나 개체 의식을 높임
김씨 부인 적극적, 능동적으로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여성의식 성장 잘 보여줌(김

씨 부인의 페미니즘적 역할이 특징)

(4) 재판과정이 나온 작품

- 구마감, 화세계, 구의산, 巢鶴嶺(소학령), 봉선화, 비파선, 추월색, 안의성, 능라도

◆ 보충 핵심 포인트

1) 구의산과 조생원전과의 관계

<구의산>은 <조생원전(필사본)>의 이본인 <김씨열행록>과의 관계가 주목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와 관련이 있으며, 이 설화의 각편 중에는 <구의산>처럼 진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아들과 재회하는 내용으로 된 것도 있다. <구의산>은 일본인 구원자의 등장 및 계모 이동집과 그 소생 또복을 법소로 보내어 응징하는 등의 부분적인 변개를 제외하고는, 전대 계모 이야기의 한 하위유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4), 34~35쪽)

2)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는 가족갈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서사문학의 흐름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재현되면서 다양한 작품을 생성하고 있다. 전반부는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화 양상을 보이는 <사명당전>의 전반부와 서사를 이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조생원전(필사본)>과 동일하다. 특히 후반부에서 주목되었던 며느리의 열행은 <성부인전>을 비롯하여 <김씨열행록> 등의 이본을 생성해 내고 있다. 나아가 개화기 소설 <구의산>과 같은 작품 생성도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 설화의 서사문학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생원전>의 이본인 <성부인전>, <김씨열행록> 등에서는 며느리가 서사의 주체가 되는 변모를 보인다. <조생원전>은 계모형 고소설의 양상을 띠는 필사본과 쟁충형 가정소설로 진행되는 활자본 두 가지가 있다. 교재에서는 필사본을 바탕으로 했다.

(이윤경, 앞의 논문, 95~97쪽 참조)

3. 「경희」

1) 작가 소개

(1) 晶月 나혜석(羅蕙錫, 1896~1948)

-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 최초로 소설을 쓴 여성작가
- 독립운동을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는데 적극 활동
- 1922년부터 시작된 조선 미술 전람회에 매년 출품하여 입선
-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봉건적 인습에 지배받는 남편과 조선사회를 고발하는 『이혼 고백장』 발표
- 나혜석의 삶은 리얼리스트 채만식에 의해 ‘인형의 집을 나와서’라는 소설로 창작되기도 함
- [학지광]에 여자도 인간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계몽적 논설을 발표하기 시작
- 1918년 도쿄여자친목회가 낸 『여자계』에 구여성을 설득하여 신여성의 각성된 삶의 방식에 동의하게 만드는 실천적 삶을 그린 단편 경희를 발표
- 1918년 일본에서 귀국한 나혜석은 김마리아, 황애시덕과 함께 1919년 3.1독립운동을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는 데 적극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다섯 달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옴
-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매년 출품하여 입선함
- 1926년 [천후궁]이 특선 당선
- 여성의 자아 각성과 권리를 주장하는 글들을 발표
-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서양화가이며 여권운동의 선구자이자 진보적 사회사상가

나혜석이 페미니스트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함께 여성운동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나혜석의 학창시절인 1900-1910년대에는 일제식민치하에서 구국에 족적 차원의 민족주의 여성운동이 발단되었고, 그녀의 결혼기인 1920년대에는 자유주의 여성해방운동이, 이혼 후 방황기인 1930년대에는 자유주의와 함께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이 파급되었다. 1896년 태어나 1948년에 5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녀 일생을 놓고 볼 때 나혜석은 전기 반생은 민족주의 페미니즘, 후기 반생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시대를 살아온 근대한국여성운동사의 목격자이자 실천자인 셈이다.

(윤인경, 나혜석 문학의 여성의식 연구 : 「경희」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년, 12쪽.

(2) 작품

- ① 14년 재일본 도쿄조선유학생 학우회 기관지 『학지광』에 논설 발표
 - 여자도 인간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계몽적 논설
- ② 18년 도쿄여자 친목회 『여자계』(2호), 『경희』 발표

- 구여성을 설득하여 신여성의 각성된 삶의 방식에 동의하게 만드는 실천적 삶을 그림
- ③ 『여자계』(3호) - 『희생한 손녀에게』
- ④ 21년 『규원』
- ⑤ 26년 『원한』
 - 남성의 방종과 여성의 희생을 그린 비극적인 소설, 술자리에서 자식의 혼약을 맺는 아버지의 무책임함, 남자의 방탕을 남자다움으로 묵인하는 습관 과부로 사는 여자의 외로움, 강간을 당하고도 여자만 도덕의 피해자가 되는 일방적 윤리구조 등을 문제 삼음
- ⑥ 36년 『현숙』
 - 카페 여급인 주인공 현숙의 이야기
 - 짝막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인간 성격의 이중성을 포착, 나혜석의 파란 많은 인생살이가 배어 있음
- ⑦ 37년 『어머니와 딸』
 - 나혜석의 마지막 작품, 구여성인 어머니와 신여성인 딸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그림

2) 경희 - 『여자계』(2호), 1918.3. 발표

- 1) 경희라는 신여성이 봉건적인 인습과 투쟁을 벌이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

소설은 선불리 남성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의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오해, 의식에서 앞서가는 여성이 범하기 쉬운 관념적 선진성을 비판하는데 힘을 기울임
- 2) 눈여겨 볼만한 장면 - 경희가 아버지와 결혼 문제로 대화하는 장면(이러한 외부로 향한 당당한 선언 뒤에 다시 진지한 내면의 갈등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회의가 뒤따름으로 해서 이 선언이 무게를 가짐
- 3) 담화적 특징
 - 가부장 사회에서 갈등하는 여성 문제의 인식과 여성해방의 당위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자기 다짐
 - ① 고백체 - 자기 확신의 언술 자체가 개아의 함몰이 아닌 주체성 인식으로 신여성의 기표
 - ② 묘사 중심 - 주로 여성 공간인 안방·부엌·뒷마루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재로 인물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묘사 중심의 소설
 - ③ 병치법에 의한 공간지향형 담화구조
 - ④ 교훈성 담화 - 간접설득의 계몽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보충 핵심 포인트

나혜석의 자전적 소설인 「경희」는 일본여자유학생인 주인공이 전통적인 결혼과 평범한 여성의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가정생활이 개혁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성의식의 전환을 주장하며 본인 스스로가 바느질 잘하고 부엌일 잘하며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애롭고 학교에서 배

운 음악의 운율과 색채미학을 생활에 적용하며 공부하는 여학생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신여성들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들이 배우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여 불화의 씨앗인 축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희」는 여성의 자각은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여성이 변해야 생활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의도를 가진 소설이면서 나혜석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의식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나혜석은 구시대의 인습과 신교육 그리고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해방론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특히 일본 유학생 출신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신여성의 이상을 조선적 현실에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 「경희」는 부르주아 계몽문학으로서 동시대 남성들의 소설보다도 사실성이나 구성력 인물의 성격화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근대소설에 등장하는 신여성은 대개 자유연애와 성적방종을 동일시하는 허영에 젖어 쉽게 부호의 첩으로 떨어지는 사이비 근대의식의 소유자로 부정적측면만 부각 되어왔다. 그런데 나혜석은 일찌감치 신여성에 대한 이런 비난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각한 신여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경희」에서 진지하게 모색한 것에서 남성의 시각으로 쓰여진 소설과 구별된다.

(윤인경, 나혜석 문학의 여성의식 연구 : 「경희」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년, 39쪽.)

4. 「레디메이드 인생」

1) 작가 소개 - 채만식

- 채만식(蔡萬植, 1902.6.17~1950.6.11) : 전북 옥구 출생, 호-백릉, 채옹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 중퇴, 동아·조선일보·개벽사 기자 역임. 1924년 단편『세길로』(조선문단 제3호)추천되어 문단 등단. 출세작 : 레디메이드 인생 (34년)『신동아』

- 대표작 : 『레디메이드 인생』(1934), 『痴叔』(1938), 『少妄(소망)』(1936), 『탁류』(1937~1938), 『태평천하』(1938), 『明日』(1935), 『맹순사』(1945), 『미스터방』(1946), 『논이야기』(1946), 『落照(낙조)』(1948), 『도야지』(1948) 등

2) 작품 경향

(1) 주인공 - 인텔리이나 현실 부적응자

① 두터운 식민지적 장벽

- 비판 정신의 표출이 어려움에 따라 내적 자아애로 도피, 객기, 괴팍한 행동 등으로 왜곡된 양상
- 자조적 인물 : 소심한 성격, 무능력, 한숨 등

② 자아 축소로 인해 고등 실업자로 전락

- 대상세계와의 적극적 대결을 회피
- 『레디메이드 인생』, 『明日』, 『少妄(소망)』의 주인공들

③ 화해의 모색

- 소설의 주인공이 대상세계와 갈등만을 야기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 골드만 : ‘인간적 실체(human reality)는 낡은 구조의 해체화와 새로운 전체성을 지향하는 구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

④ 풍자적 수법

- 인텔리 계층을 통한 사회적 모순의 제시와 부정을 통한 긍정의 모색이라는 풍자적 수법으로 채만식 문학의 진수

⑤ 생동감 있는 삶의 ‘明日’을 제시 :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의 설정

- 『명일』의 종석·종태, 『레디메이드 인생』의 창선, 『소년은 자란다』의 영호·영자, 『도야지』의 문태석, 『落照(낙조)』의 영춘, 최균.

(2) 작품

① 『레디메이드 인생』(1934)

- 채만식의 출세작
- 인텔리의 무능감 노출과 그것의 극복을 풍자적인 기법으로 다룸
- 가정소설의 성격 : P가 아내와 아들 창선사이에서 교육문제로 갈등. P는 아들을 인쇄공으로 취직시키려 하고, 아내는 아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키려하는 현실적 가치관을 보여줌. 남편의 이상적 가치관과 아내의 현실적 가치관 갈등

- 레디메이드 인생과 같은 부류 : 치숙(1936), 소망(1936)
- 주인공 P : 정조적으로 순진한 사나이가 아니면서도 정을 찾는 괴벽의 소유자, 자아와 대상세계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게 됨

② 明日 (1935)

- 고등실업자인 범수에게 막연한 기대는 정치적 변화요. 현실적 절박감은 돈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 하루의 끼니를 이어갈 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안서 내각 개편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이중성을 보임
- 생동감 있는 삶의 '明日'을 제시 :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의 설정

③ 痴叔 (1938)

- 역논리 기법 : 칭찬 비난의 전도(아이러니에 의한 풍자)
- '나'라는 관찰자에게 비치는 아저씨 또한 전형적인 인텔리게층이고 관념과 현실의 부조화로 인해 고통을 받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지식인 계층의 삶이 치숙으로 비쳐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시대 상황을 역설적으로 고발

④ 도야지 (1948)

- 국회의원 선거 타락상 폭로, 당선될 줄 알고 미리 잡은 돼지를 낙선 후 돼지를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질문, 정치권과 유권자들을 비판, 풍자

5. 「산골 나그네」

1) 작가 소개

- 김유정(金裕貞, 1908.1.18~1937.3.29) : 강원도 춘성군 출생. 휘문고보(徽文高普)를 거쳐 연희전문(延禧專門) 문과를 중퇴, 한때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금광에 몰두하기도 했다. 1935년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중외일보(中外日報)》에 각각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였다. 폐결핵에 시달리면서 29세를 일기로 요절하기까지 불과 2년 동안의 작가생활을 통해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길 만큼 그의 문학적 정열은 남달리 왕성했다.
- 특색 : 대부분 농촌을 무대로 하고 있고, 주인공은 무지하면서도 순박한 인물이며, 그의 문학은 향토적 서정미가 흐름
- 데뷔작인 《소낙비》를 비롯하여 그의 작품은 대부분 농촌을 무대로 한 것인데 《금 따는 콩밭》은 노다지를 찾으려고 콩밭을 파헤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그린 것이고, 《봄봄》은 머슴인 데릴사위와 장인 사이의 희극적인 갈등을 소박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린 그의 대표적인 농촌소설이다. 그 밖에 《동백꽃》 《따라지》 등의 단편이 있다
- 주요저서 : 《봄봄》(1935년 조광 12월호, 『만무방』 조선일보), 《동백꽃》(1936년 조광 5월호), 《따라지》, 『산골』, 『산골 나그네』, 『정조』 《금 따는 콩밭》

2) 작품경향

(1) 토속적 서정미와 원시적 건강성

- ① 주인공
 - 천진난만하고 소박한 인간형
 - 대부분 농촌 무대 : 주로 토속적인 농촌 생활을 다루면서 식민지 시대의 모순을 아이러니나 풍자적 기법으로 다룸.
 - 1930년대의 빈궁한 농촌 현실의 하층민이 주로 등장
- ② 향토성 짙은 작품 - 『소낙비』, 『산골』, 『만무방』, 『동백꽃』, 『봄봄』, 『산골 나그네』
- ③ 풍자적 기법에 유머 가미, 해학적인 양상- 『봄봄』, 『안해』, 『땡벌』
 -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식민지하 농촌현실을 풍자와 아이러니 기법으로 사실적 묘사
 - 우회적인 풍자기법 : 『만무방』 『동백꽃』
- ③ 무기력한 남성과 생활력이 강한 여성
 - ㉠ 빛에 물려 야반도주 : 『만무방』, 『소나기』, 『산골 나그네』
 - ㉡ 가을 아내의 몸을 품 : 『소나기』, 『가을』
 - ㉢ 들병이로 전락 : 『산골 나그네』, 『안해』
 - ㉣ 도박에 목숨을 걸 : 『만무방』, 『소나기』
 - ㉤ 금을 찾아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허황된 삶 : 『금따는 콩밭』, 『금』

6. 「김약국의 딸들」

1) 작가 소개

- 박경리(朴景利, 1926~) : 본명 박금이.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5년에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計算)》과 1956년 단편 《흑흑백백(黑黑白白)》을 《현대문학》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하여 단편 《전도(剪刀)》, 《불신시대(不信時代)》, 《벽지(僻地)》 등을 발표하고, 이어 1962년 장편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하여 《시장과 전장》, 《파시(波市)》(1964년 동아일보연재, 1965년 단행본 간행) 등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성이 강한 문제작들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 《토지(土地)》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과정에 걸쳐 여러 계층의 인간의 상이한 운명과 역사의 상관성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영어·일본어·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았다.
- 1957년 현대문학 신인상, 1965년 한국여류문학상, 1972년 월탄문학상, 1991년 인촌상 등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에서 주최한 20세기를 빛낸 예술인(문학)에 선정되었다.
- 주요저서 : 《나비와 영경귀》, 《영원의 반려》, 《단층(單層)》, 《노을진 들녘》, 《신교수의 부인》 등이 있고, 시집에 《못 떠나는 배》가 있다. 6·25전쟁 때 남편이 납북되었으며 시인 김지하가 사위이다.

2) 작품 경향

(1) 문학의 변모양상

- ① 『표류도』(1959) : 초기의 장편, 현대문학 연재
 - ‘인간의 생명성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한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작가의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함
- ② 『김약국의 딸들』(1961), 『파시』(1964)
 - 가족이나 사회의 제도 문제 등을 다룸

(2) 작품

- 『김약국의 딸들』 : (1962) 을유문화사, 후에 나남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
- 페미니즘적 시각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운명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
 - 삶의 비극성이 좀더 극대화되는 양상
- 불행의 원인 : 전통적으로 유교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금기시하는 터부를 깨
- 恨의 정서 : 개인적 불행은 가족 문제로 확산되면서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의 정서로 형상화

- 애정 인물 :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충동성이 강한 인물 - 용란
- 의의 : 초기 단편 등에서 많이 보이던 작가의 자전적인 모습이 내재적인 것으로 잠복되어 버리고 표면적인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점이 진전된 현상

7. 「엄마의 말뚝」

1) 작가 소개

- 박완서(朴婉緒, 1931.10.20~) : 경기도 개풍에서 출생. 여중 5학년 때의 담임이었던 소설가 박노갑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한말숙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가 되었다. 1950년 서울대학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6·25 동란으로 중퇴하였다. 1970년 마흔이 되던 해에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이후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6·25전쟁과 분단문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해서 작품화하고 있다.
- 처녀작 《나목》을 비롯하여 《세모》(1971),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워커》(1975), 《엄마의 말뚝》(1980)을 통하여 6·25전쟁으로 초래된 작가 개인의 혹독한 시련을 냉철한 리얼리즘에 입각한 산문정신으로 작품화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 《서 있는 여자》(1985),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억압문제에 눈길을 주게 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주목받았다.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사별하고 가톨릭에 귀의하였으며,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4, 제25회 동인문학상),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제5회 대산문학상),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8) 등 자전적인 소설을 발표하면서 6·25전쟁의 오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 주요 저서 : 단편 〈그리움을 위하여〉(2001, 제1회 황순원문학상)
-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6), 《창 밖은 봄》(1977), 《배반의 여름》(1978), 《도둑맞은 가난》(1981), 《엄마의 말뚝》(1982, 제5회 이상문학상), 《서울 사람들》(1984), 《꽃을 찾아서》(1986), 《저문 날의 삽화》(1991), 《나의 아름다운 이웃》(1991), 《한 말씀만 하소서》(1994),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8) 등이 있고
- 수필집 《꽃씨에게 보내는 갈채》(1977), 《혼자 부르는 합창》(1977), 《살아있는 날의 소망》(1982),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1990), 《어른노릇 사람노릇》(1998)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이 있다.

2) 작품 해설 - 『엄마의 말뚝』(세계사, 2003)

(1) 특징

- ① 분단의 현실을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의 기록
 - 우리시대 억척 어멈의 삶의 기록, 식민지부터 해방, 전쟁 지금까지 지속되는 분단의 현실을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의 기록, 자전적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회고적 형식으로 씀
- ② 서사구조
 -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해석을 기다리는 하나의 텍스트(엄마)와 그것의 해석자(딸)의 그것처럼 긴밀하게 연관, 이런 서사구조는 개별자로서의 어머니의 삶이란 것은 딸의 시선을 통해 복원되

고,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와 긴밀하게 연관

(2) 구성

① 1편 (1980)

- 왜정시대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신교육을 시키기 위해 시댁인 개성을 떠나 서울의 문밖인 현저동 꼭대기에 알량한 여섯 칸짜리 기와집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

② 2편 (1982) 이상 문학상 수상

- 말년에 사고로 넘어진 어머니가 약간의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는 대목, 의용군인에서 도망 나온 오빠의 죽음을 다룸
-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시신을 화장해 고향이 보이는 바닷가에 뿌림
- 딸은 이런 어머니의 행위를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해석

③ 3편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
- 어머니가 당신의 소망(화장)과는 달리 조카의 주도로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 보충 핵심 포인트

1) 박완서 작품의 주제 유형

-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식의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 유형 분류

① '6·25 전쟁 및 분단 체험의 형상화'

- 『부처님 근처』(1973) : '6·25 전시하의 오빠의 죽음'이라는 체험적인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다.
- 『카메라와 위커』(1975) : 출세를 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단연 최고의 목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성은 쉽게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엄마의 말뚝2』 : 3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6·25때 자기 눈앞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아들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어머니의 심층 의식을 조명하여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극적 체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였다.

② 물질 중심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5) : 전쟁으로 파괴된 윤리관이 잘 나타난다.
- 『조그만 체험기』 : 체험의 절실함과 타협하지 않는 양심과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이 결합함을 보여준다.

- 『옥상의 민들레꽃』 : 도시문명의 비인간성과 중산층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람다운 삶의 가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다운 삶의 가치 회복’은 ‘고향으로의 회귀’를 통해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 『만사위』 : 나날이 확대되기만 하는 가치관의 황폐화 현상을 결혼에 대한 어머니와 딸의 생각을 통해 잘 형상화 하고 있다.
-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 작가의 관심이 사회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사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 기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비판 의식이 이 작품의 주류를 이룬다.

③ 생명에의 갈구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 삶의 불모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음
- 『울음소리』 : 생명에 대한 갈구를 회복하는 모습
- 『해산바가지』 : 시어머니를 통해 새 생명에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시어머니가 성별에 상관없이 며느리가 낳은 아기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④ 모성성의 지향에 관한 문제

-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 6·25 전쟁을 통하여 많은 남자들이 죽거나 없을 때 무대소 아줌마, 흑과부, 여인숙 여인, 할미꽃이 노파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인내해 온 모성의 당당함을 보여준다.
- 『공항에서 만난 사람』 : 작가는 그 야성을 삶의 활력으로, 그 가운데서도 일종의 한국 여인 고유의 오만하고 거친 생활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두 번씩이나 과부가 된 것을 비롯하여 그녀가 겪게 된 운명이 사나왔다는 사실보다 그러한 운명에 대하여 그녀가 오만하고 당당한 위엄과 사납고 야성적인 활력으로 대처하는 모성의 강인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황해룡, 박완서 소설 연구 -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주제 유형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 페미니즘 적인 한계 - 호주제에 대한 미온적 인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요즘에서야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이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호주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표면만 약간 훑은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일환으로 여성도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는 결말은 여성 해방에 대한 작가의 뚜렷한 인식을 나타내준다. 하지만, 작가는 남성우월의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호적법과 호주제의 존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 하지 않고 있다.

(송명희, 『상업소설에 나타난 성의 이데올로기』, 문학과 성의 이데올로기, 새미, 1994, 50쪽)

8.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작가 소개

- 공지영(孔枝泳, 1963.1.31~) : 서울에서 태어나 1985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무크지 《문학의 시대》에 시 〈이태원의 하늘〉을 발표한 뒤, 1988년 《창작과 비평》에 중편소설 《동트는 새벽》이 실리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1987년 1월 구로공단 근처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입사 한 달 만에 프락치에게 걸려 강제 퇴사하였다. 같은 해 12월 제 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을구 개표소 부정개표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용산경찰서에서 1주일 동안 구류를 살았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첫 소설인 《동트는 새벽》이다. 199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한 대표적인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주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정신적 공황에 대한 이야기나 가부장적 남성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의 소설을 썼다.
- 주요 저서 : 장편소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1989),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1991),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 《고등어》(1994), 《착한 여자》(1997), 《봉순이 언니》(1998), 《별들의 들판》(2004) 등

2) 작품 경향

(1) 인간에 대한 예의

- ① 80년대 상실과 배신의 시대에 희생된 계층의 아픔과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 치열한 삶의 자세 등이 잘 드러남
- ② 여성잡지 기자인 ‘나’가 데스크의 요청으로 출세한 화가이면서 인도를 맨발로 방랑하고 아프리카 스케치 여행을 하고 돌아온 독특한 체험의 이민자와 공산세력의 찬동 세력이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생활을 50대에 마치고 출옥한 권오규라는 인물 취재를 한 후 누구를 잡지에 실을 것인가 생각하며 80년대 운동권의 투쟁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 ③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인물이 누구인가를 떠올리는 화자의 입장표명을 통해 작가 공지영의 리얼리즘적 사고를 분명히 드러낸 작품

(2) 꿈

- ① 영화감독 김감독과 작곡가 박과 소설가 ‘나’가 낚시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중심으로 세 사람의 공통점인 예술을 향한 신념과 치열한 정신에 관한 상상력을 기술해 놓은 작품
- ② 1980년대의 긴 터널을 지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의 방황을 묘사함을 통해 1990년대의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 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그 여자’인 정화가 1980년대 운동권의 학습 모임과 투쟁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직원의서 겪었던 체험을 서술해 놓은 작품.
- ② 80년대의 반독재 투쟁의 영웅들이 설자리가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과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에 대한 기록만은 분명하게 남겨 두겠다는 작가의 신념이 드러난 작품

(4) 고등어

- ①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불꽃들의 이야기
- ② 세상이 바뀌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로운 환경과 풍요 속에 묻혀 버릴 때 보상받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실감, 그리움으로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인생 기록
- ③ 첫 장-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마지막 장-절망이라는 이름의 희망

3) 작품감상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푸른 숲, 2002)

- ① 페미니즘 문학의 한 단계 진보를 성취. 베스트셀러, 같은 대학의 교내 방송국 동창인 혜완, 경혜, 영선이 20대의 아름답던 로맨스를 뒤로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결국 남성 중심 사회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30대 초반에 이르러 절망의 삶을 각자가 확인하는 내용
- ② 서사 구조 : 인텔리이자 중산층인 세 주부가 가부장제적 억압의 구조가 존속하는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과정을 서로가 상대방의 삶을 들여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이야기
- ③ 문학사적 가치
 - 공시적 시각으로 현실의 차가움의 보듬어 안기를 시도한 참다운 '리얼리즘의 소설'
 - 남성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부부관계의 모순을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페미니즘의 문제를 재해석의 단계로 한 차원 높임

(1) 고립에서 자립으로 줄타기 - 서혜완

- 작품 전체에서 중심을 이루는 서사구조

- ① 사실상의 주인공인 서혜완이 친구 노영선이 자해소동을 벌였다는 동창생 경혜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 스토리의 중심축은 서혜완이 대학원 박사코스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강사생활을 하는 대학 선배 경환과 23살에 결혼하여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다가 아들 현이를 낳은 후 다시 직장생활을 병행하려고 시도하나 돌연한 사건의 발생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전남편 경환의 친구이자 옛 애인인 문선우의 출현으로 방황하는 이야기의 장편
- ② 혜완이 경환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 ㉠ 일하려는 혜완의 생각에 경환이 반대로 갈등이 생기고, 아들 현이가 교통사고로 죽음
 - ㉡ 남편의 지방 세미나 참석 중 찾아온 옛 애인 문선우와 하룻밤을 지낸 때문
- 혜완은 결국 고립에서 자립으로 전환하는 줄타기에서 실패하여 이혼. 하지만 작가는 혜완의 삶을 실패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 하지만 여성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혼이라는 패배라는 데 아이러니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문민정부의 새로운 풍요로운 시대에서의 현실이라고 작가는 <비관적 허무주의>를 거론하면서 비판

(2) 체념하기와 자생적 현실도피 - 경혜

- 또 다른 서사구조로써 경혜의 삶에 대한 천작과 현실 대응 방식

- ① 경혜는 대학 시절 혜완, 영선과 사랑의 줄다리를 하던 교내 방송국 PD선배와의 로맨스를 가

슴에 안은 채 의사남편과 결혼. 하지만 그녀의 삶도 해완 못지않게 파란만장.

② ‘현실 도피적 선택’을 하여 패배적 삶을 자초

-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스스로 ‘현실 도피적 선택’을 하여 패배적 삶을 자초 : 남편에 대한 반동으로 옛날의 대학 선배와 불륜으로써 남성에 대한 복수 시도. 경혜의 불륜은 일종의 자생적 현실도피인 셈. 그러나 그녀에게 남는 것도 <비관적 허무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음.

(3) 억압적 구조로부터 일탈하기 - 노영선

- 소설 스토리에 충격을 주고 박진감 넘치게 하며 긴장구조를 자아냄

① 순결한 영선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

- 부부싸움 끝에 친절에 가 있었던 영선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빌기 위해 집으로 갔다가 남편과 같은 침대에 있는 노처녀 심양을 발견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다가 일하기 위해 와 있는 사람에게 예의 없이 군다고 먹살을 잡히고 폭력을 당함. 자존심이 깃뻛힌 영선은 칼을 들어 자해

② 영선의 삶의 방식은 일종의 <일탈>에 해당

- 부부로서 자신의 순결한 도덕관에 준해서 남편도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자 자신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게 된 것

※ 일탈이란 :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 모랄에 맞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 하는 것을 의미. 노영선의 행동은 남성 위주의 거짓된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처럼 포장되어 억압적 구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데 대한 현실의 모순에 맞서는 일탈행위에 해당

9. 「식빵 굽는 시간」

1) 작가 소개

- 조경란(1969~) : 서울 출생,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졸업.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 『불란서 안경원』으로 문단 데뷔, 같은 해 『식빵 굽는 시간』으로 제1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 수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집착, 인간적 소외되는 아픔 고통에 관심, 결핍(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이라는 관점에서 상실과 상실에 따르는 분노, 심리현상에 관심을 기울임
- 주요 저서 : 『나의 자줏빛 소파』,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2001), 『국자 이야기』(2004), 『환절기』(2003), 『가족의 기원』, 『움직임』, 『코끼리를 찾아서』

2) 작품 경향

(1) 나의 자줏빛 소파(2000)

- 사물들과 삶의 주변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고독과 우수를 투감시키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한층 깊이 있게 보여줌. 등장인물들은 소설 공간 속에서 스치듯 지나가거나 익명으로 마치 사물들처럼 표현되는데 이 같은 표현 기법을 통해 인간관계의 허상과 존재의 실감없음을 은연중에 드러냄

(2) 코끼리를 찾아서

- 결핍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결격이든, 상실과 그것에서 벗어난 분노에 의한 자살과 죽음이든, 오늘 우리의 겪고 보고 느껴야 하는 부정적 심리 현상들에 집착

3) 작품 감상 - 식빵굽는 시간(1996, 제1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 수상)

-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여성 화자를 내세워 인간의 소외와 고독감을 다룸
- 빵이라는 풍요로움의 상징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들의 운명 뒤에 숨어 있는 삶의 비밀을 관계를 통해 보여 주려고 하였음.
- 작중 화자를 통해 작가는 결코 풍요롭거나 달콤하지 않은 빵들의 냄새를 통해 사람살이의 관계를 쓸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 아버지와의 이모, 애인과 여동생의 두 겹 근친상간을 슬쩍 내비치면서도 그 관계를 더 이상 밀고 가려 하지 않음. 도도할 정도로 냉담함. 요즘 젊음에는 운명도 거대 서사도 없다는 듯, 아니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듯, 이야기의 흐름은 곳곳에서 차단, 대신 분위기만은 이야기 없는 행간을 맴 돌

◆ 보충 핵심 포인트

☞ 〈‘황진이’의 문화적 상품 가치〉

최근 장안의 화제는 영화 『황진이』의 개봉(2006년 하지원 주연 KBS 드라마 『황진이』도 30% 시청률로 시청자들의 높은 인기를 누림)과 관객 동원력에 쏠려있다. 그 이유는 북한소설을 1억원의 판권료를 주고 사서 100억을 투자하여 제작한 한국영화가 과연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연이어 개봉한 스파이더맨 3 와 캐러비안의 해적들 3 그리고 슈렉3 등 할리우드 대작들을 물리치고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의 여부 때문이다.

사실 영화 『황진이』는 1986년 배창호감독이 장미희, 안성기 주연으로 제작하였으나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한 사극이다. 물론 배창호 감독 이외에도 이전에 많은 감독들이 만들었지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또 『황진이』는 이태준, 박종화, 안수길, 정비석, 유주현, 최인호, 김탁환, 전경린 등에 의해서 장편소설로 창작되어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작품이다. 사실 북한소설 황진이 가 초기 통일부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남한출판사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데는 필자의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헌신적 노력도 일조를 했다.

『황진이』가 21세기의 벽두에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20세기말과 21세기 초에 강하게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의 ‘장르의 혼재’ 내지는 복고풍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조류의 유입은 퓨전사극의 돌풍을 가져왔다. 이를테면, 드라마 『대장금』의 동남아 전역에서의 인기와 『왕의 남자』의 1200만 명 관중 돌파 그리고 드라마 『주몽』과 『서동요』의 꾸준한 인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패러디적인 요소가 강한 이러한 작품에 의한 문화적 추동력은 새 문화 창조에 대한 창의력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일본과의 독도분쟁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복되었다.

둘째, 전경린의 장편 『황진이』의 인기에서 말해주듯이 페미니즘의 여파로 인한 독자층의 관심 증대를 한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영화의 원작이 될 홍석중의 『황진이』에서 여주인공 황진이는 주체성이 매우 강한 인물로 묘사된다. 즉 자신이 품에 안을 파트너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콘트라 섹슈얼을 즐기는 새로운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미사일 위기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가 뒤흔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화 『황진이』는 남북문화교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작을 쓴 북한 작가를 서울에 초청한다든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봉을 시도하면서 개성관광 상품과 연계시키는 등의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6.7.7 박태상교수 한겨레신문 칼럼 일부수정)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

(기간 : 2004-2006)

차 례	제 목	출제비율(출제문항)				
		04년	05년	06년	소계	계
제 1장	가정소설의 개념과 형성 배경					47 문
	1.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	4	4	7	15	
	2. 조선조의 가족제도	5	3	1	9	
	3. 일부다처제의 위상	7	3	8	18	
	4. 조선조 여성의 존재 위치와 내적 갈등		1	4	5	
제 2장	가정소설의 작품 분석과 그 의미					36 문
	1. 계모형 가정소설의 분석	10	8	9	27	
	2. 쟁충형 가정소설의 분석	3	4	2	9	
제 3장	가정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가족사소설'의 등장					2문
	1. 17세기 말의 가정소설					
	2. 조선 후기 사회의 동요					
	3. 18~19세기의 가정소설					
	4. 가정소설의 통속화 경향		1		1	
	5. 개화기 이해조의 문학			1	1	
	6. 1930년대의 가족사소설					
제 4장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소설사적 변화양상					2문
	1. 대립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1		1	
	2. 동반자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1		1	
	3. 마무리					
제 5장	작품 감상					18
	1. 장화홍련전					
	2. 구의산	1	1		2	
	3. 경희(瓊喜)	1	2		3	
	4. 레디메이드 인생	1			1	
	5. 산골나그네	1	1		2	
	6. 김약국의 딸들	1	1	1	3	
	7. 엄마의 말뚝	1	2	1	4	
	8.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2	3	
	9. 식빵 굽는 시간					

제 1장 가정소설의 개념과 형성 배경

1.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

1. 고소설의 하위장르로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04년 - 1번)

- ① 안확 ② 조윤제
③ 양주동 ④ 고정옥

☞ 정답 ① 교재 2쪽

2. 고소설의 하위장르로서 가정소설이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05년 - 1번)

- ① 안확 ② 조윤제
③ 고정옥 ④ 정주동

☞ 정답 ① 교재 2쪽

3. 김태준은 『장화홍련전』의 내용을 무엇으로 분류하였는가? (04년 - 2번)

- ① 가사소설 ② 가정소설
③ 공안소설 ④ 송사소설

☞ 정답 ③

4.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에서 '장화홍련전'의 장르를 어디에 포함시켰는가?(06년- 1번)

- ① 가정소설 ② 공안소설
③ 전기소설 ④ 가족소설

☞ 정답 ② 교재 2쪽

5. 학계에서 논의된 '가정소설' 개념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5년 - 2번)

- ① 가정을 배경으로 한 소설

② 가족간의 갈등과 모순을 다룬 소설

③ 비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소설

④ 효, 열, 우애 등 가정윤리를 고조한 소설

☞ 정답 ④ 교재 4쪽

※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3)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정소설이란 (1) 가정 내의 (2) 가족간의 갈등과 모순을 다루되, (3) (가) 양상을 보이는 소설이란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주에 있어서는 효, 열, 우애 등 가정윤리를 고조한 소설까지를 모두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나)간의 갈등과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식간의 비극으로 한정하자는 협의의 개념정의를 내세우는 의견으로 나누어짐을 보게 된다.

6. 위의 (가)에 들어갈 말은? (06년 - 2번)

- ① 화합의 ② 진실의
③ 비극적 ④ 분열의

☞ 정답 ③ 교재 4쪽

7. 위의 (나)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06년 - 3번)

- ① 형제 ② 자매
③ 고부 ④ 처첩

☞ 정답 ④ 교재 4쪽

8. 가족의 개념정의에서 '친애의 정'을 주요한 요소로 생각한 학자는?(06년 - 4번)

- ① 김두헌 ② 프레이저
- ③ 최재석 ④ 레비 스트로스

☞ 정답 ① 교재 쪽

9. 다음 중 머독(G. P. Murdock)의 가족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05년 - 3번)

- ① 친애의 정으로써 서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 관계자의 집단
- ②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
- ③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생식이란 특성을 갖는 사회집단
- ④ 법적 유대 및 성적 권리와 금제 등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단

☞ 정답 ③ 교재 4쪽

10. 머독이 가족의 정의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04년 - 3번)

- ① 공동의 거주
- ② 가족원의 유대
- ③ 가족의 결합
- ④ 가족의 종교적 의무

☞ 정답 ① 교재 4쪽

11. 머독(G.P. Murdock)은 가족의 기본 구성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6년 - 5번)

- ① 공동의 거주 ② 경제적 협력
- ③ 생식 ④ 사랑의 결합

☞ 정답 ④ 교재 4쪽

12. 프레이저(G. S. Fraser)가 1930년대 영국 소설의 네 가지 성향으로 제시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5년 - 4번)

- ① 통속소설 ② 기록소설
- ③ 사회적 우화소설 ④ 사상소설

☞ 정답 ④ 교재 5쪽

13. 부쓰가 구분한 소설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04년 - 4번)

- ① 성격발전소설 ② 사상소설
- ③ 탐구소설 ④ 공간소설

☞ 정답 ④ 교재 6쪽

14. 루카치가 소설의 장르를 구분할 때 곧자로 프의 『오블로모프』를 어디에 포함시켰는가?(06년 - 7번)

- ① 추상적 관념론의 소설
- ② 환멸의 낭만주의 소설
- ③ 종합을 시도한 교양소설
- ④ 삶의 사회적 형식을 초월하려는 소설

☞ 정답 ② 교재 6쪽

15. 램메르트가 소설의 종류를 '서술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06년 - 6번)

- ① 탐구소설 ② 공간소설
- ③ 발전소설 ④ 의식의 흐름소설

☞ 정답 ④ 교재 6쪽

2. 조선조의 가족제도

16.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가족을 파슨즈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04년 - 5번)

- ① 단순가족 ② 핵가족
- ③ 개별가족 ④ 부부가족

☞ 정답 ① 교재 8쪽

17. 가장 단순한 가족의 형태를 말리노브스키(B. Malinowski)는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06년 - 8번)

- ① 단순가족(simple family)
- ② 핵가족(nuclear family)
- ③ 개별가족
- ④ 부부가족(conjugal family)

☞ 정답 ④ 교재 8쪽

18.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다른 종류의 용어는? (05년 - 5번)

- ① 핵가족 ② 합성가족
- ③ 부부가족 ④ 개별가족

☞ 정답 ② 교재 8쪽: 합성가족은 부부가족 내지 단순가족이 더 확대된 가족 또는 복합된 가족을 말한다.

19. '직계가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04년 - 6번)

- ①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② 결혼한 자식이 전부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③ 결혼한 자녀 1인만 그의 생식가족과 더불어 방위가족에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 ④ 부부와 3대의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 정답 ③ 교재 8쪽

20. 영조 5년의 경상도 울산부의 호적대장에 나오는 가족형태와 연관성이 먼 것은? (05년 - 6번)

- ① 전체의 78.4%가 확대가족이었다.
- ② 평균가족 수는 3.6인이었다.
- ③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 ④ 가족의 크기는 1인에서 8인까지 분포되었다.

☞ 정답 ① 교재 8쪽

21. 조선조(영조 5년)에 있어서 울산부의 호적대장에 나타났던 가족형태 중 분포도가 높은 것은? (04년 - 7번)

- ① 방위가족 ② 부부가족
- ③ 직계가족 ④ 총체가족

☞ 정답 ② 교재 8쪽

22. “가장은 생육과 연령과 경험의 차라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그리고 통제와 ()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04년 - 8번)

- ① 금기 ② 질서
- ③ 종속 ④ 억압

☞ 정답 ③ 교재 9쪽

23. 『월영낭자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4년 - 9번)

- ① 쟁충형 가정소설이다.
- ② 단순가족 형태가 확대된 직계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계모가 껌질 벗긴 강아지로 낙태한 흥계를 꾸민다.
- ④ 세 부인이 남편 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을 주요한 스토리로 삼는 작품이다.

☞ 정답 ③ 교재 10 쪽

24. 『황월선전』에 등장하는 가족유형은? (05년 - 7번)

- ① 직계가족 ② 복합가족
- ③ 총체가족 ④ 부부가족

☞ 정답 ④ 교재 10쪽 : 황월선전의 가족의 유형은 황어사와 박씨부인(계모) 부부를 중심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월선, 월생이 함께 동거하는 부부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일부다처제의 위상

25. 일부다처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06년 - 9번)

- ① 순수 농경민 보다는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들 사이에서 한층 더 성행했다.
- ② 정착된 민족보다는 유동적인 민족 사이에서 성행했다.
- ③ 유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중세까지도 그대로 행해졌다.
- ④ 일부다처제는 귀족계층과 하층민사회에서 성행하여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다.

☞ 정답 ④ 교재 11쪽 : 일부다처제는 부유한 계층에 한정되어 받아들여졌다.

26. 일부다처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04년 - 10번)

- ① 일부다처제는 역사가 매우 짧다.

- ② 일부다처제는 저급의 수렵민이나 식물채취민에서 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 ③ 일부다처제는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들보다는 순수 농경민들에서 한층 성행하였다.
- ④ 고대의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일부다처적인 관행에 빠져있었다.

☞ 정답 ④ 교재 11쪽

27. 유목민들에게 일부다처제가 성행하였던 주요인은? (04년 - 11번)

- ① 신앙적인 요인이 강했기 때문
- ② 현지의 여성들과의 만남이 용이했기 때문
- ③ 모권사회였기 때문
- ④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

☞ 정답 ② 교재 12쪽 : 유목민들에게 일부다처제가 성행하였던 주요인은 첫째, 유목민들이 옮겨 다니게 됨에 따라 남성들의 위험 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옮겨 다니는 남성들과 현지 여성들과의 만남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다처제 또는 측첩제가 관습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8. 중세적인 남녀관의 근거가 잘 나타나 있는 책은?(05년 - 8번)

- ① 『노자』 ② 『논어』
- ③ 『소학』 ④ 『중용』

☞ 정답 ③ 교재 16쪽

29. “충신은 不事二君하고, 열녀는 不更二夫한다”라는 말은 어디에 실려있는가? (04년 - 12번)

- ① 중용 ② 소학

③ 노자 ④ 대학

☞ 정답 ② 교재 16쪽

30. “忠臣은 不事二君하고 烈女는 不更二夫한 다”는 말의 출전은?(06년 - 10번)

- ① 『논어』 ② 『소학』
③ 『중용』 ④ 『여범』

☞ 정답 ② 교재 16쪽

31. 고려시대의 상속인의 선정 순위가 맞는 것은? (05년 - 9번)

- ① 적처장자 - 적출장손 - 적처장녀 - 적 처장자동모제
② 적처장자 - 적처장자동모제 - 적출장손 - 적출장손동모제
③ 적처장자 - 적출장손 - 적처장자동모제 - 적출장손동모제
④ 적처장자 - 적출장손 - 서손 - 적처장 자동모제

☞ 정답 ③ 교재 17쪽 : 고려시대의 상속인의 선정 순위는 ① 적처장자 - ② 적출장손 - ③ 적처장자동모제 - ④ 적출장손동모제 - ⑤ 庶孫(서손) - ⑥ 女孫(여손)의 순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여성의 상속권은 무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2. 다음 중 고려시대의 부부형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04년 - 13번)

- 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축첩제가 행해졌다.
② 일부다처제가 왕실과 귀족계층 사이에 성행하였다.
③ 고려 후기에 가서야 일부일처제에 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④ 고려 왕건은 일부일처제를 선호하였다.

☞ 정답 ② 교재 17쪽

33. 조선조에 있어서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은?(06년 - 11번)

- ① 재가에 대한 상당한 규제
② 첩을 적처로 삼을 수 없는 규제
③ 남성의 재취에 대한 관습적 규제
④ 혼인에 있어 신분상의 제약

☞ 정답 ③ 교재 19쪽

34. 조선조에 있어서 삼가녀(三嫁女)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04년 - 14번)

- ① 대사헌 허응의 태종에게 바친 시무 7조의 상계문
② 성종 때 중신들이 올린 입법
③ 성종 때 사림파의 신진학자들이 전개한 신흥운동
④ 태종 때 대사헌 유관이 올린 상소문

☞ 정답 ① 교재 19쪽

35. 조선조의 자녀안(恣女案)이란 무엇인가?(06년 - 12번)

- ① 삼가녀의 소생에게 벼슬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
② 여성의 재가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하는 것
③ 혼인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을 강화하는 방안
④ 여성들의 풍기문란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

☞ 정답 ① 교재 19쪽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5)

정덕 연간에 외방에 한 유생이 있었다. 과거에 응시하러 서울에 왔었다. 벼를 찾아갔다가 돌아올 제 밤이 이미 깊어 인적이 끊겼다. 종가에 이르니 장정넷이 이문 골목으로부터 나와 유생을 밟아 땅에 넘어뜨리고 가축 부대로 그의 몸을 대어섯 겹 둘러싼 다음 ‘너 만약 한마디 소리라도 내면 당장 처죽이리라’ 하고는 짊어지고 달아나니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몰랐다. 많은 고살을 지나 한 곳에 이르러 부대를 헤치고 나오니, 담장이 높고 행랑이 죽 둘러여 있었다. 옷을 벗기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방 안에 넣었다. 벽은 농화지로 발랐고 금요침식이 다 화려하였다.

문득 문이 열리더니 연소한 미녀가 시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의복이 신선하고 용모가 고우나 누른 기가 있었다. 동숙하다가 밤이 되어 정을 다하니 북소리가 뚝뚝 울렸다. (... 생략 ...)

대개 당시 (가)를 금하는 법이 처음으로 베풀어지니, 사족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36. 위의 글에서 (가)에 들어갈 말은? (06년 - 13번)

- ① 일부다처 ② 축첩제
- ③ 재가 ④ 三嫁女

☞ 정답 ③ 교재 20쪽

37. 위의 유생이 겪은 일 때문에 생긴 구체적인 인사말은? (06년 - 14번)

- ① 안녕하세요?
- ② 건강하세요?
- ③ 아침식사 했나요?
- ④ 간밤에 별고 없으셨나요?

☞ 정답 ④ 교재 20쪽

38. 위의 글의 출전은?(06년 - 15번)

- ① 성현의 『慵齋叢話』
- ② 서거정의 『동문선』
- ③ 강희맹의 『村談解頤』
- ④ 유몽인의 『어우야담』

☞ 정답 ④ 교재 20쪽

39. 조선조에 있어서 처첩이 완전히 구분되는 중혼금지의 법이 확립된 시기는? (04년 - 15번)

- ① 태조 3년 ② 세종 6년
- ③ 태종 13년 ④ 성종 15년

☞ 정답 ③ 교재 25쪽 : 태종 13년(1413) 이후부터는 처첩이 완전히 구분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는 重婚禁止(중혼금지)의 법이 비로소 확립되었다.

40. 조선조의 혼례에 있어서 사례(四禮) 중 ‘의혼’이란? (04년 - 16번)

- ① 혼인의 당사자가 성숙하면 부모가 중매인을 내세워 양가를 내왕케 하는 단계
- ②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을 보내는 의식
- ③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 의식
- ④ 혼인 때 신부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의식

☞ 정답 ① 교재 30쪽 : 조선조의 왕가나 사대부가 民庶의 풍속에 있어서 혼인은 ‘의혼(議婚) -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親迎)’의 절차를 철저히 밟았다.

41. 조선조의 혼례풍습 중 혼인 당사자가 성숙하면 부모가 중매인을 내세워 양가를 내왕케 하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05년 - 10번)

- ① 납채(納采) ② 납폐(納幣)

- ③ 의혼(議婚) ④ 친영(親迎)

☞ 정답 ③ 교재 30쪽

42. 조선조의 혼례의 육례 중 ‘親迎’이란? (06년 - 16번)

- ① 부모가 중매를 내세워 양가를 내왕케 하는 의식
 ②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 붉은 비단을 보내는 의식
 ③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 의식
 ④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대나무를 가로질러 보내는 의식

☞ 정답 ③ 교재 30쪽 : 혼례의 육례는 ‘納采(납채) - 問名(문명) - 納吉(납길) - 納幣(납폐) - 請期(청기) - 親迎(친영)’

4. 조선조 여성의 존재 위치와 내적 갈등

43. 고려시대의 풍습을 설명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은?(05년 - 11번)

- ①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의하면 여계로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일부일처제를 천명하였으나 축첩제가 만연하였다.
 ③ 남성의 축첩축기는 허용되었으나 여성의 부정은 형법으로 다스려졌다.
 ④ 남편사후에는 여성들에게 수절을 강요하지 않았다.

☞ 정답 ① 교재 32쪽 : 고려시대에는 삼국 및 통일신라 이래의 남계 적장자 우선주의를 취하였으며, 여계로의 계승권도 인정하였다.

44. 조선조의 ‘七去之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06년-17번)

- 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② 도박을 행하는 것
 ③ 말이 많은 것
 ④ 惡疾에 걸린 것

☞ 정답 ② 교재 35쪽 : 七去之惡(칠거지악)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불순한 행위, 질투, 말 많은 것, 惡疾(악질), 절도의 7가지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0)

(가) 때에 어떤 부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다. 마침 강가에 이르러 배를 타야 되었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배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뱃사람이 그 부인의 손을 붙잡아 배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그 부인은 크게 통곡하면서 “내 손이 네 손에 더럽혀졌으니 어찌 살아 있겠느냐”하고, 정절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곧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45. 위의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06년 - 18번)

- ① 전쟁의 참혹함
 ② 피난살이의 어려움
 ③ 여성의 정절
 ④ 간음의 범주

☞ 정답 ③ 교재 35쪽

46. 위의 글의 (가)에 들어갈 말은? (06년 - 19번)

- ① 임진왜란 ② 정유재란
 ③ 병자호란 ④ 정묘호란

☞ 정답 ① 교재 35쪽

47. 위의 글의 출전은? (06년 - 20번)

- ① 『芝峰類說』 ② 『扶桑錄』
③ 『大東野僧』 ④ 『筆苑雜記』

☞ 정답 ① 교재 35쪽

제 2장 가정소설의 작품 분석과 그 의미

1. 계모형 가정소설의 분석

48. 다음 중 『장화홍련전』의 후반부의 모티프에 해당하는 것은?(05년 - 12번)

- ① 강씨의 유언과 죽음
- ② 장화 낙태 모함 받음
- ③ 윤씨의 몽조(선녀 → 연화 두 송이 줌)
- ④ 장쇠의 호환

☞ 정답 ③ 교재 42쪽

49. 다음 중 『장화홍련전』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04년 - 17번)

- ① 호질설화
- ② 청조의 길 안내 전설
- ③ 적강화소
- ④ 동아리모티브

☞ 정답 ④ 교재 42쪽

50. 『장화홍련전』에서 작품구조 속의 공간에서 ()에 들어갈 말은?(06년 - 22번)

천상계 → 인간계 → () → 천상계 → 인간계

- ① 지하계 ② 수중계
- ③ 중간계(명부) ④ 깊은 산중

☞ 정답 ③ 교재 43쪽

51. 『장화홍련전』의 <수축 → 정지 → 확산>의 구조에서 ‘수축’과 연관성이 없는 것

은?(06년 - 23번)

- ① 자매의 哀憐의 삶 ② 순종의 삶
- ③忍苦의 삶 ④ 원귀로서의 삶

☞ 정답 ④ 교재 44쪽

52. 『장화홍련전』의 작품구조 중 ‘수축 - 정지 - 확산’의 구조에서 ‘정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04년 - 18번)

- ① 계모의 박해
- ② 병으로 인한 모친의 죽음
- ③ 부친의 오해
- ④ 장화의 죽음

☞ 정답 ④ 교재 44쪽

53. 『장화홍련전』의 구조인 ‘수축-정지-확산’에서 ‘정지’에 해당하는 것은?(05년 - 13번)

- ① 장화의 고난의 삶
- ② 계모의 모함과 박해
- ③ 장화원혼의 복수극
- ④ 장화의 투신

☞ 정답 ④ 교재 44쪽

54. 『장화홍련전』의 전반부 즐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04년 - 19번)

- ① 눈물의 미학 ② 환상적 삶
- ③ 애련의 삶 ④ 현실순응적 삶

☞ 정답 ② 교재 45쪽

55. 연세대본 29장본 『장화홍련전』에서 계모 허씨의 거짓 증언을 극복한 방법은?(06년 - 21번)

- ① 전동호 부사의 지혜
- ② 전동호 부사 참모의 직간
- ③ 홍련 자매의 원귀의 조언
- ④ 靑鳥의 도움

☞ 정답 ③ 교재 47쪽

56. 『장화홍련전』에 등장하는 합리적 보복양상의 연계성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04년 - 20번)
- ① 귀의 성 ② 봉선화
③ 구의산 ④ 금수회의록

☞ 정답 ④ 교재 48쪽 : 합리적인 보복양상은 이인직의 신소설 『귀의 성』이나, 이해조의 『봉선화』, 『구의산』 등에 와서는 비합법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보복, 살인행위로 변모되어 계승된다.

57. 꽃의 상징적 의미와 연관되어 ‘나무의 잎’으로 상징적으로 처리되어 여승으로 모진 고초를 겪는 여주인공 수정의 삶을 그린 작품은?(05년 - 14번)
- ① 『홍도화』 ② 『화세계』
③ 『봉선화』 ④ 『수선화』

☞ 정답 ② 교재 48쪽

58. 소설작품 중 주인공이 물에 투신하여 자살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06년 - 24번)
- ① 『인향전』 ② 『황월선전』
③ 『귀의성』 ④ 『화세계』

☞ 정답 ③ 교재 51쪽

59. 신화적 의미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없는 것은? (04년 - 21번)
- ① 구원의 생명의 흐름
② 풍요로움
③ 여성 상징
④ 억압, 압제

☞ 정답 ④ 교재 52쪽

60. 다음 중 ‘혼사장에 모티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04년 - 22번)
- ① 남녀 주인공의 결연
② 남녀 주인공의 이산
③ 평탄한 삶의 연속인 여주인공
④ 남녀주인공의 극적인 상봉

☞ 정답 ③ 교재 54쪽

61. 고소설 중에서 거북이의 보은담이 등장하는 작품은? (04년 - 26번)
- ① 김전전 ② 어룡전
③ 황월선전 ④ 김취경전

☞ 정답 ① 교재 62쪽

62. 계모형 소설의 공간구조 중 주인공이 특이하게 천상계에 다녀오는 내용이 나오는 작품은?(05년 - 16번)
- ① 『양풍운전』 ② 『김취경전』
③ 『장화홍련전』 ④ 『김인향전』

☞ 정답 ① 교재 69쪽

63. 계모형 소설 중 태몽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작품은?(06년 - 26번)
- ① 『어룡전』 ② 『김인향전』
③ 『양풍운전』 ④ 『조생원전』

☞ 정답 ① 교재 71쪽

64. 계모형 소설에서 계모의 등장배경 중 전처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현숙한 여인을 재취로 둘 것을 권유한 경우는? (05년 - 17번)
- ① 『조생원전』 ② 『어룡전』

③ 『창선감의록』 ④ 『황월선전』

☞ 정답 ② 교재 74쪽

65. 계모형 소설 중 주인공 모해 방법으로 떡과 큰 구렁이를 사용한 작품은?(06년 - 27번)

① 『장화홍련전』 ② 『황월선전』
③ 『김인향전』 ④ 『정을선전』

☞ 정답 ③ 교재 76쪽

66. 계모형소설 중 회개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06년 -25번)

① 『조생원전』 ② 『김취경전』
③ 『창선감의록』 ④ 『김전전』

☞ 정답 ① 교재 84쪽

67. 계모형 소설 중 특이하게 계모학대형 구조와 처첩쟁총형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은? (06년 - 28번)

① 『양풍운전』 ② 『황월선전』
③ 『정을선전』 ④ 『어룡전』

☞ 정답 ③

68. 계모형 소설 중 영웅담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은? (05년 - 18번)

① 『양풍운전』 ② 『창선감의록』
③ 『정을선전』 ④ 『조생원전』

☞ 정답 ④ 교재 88쪽

69. 계모형 소설이긴 하지만 계모형과 쟁총형의 구조를 겸비한 작품은? (04년 - 25번)

① 정을선전 ② 황월선전
③ 창선감의록 ④ 김전전

☞ 정답 ① 교재 90쪽

70. 계모형 소설 중에서 갈등 해소의 주 방안으로 계모의 개과천선이 나오는 작품은? (06년 -29번)

① 『황월선전』 ② 『조생원전』
③ 『창선감의록』 ④ 『어룡전』

☞ 정답 ② 교재 92쪽

71. 계모형 소설 중에서 복수극이 나오지 않고 결말처리에서 회개가 나오는 작품은? (05년 -15번)

① 『김인향전』 ② 『양풍운전』
③ 『김취경전』 ④ 『정을선전』

☞ 정답 ④ 교재 92쪽

72. 계모형 소설에서 갈등의 주요인이 '재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05년 -19번)

① 『황월선전』 ② 『창선감의록』
③ 『어룡전』 ④ 『김전전』

☞ 정답 ① 교재 93쪽

73. 계모형 소설 중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04년 - 23번)

① 양풍운전 ② 황월선전
③ 김취경전 ④ 김인향전

☞ 정답 ①

74. 계모형 소설 중 독특하게 단군도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04년 - 24번)

① 창선감의록 ② 김전전
③ 월영낭자전 ④ 김취경전

☞ 정답 ④

2. 쟁송형 가정소설의 분석

75. 『사씨남정기』에서 첩인 교씨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06년 - 30번)

- ① 개방적 확대적 삶의 태도
- ② 타고난 간교한 성품
- ③ 탐욕스러움의 전형
- ④ 아들을 출산하는 정상녀

☞ 정답 ① 교재 97쪽

76. 쟁송형 가정소설에서 후처의 등장배경으로 皇命이 제시되는 작품은? (04년 - 27번)

- ① 사씨남정기 ② 정진사전
- ③ 소현성록 ④ 일락정기

☞ 정답 ③ 교재 108쪽

77. 쟁송형 중 공모자 조평이 등장하여 황제까지 동원하면서 주인공을 모해하는 이야기는? (06년 - 31번)

- ① 『소현성록』 ② 『일락정기』
- ③ 『화산기봉』 ④ 『정진사전』

☞ 정답 ② 교재 109쪽

78. 쟁송형에서 공모자로 하인이나 심복이 등장하는 작품은? (05년 - 20번)

- ① 『일락정기』 ② 『화산기봉』
- ③ 『소씨전』 ④ 『월영낭자전』

☞ 정답 ③ 교재 109쪽

79. 쟁송형 가정소설 중 공모자로 어침이나 신관도사가 나오는 작품은? (04년 - 28번)

- ① 일락정기 ② 화산기봉
- ③ 소현성록 ④ 소씨전

☞ 정답 ② 교재 109쪽

80. 쟁송형에 등장하는 구원자 중 현실적인 인간이 등장하는 작품은?(05년 - 21번)

- ① 『사씨남정기』 ② 『옥란빙』
- ③ 『월영낭자전』 ④ 『정진사전』

☞ 정답 ② 교재 111쪽

81. 쟁송형 가정소설에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인간이 구조자로 등장하는 작품은? (04년 -29번)

- ① 정진사전 ② 사씨남정기
- ③ 월영낭자전 ④ 화산기봉

☞ 정답 ④ 교재 111쪽

82. 쟁송형 중 영웅담이 나타나는 작품은? (05년 - 22번)

- ① 『소씨전』 ② 『소현성록』
- ③ 『일락정기』 ④ 『정진사전』

☞ 정답 ③ 교재 112쪽

83. 쟁송형에서 징벌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 작품은? (05년 - 23번)

- ① 『소씨전』 ② 『월영낭자전』
- ③ 『옥란빙』 ④ 『소현성록』

☞ 정답 ② 교재 112쪽

제 3장 가정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가족사소설'의 등장

4. 가정소설의 통속화 경행

84. 가정소설 중 처·첩 갈등을 문제삼되, 왜 축첩이 이루어지는가하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은? (05년 - 24번)

- ① 『어룡전』 ② 『정을선전』
③ 『정진사전』 ④ 『화문록』

☞ 정답 ④ 교재 123쪽

5. 개화기 이해조의 문학

85. 이해조가 <제국신문>의 '개가론'까지 삽입하여 그 당위성을 주장한 작품은? (06년 - 32번)

- ① 『홍도화』 ② 『자유종』
③ 『화의혈』 ④ 『봉선화』

☞ 정답 ① 교재 125쪽

제 4장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소설사적 변화양상

1. 대립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86. 독일의 수용미학 이론가인 아우스의 비평용어는? (05년 - 26번)

- ① 아우라 ② 기대지평
③ 공동체 전략 ④ 빈자리

☞ 정답 ② 교재 143쪽

2. 동반자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

87. 페미니즘 소설 중 '동반자적 위상 속에서의 여성 자아의 실현'을 다룬 작품은? (05년 - 25번)

- 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② 『고삐』
③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④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 정답 ① 교재 145쪽

제 5장 작품 감상

2. 구의산

88. 신소설 『구의산』에 영향을 미친 고소설은?
(04년 - 30번)

- ① 사씨남정기 ② 조생원전
③ 홍길동전 ④ 김취경전

☞ 정답 ② 교재 223쪽

89. 『구의산』과 같은 서사구조를 지닌 가정소설은? (05년 - 27번)

- ① 『소씨전』 ② 『소현성록』
③ 『월영낭자전』 ④ 『조생원전』

☞ 정답 ④

3. 경희(瓊喜)

90. 나혜석의 단편 『경희』의 출전은? (05년 - 28번)

- ① 『가정』 ② 『여성』
③ 『여자계』 ④ 『소년』

☞ 정답 ③ : 나혜석은 1918년 도쿄여자친목회가 낸 『여자계』에 구여성을 설득하여 신여성의 각성된 삶의 방식에 동의하게 만드는 실천적 삶을 그린 단편 『경희』를 발표하였다.

91. 다음 중 나혜석의 작품이 아닌 것은? (05년 - 29번)

- ① 『유랑가족』 ② 『어머니와 딸』
③ 『규원』 ④ 『원한』

☞ 정답 ①

92. 다음 중 나머지 한 작품과 연관성이 없는 작품은? (04년 - 31번)

- ① 소년의 희생 ② 희생한 손녀에게
③ 규원 ④ 원한

☞ 정답 ① : 『소년의 희생』은 나혜석의 작품이 아니다.

4. 레디메이드 인생

93. 채만식의 다음 작품 중 성격이 다른 한 작품은? (05년 - 30번)

- ① 『레디메이드 인생』
② 『명일』
③ 『소망』
④ 『미스터 방』

☞ 정답 ④ 교재 279쪽 : 주인공들이 대상 세계와의 적극적 대결을 회피함에 따른 자아 축소로 인해 고등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작품들이다.

5. 산골나그네

94. 김유정의 『산골나그네』와 관련이 많은 것은? (04년 - 32번)

- ① 인력거 ② 강도
③ 들병이 ④ 기생

☞ 정답 ③ 교재 293쪽

95.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들병이의 비참한 삶이 나오는 이야기는? (05년 - 31번)

- ① 『만무방』 ② 『안해』
③ 『산골』 ④ 『논이야기』

☞ 정답 ② 교재 293쪽

6. 김약국의 3딸들

96. 박경리의 장편소설 중에서 ‘인간의 생명성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면서 작가의 자서전적인 면모를 보인 작품은? (05년 - 32번)

- ① 『파시』 ② 『시장과 전장』
- ③ 『표류도』 ④ 『불신시대』

☞ 정답 ③

97. 박경리의 작품 중에서 자서전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은? (04년 - 33번)

- ① 표류도 ② 김약국의 딸들
- ③ 파시 ④ 토지

☞ 정답 ① : 『표류도』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지향, 개인 차원에서 작가의 자서전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98. 『김약국의 딸들』에서 박경리가 가장 애정을 두고 있는 자연적인 총동의 인물은? (06년 - 34번)

- ① 용숙 ② 용빈
- ③ 용란 ④ 용옥

☞ 정답 ③

7. 엄마의 말뚝

99. 『엄마의 말뚝』과 관련이 없는 것은? (04년 - 34번)

- ① 세 편으로 구성된 연작소설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대한 천착을 하고 있는 수

작이다.

- ② 2편에서는 의용군에서 도망쳐 나온 아들과 함께 피난을 가지 못해 찢찢매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온다.
- ③ 작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나목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 ④ 작가의 대표작으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미망,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이 있다.

☞ 정답 ③

100. 다음 중 박완서의 작품이 아닌 것은?(05년 - 33번)

- ① 『꽃을 찾아서』
- ② 『저문 날의 삽화』
- ③ 『목마른 계절』
- ④ 『착한 여자』

☞ 정답 ④ : 『착한 여자』(1997)는 공지영의 작품이다.

101. 『엄마의 말뚝』연작 소설 중 ‘말년에 사고로 넘어진 어머니가 약간의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는’ 이야기가 그려진 작품은? (05년 - 34번)

- ① 『엄마의 말뚝』1 ② 『엄마의 말뚝』2
- ③ 『엄마의 말뚝』3 ④ 『엄마의 말뚝』4

☞ 정답 ②

102.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06년 - 33번)

- ① 여성해방운동의 이념 반영
- ②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충돌

- ③ 창조적 삶과 순응적 삶의 내적 갈등
- ④ 주체적 인식을 통한 여성의 자기 정체성 획득

☞ 정답 ④ 교재 134~145쪽

8.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03.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체념하기와 자생적 현실도피’와 연관성이 있는 작중인물은? (04년 -35번)

- ① 혜완 ② 영선
- ③ 경환 ④ 경혜

☞ 정답 ④

10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체념하기와 자생적 현실도피’의 모습을 보이는 등장인물은? (05년 -35번)

- ① 혜완 ② 경혜
- ③ 영선 ④ 정화

☞ 정답 ②

105.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부부싸움 끝에 칼을 들어 자해한 순결한 도덕관의 여주인공은? (06년 -35번)

- ① 민자 ② 혜완
- ③ 경혜 ④ 영선

☞ 정답 ④